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세미나

발제자

기독교 청소년들의 신앙생활 탐구
정재영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종교사회학)

기독교 청소년들의 가정, 학교생활 및 유튜브 활용실태 분석
박상진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

청소년 목회현장 적용 및 제안
김지환목사(안산제일교회, 다음세대총괄)

일시

2021년 6월 17일(목) 오후 2시

장소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1층 그레이스홀

주관

안산제일교회
총회한국교회연구원

조사 및 통계분석

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세미나

자료집 목차

발제1 기독교 청소년들의 신앙생활 탐구	p 4
정재영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종교사회학	

발제2 기독교 청소년들의 가정, 학교생활 및 유튜브 활용실태 분석	p 35
박상진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	

발제3 청소년 목회현장 적용 및 제안	p 71
김지환목사 안산제일교회 다음세대총괄	

설문지	p 86
-----	------

* 본 자료집과 발제영상은 안산제일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조사 목적

- 근래의 한국교회는 점차 고령화되고 젊은 층의 비중은 줄어들면서 교회의 미래에 대해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음. 특히 청소년은 입시 준비에 대한 부담, 게임, 영상 등 여가 활용물의 범람으로 인해서 그들을 둘러싼 신앙적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데, 기독교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와 맞물려 교회 출석과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청소년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확립하고 올바른 신앙 지도를 하는 것이 중고생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육성하는데 매우 중요함.
- 본 조사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기독교 청소년들이 코로나19 기간 중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신앙 활동 및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파악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음세대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에 그 목적이 있음.

조사 설계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개신교 중고생
조사 지역	● 전국
조사 방법	●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표본 규모	● 총 500명 (유효 표본)
표본 추출 방법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20년4월 기준)에 따른 지역, 성, 학교급(중/고)에 따른 비례할당 추출
자료 처리	●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교육통계의 지역/성/학교급별 가중치 적용)
조사 기간	● 2021년 4월 8일 ~ 4월 23일
조사 수행 기관	● 연구·분석 : 목회데이터연구소 ● 실사 및 자료수집 : (주)지앤컴리서치

* 본 조사에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개신교 중고생' 응답률((응답완료 수/패널접속 수)*100)은 11.7%임.

응답자 특성

구 분		사례수	비율(%)
전 체		(500)	100.0
성별	남학생	(258)	51.6
	여학생	(242)	48.4
학교급	중학생	(247)	49.4
	고등학생	(253)	50.6
지역	서울	(82)	16.4
	인천/경기	(162)	32.4
	부산/울산/경남	(75)	15.0
	대구/경북	(49)	9.8
	광주/전라	(52)	10.4
	대전/충청	(58)	11.6
	강원/제주	(22)	4.4
학교구분	국공립	(288)	57.6
	사립	(121)	24.3
	대안학교	(51)	10.3
	기타	(39)	7.8
학교구분2	국공립	(288)	57.6
	기독교 사립/대안학교	(87)	17.4
	비기독교 사립/대안학교	(86)	17.1
	기타	(39)	7.8
부모 종교	모두 개신교	(331)	66.2
	한분만 개신교	(107)	21.4
	모두 비개신교	(62)	12.4
교회 규모	100명 미만	(155)	31.0
	100~499명	(170)	34.0
	500~999명	(100)	19.9
	1000명 이상	(76)	15.1
중고등부 유무	있음	(431)	86.1
	없음	(69)	13.9
중고등부 규모	10명 미만	(66)	15.4
	10~49명	(178)	41.4
	50~99명	(90)	21.0
	100명 이상	(96)	22.3
구원의 확신	있음	(244)	48.9
	없음	(41)	8.2
	잘 모름	(215)	43.0
신앙의 단계*	1단계	(174)	34.7
	2단계	(171)	34.3
	3단계	(101)	20.2
	4단계	(54)	10.8
가구 경제수준	상	(142)	28.4
	중	(235)	47.0
	하	(123)	24.6

* 신앙의 단계 : 1단계 -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내 종교는 아직까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2단계 -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 분을 알기 위해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다.

3단계 -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 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4단계 -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 분으로 충분하다.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기독교 청소년들의 신앙생활 탐구

정재영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종교사회학)

I. 들어가는 말

최근 한국 교회에서 교회학교가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다. 예장 통합 교단의 경우, 유치부와 초등부·소년부가 2019년 기준으로 9년 사이에 38% 정도 줄었고, 중고등부 역시 40% 가까이 감소한 것을 보고되었다. 다른 교단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감리교는 교회학교와 중고등부 학생 수를 모두 합해 8년 사이에 10만 명이 줄었고, 전체 수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통합 교단의 경우, 교회학교 학생 수가 줄어서 영아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는 78%, 중등부가 없는 교회는 47%, 고등부가 없는 교회는 48%로 나타났다. 예장 합동 교단도 유치등부가 10명 이하인 교회는 53%, 중고등부가 10명 이하인 교회는 51%로 나타났다.

저출산으로 인해 유소년 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제 교회학교와 중고등부는 감소를 넘어 해체로 치닫고 있다. 게다가 작년부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학교와 중고등부가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있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회복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고등부 학생들의 신앙상태와 개인 생활을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산제일교회 주관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기독교 청소년들의 삶과 신앙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것은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기독교 청소년들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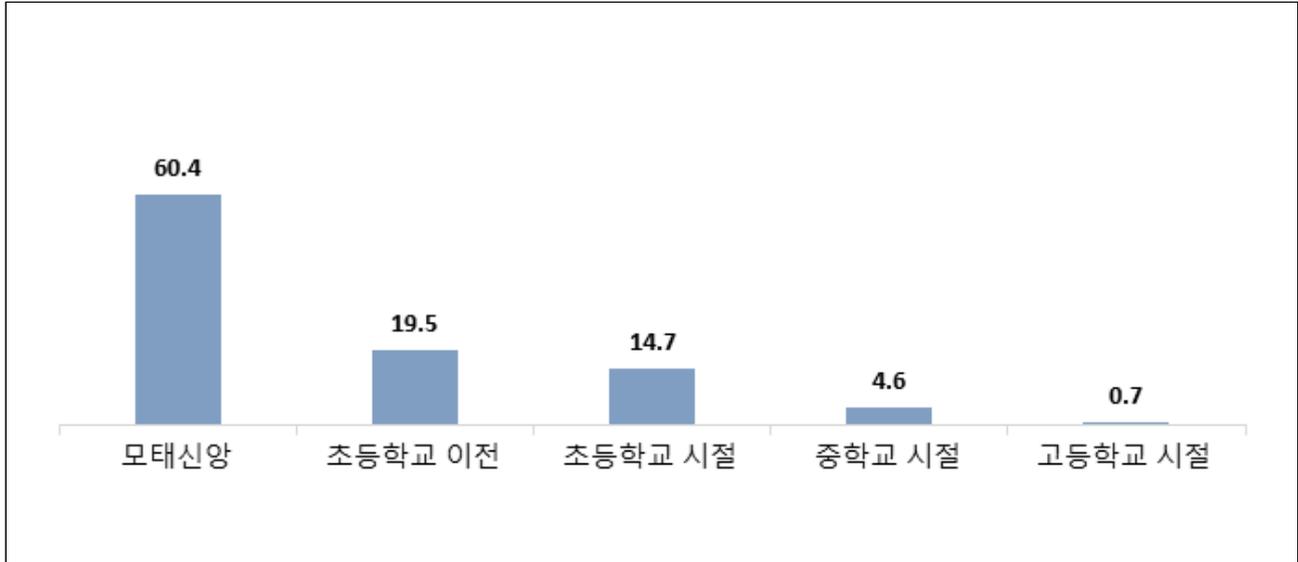
II. 조사 결과

1. 개인 신앙생활

1) 개인 신앙상태

[그림1] 교회 처음 나온 시기

(Base=전체, N=500, %)



[표1] 교회 처음 나온 시기

(Base=전체, N=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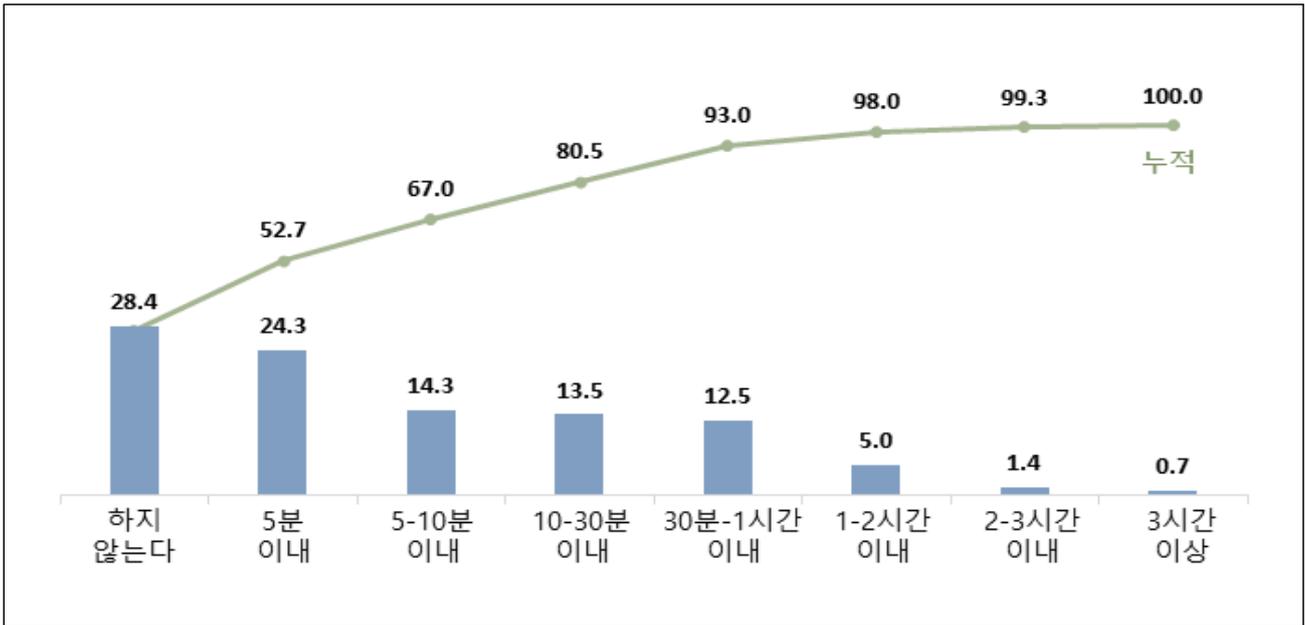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태어날 때 부터	초등학교 이전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계	
전체	(500)	60.4	19.5	14.7	4.6	0.7	100.0	
성별	남학생	(258)	54.1	21.2	18.1	5.7	0.9	100.0
	여학생	(242)	67.2	17.7	11.2	3.4	0.6	100.0
부모 종교	모두 개신교	(331)	73.4	15.4	8.4	2.0	0.8	100.0
	한분만 개신교	(107)	49.6	24.4	20.5	5.1	0.4	100.0
	모두 비개신교	(62)	10.1	33.2	38.4	17.2	1.2	100.0
아버지 직분	중직자	(136)	82.3	11.3	5.0	1.1	0.3	100.0
	서리집사/직분없음	(179)	67.2	18.1	10.6	2.6	1.5	100.0
	가나안성도	(21)	56.6	16.5	22.3	4.6	0.0	100.0
	비기독교인	(164)	35.4	28.2	26.4	9.6	0.4	100.0

이번 조사에서 크리스천 중고생의 60%는 모태신앙으로 조사됐으며, 중학교 이전(모태신앙~초등학교 시절)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비율이 대부분(94.6%)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것은 2019년에 <21세기교회연구소>와 <한국교회탐구센터>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 모태신앙이 50.8%였고, 중학교 이전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비율이 90.2%였던 것보다 더 증가한 수치이다.¹⁾ 이것은 기독교의 가족 종교화 경향이 더 심해진 것이며 중고등부 시절에 전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태신앙 비율은 여학생에서 더 높고, 부모가 모두 개신교인 경우에 월등히 높으며, 특히 아버지가 중직자인 경우에는 82.3%가 모태신앙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입학 후에 교회에 나가게 된 비율은 부모가 모두 비개신교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비개신교 가정의 청소년들은 초등학교 이후에 나온 비율이 56.8%로 과반수를 차지하여 개신교 가정의 청소년들의 과반수가 모태신앙인 것과 대비되었다.

1) 21세기교회연구소·한국교회탐구센터, 「기독교 청소년들의 신앙과 교회인식 세미나 자료집」(2019년 12월 6일), 23쪽.

[그림2] 하루 중 신앙생활 시간

(Base=전체, N=500, %)



[표2] 하루 중 신앙생활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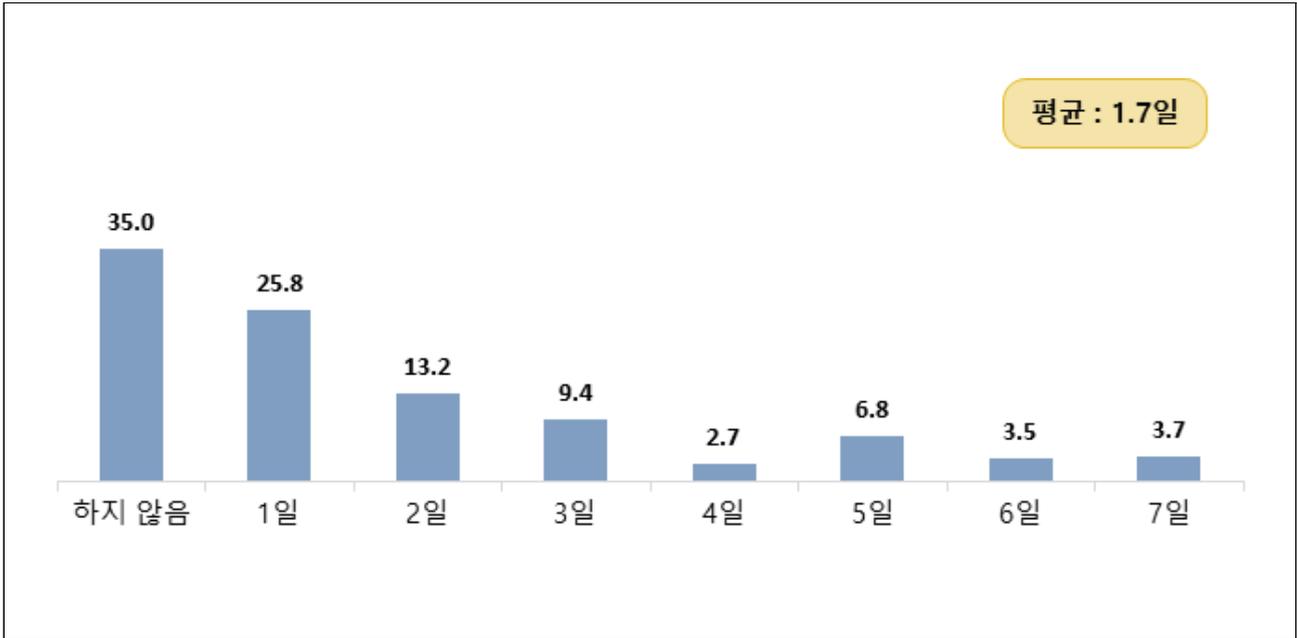
(Base=전체, N=500, %)

구분	사례수 (명)	하지 않는다	5분 이내	5-10분 이내	10-30분 이내	30분-1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2-3시간 이내	3시간 이상	계	
전체	(500)	28.4	24.3	14.3	13.5	12.5	5.0	1.4	0.7	100.0	
성별	남학생	(258)	26.5	20.6	15.8	16.5	13.2	4.8	2.3	0.1	100.0
	여학생	(242)	30.3	28.3	12.7	10.4	11.7	5.1	0.3	1.2	100.0
학교급	중학생	(247)	32.0	22.3	10.1	13.0	13.0	7.0	2.1	0.5	100.0
	고등학생	(253)	24.8	26.2	18.4	14.1	12.0	3.1	0.7	0.8	100.0
어머니 직분	중직자(사모 포함)	(123)	19.2	27.1	13.7	18.4	15.5	4.2	0.4	1.4	100.0
	서리집사/직분없음	(301)	31.6	21.3	14.8	11.8	12.2	6.2	1.8	0.3	100.0
	가나안성도	(10)	23.4	49.1	14.1	5.3	8.1	0.0	0.0	0.0	100.0
	비기독교인	(67)	31.3	29.0	13.3	13.6	8.7	1.7	1.2	1.1	100.0
신앙의 단계	1단계	(174)	51.2	25.7	9.9	5.4	6.5	0.2	1.1	0.0	100.0
	2단계	(171)	20.6	22.6	17.9	19.2	11.4	6.5	1.0	0.8	100.0
	3단계	(101)	10.8	22.8	19.5	17.0	18.3	9.2	2.0	0.4	100.0
	4단계	(54)	12.3	28.0	7.6	15.1	24.2	7.7	2.3	2.8	100.0
지난 주일예배 유형	온라인 예배	(125)	22.8	27.2	18.2	12.1	11.9	3.4	3.2	1.2	100.0
	현장 예배	(222)	22.2	25.7	14.0	18.6	11.6	6.0	1.2	0.8	100.0
	방송/가정 예배	(51)	22.4	14.5	16.6	11.6	21.4	13.5	0.0	0.0	100.0
	드리지 못함	(101)	51.9	22.7	9.2	5.1	10.6	0.4	0.0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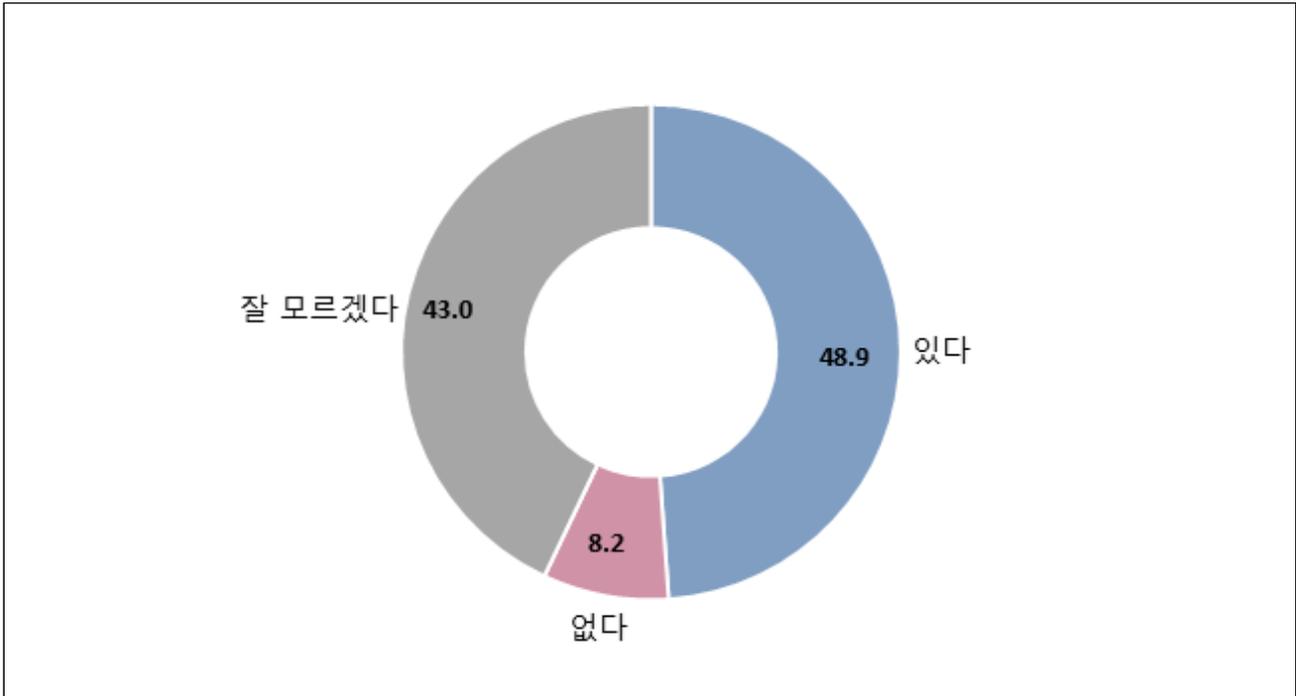
하루 중 신앙생활 시간에 대하여 28.4%는 하루 중 신앙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분 이내로 하는 비율이 24.3%, 5~10분 이내가 14.3% 등으로, 크리스천 중고생의 일상생활 중 신앙 활동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루 중 신앙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에서 더 높고, 어머니 직분이 낮은(서리집사 이하)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다. 19년 조사에서와 이번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청소년들이 어머니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신앙의 단계가 낮을수록 ‘하지 않는다’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지난 주일예배를 드리지 못한 경우 절반 이상(51.9%)이 하루 중 신앙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림3] 1주간 QT 일수

(Base=전체, N=500, %)



1주일간 QT 시간을 가졌는지 물은 결과, 3명 중 1명(35.0%)은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했으며, 1일이 25.8%, 2일이 13.2% 등으로 나타났다. 1주간 평균 QT 일수는 1.7일이었다. 매주 2일 가까이 QT를 한다는 것은 예상보다 높은 수치인데 예배 시간에 하는 말씀 묵상을 포함해서 응답했을 가능성도 있다. 평균 QT 일수는 부모가 모두 개신교인 학생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고, 특히 어머니가 중직자인 학생에서 평균 2.3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에서 평균 QT 일수가 가장 높았다. 따라서 QT를 하는 것은 본인의 신앙이나 가족의 기독교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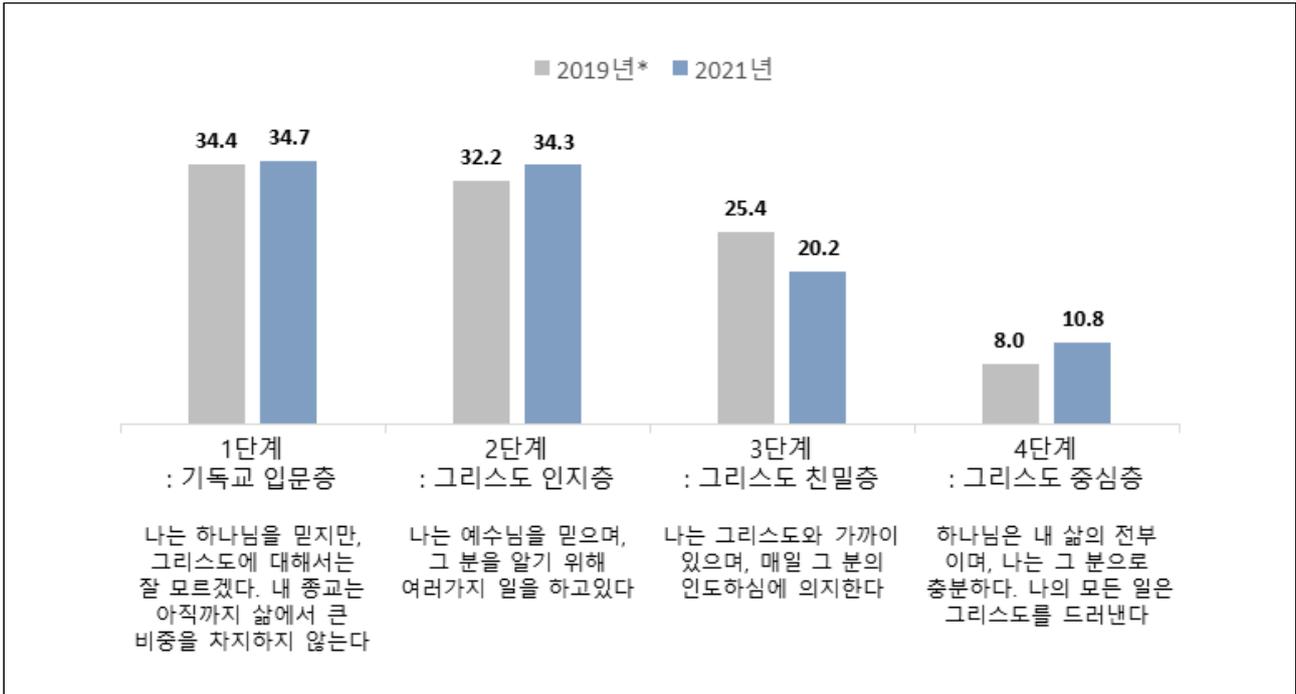


[표3] 구원의 확신

(Base=전체, N=500, %)

구 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잘모르겠다	계
전 체		(500)	48.9	8.2	43.0	100.0
성별	남학생	(258)	53.0	7.1	39.9	100.0
	여학생	(242)	44.5	9.3	46.2	100.0
학교급	중학생	(247)	40.5	11.2	48.3	100.0
	고등학생	(253)	57.1	5.2	37.7	100.0
부모 종교	모두 개신교	(331)	54.6	7.1	38.3	100.0
	한분만 개신교	(107)	42.5	8.7	48.9	100.0
	모두 비개신교	(62)	29.2	13.0	57.8	100.0
중고등부 규모	10명 미만	(66)	42.3	2.2	55.6	100.0
	10~49명	(178)	49.1	9.4	41.5	100.0
	50~99명	(90)	48.6	4.4	47.0	100.0
	100명 이상	(96)	56.7	13.1	30.2	100.0

구원의 확신에 대해 크리스천 중고생의 절반 정도(48.9%)는 '있다'고 응답했으며, 8.2%는 '없다', 43.0%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이것은 2014년에 <기독교연합신문>에서 조사했을 때 59.9%가 나온 것과 비교하면 10%p 정도 감소한 결과이다. 이것이 학생들의 신앙 수준이 하락한 것인지 교육 방식의 변화 때문인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구원의 확신을 덜 강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여기지기 때문이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응답률은 남학생과 고등학생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부모가 모두 개신교인 경우에 더 높으며, 중고등부 규모가 클수록 구원의 확신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 21세기교회연구소·교회탐구센터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의식 조사' 2019.11 (전국 교회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자신의 신앙 단계에 대해 4단계 중에서 고르게 하였다. 조사 결과,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내 종교는 아직까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1단계와(34.7%),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 분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2단계가(34.3%) 유사한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 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는 3단계는 20.2%,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 분으로 충분하다.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4단계는 10.8% 응답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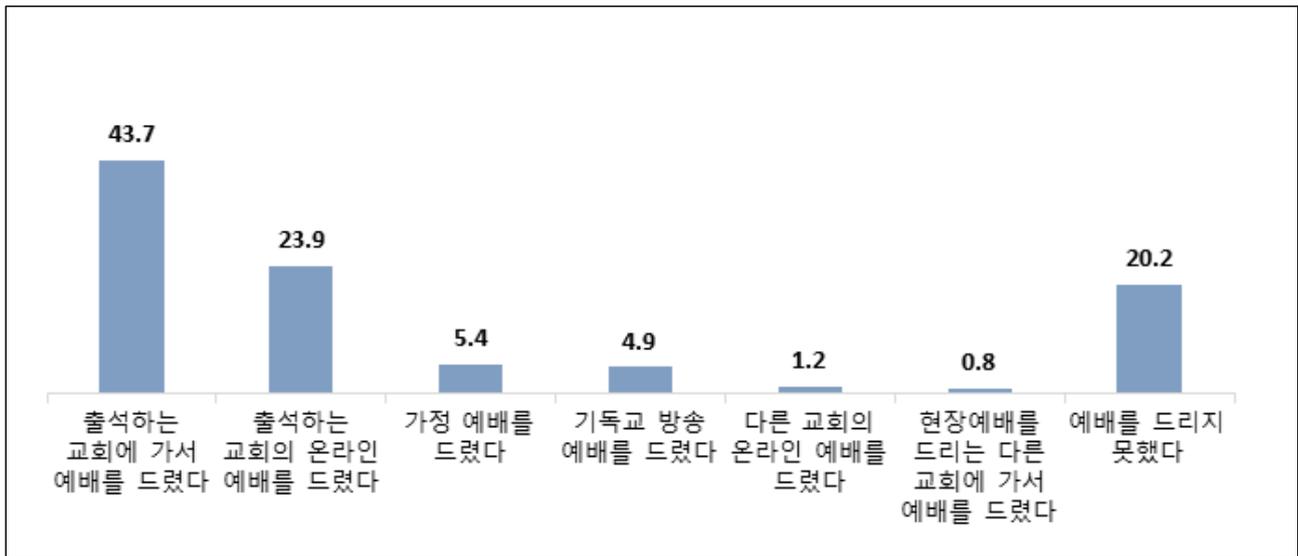
신앙 단계가 '4단계'인 비율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집단과 지난주 '현장예배'를 드린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19년도 조사 결과에 비해서 3단계는 줄고 4단계는 늘었지만 전반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기독 청년들과 비교하면 2단계가 약간 많고, 성인 전체와 비교하면 2단계가 두배 가량 많은 특징을 보인다. 곧 기독교 입문 단계는 지났지만 아직 초보적인 신앙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소년 시기가 신앙이 본격적으로 정립되는 시기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²⁾

2) 21세기교회연구소 외, 「코로나시대, 기독청년들의 신앙생활 탐구 세미나 자료집」(2021년 1월 27일),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서울: URD, 2018).

2) 주일 예배 인식

[그림6] 지난주 주일예배 형태

(Base=전체, N=500, %)



[표4] 지난주 주일예배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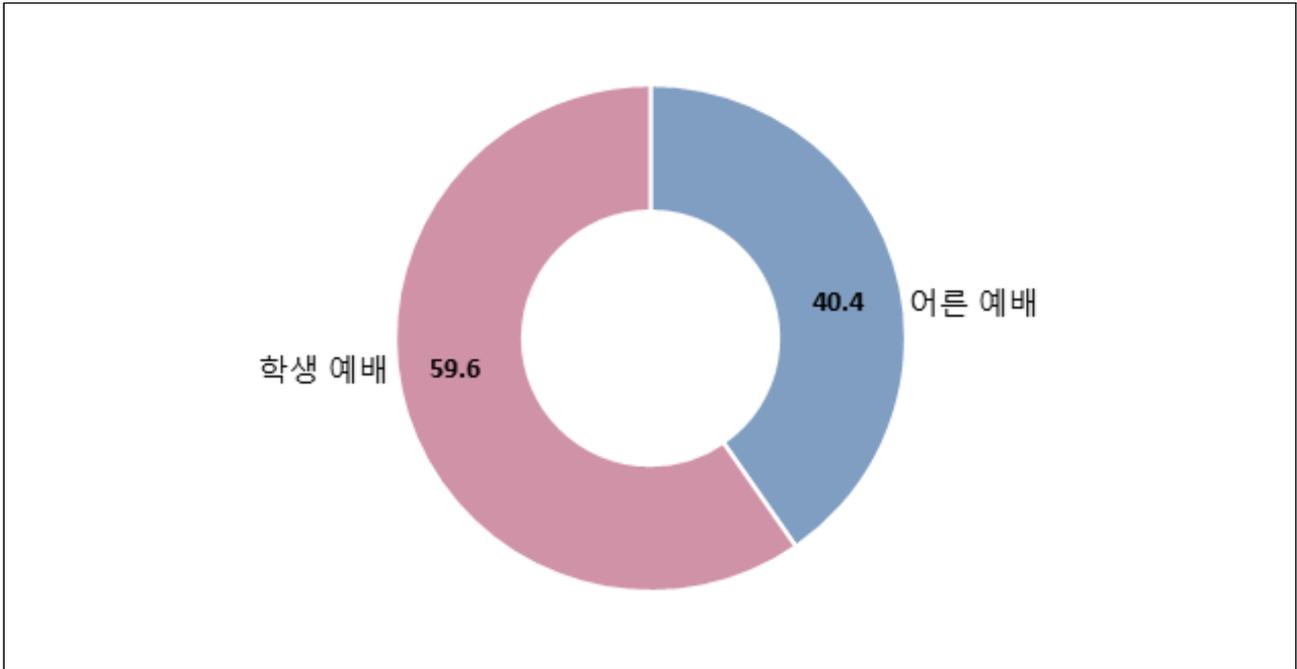
(Base=전체, N=500, %)

구 분	사례수 (명)	출석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출석하는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가정 예배를 드렸다	기독교 방송 예배를 드렸다	다른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현장예배를 드리는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계
전 체	(500)	43.7	23.9	5.4	4.9	1.2	0.8	20.2	100.0
성별	남학생 (258)	39.5	23.2	6.4	7.5	1.8	0.9	20.7	100.0
	여학생 (242)	48.1	24.5	4.4	2.1	0.5	0.7	19.7	100.0
부모 종교	모두 개신교 (331)	46.5	25.7	5.7	5.1	1.1	0.5	15.5	100.0
	한분만 개신교 (107)	36.3	22.9	3.3	5.8	1.4	2.2	28.2	100.0
	모두 비개신교 (62)	41.6	15.9	7.5	2.0	1.2	0.0	31.9	100.0

주일 예배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살펴보자. 먼저, 지난 주일 예배 형태에 대하여, 43.7%는 ‘출석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응답하여 현장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 규모가 100명 이하인 경우에 54.5%가 현장예배를 드렸고, 중고등부 학생이 10명 이하인 경우 51.4%가 현장예배를 드렸다고 응답하여 작은 교회에서 현장예배를 드린 경우가 더 많았다. 그리고 23.9%는 ‘출석하는 교회의 온라인예배를 드렸다’고 응답해, 3분의 2 이상이 출석교회의 현장 또는 온라인예배를 드린 것으로 조사됐다. ‘출석교회 현장예배’ 비율은 여학생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고, ‘출석교회 온라인예배’는 부모가 비개신교인 학생보다 한 명 이상 개신교인 학생에서 높다. 부모가 모두 비개신교인 학생은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아서 예배 참석 역시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기] 지난주 예배 구분(어른 예배 vs 학생 예배)

(Base=지난주 출석교회 현장&온라인 예배 드린 자, N=33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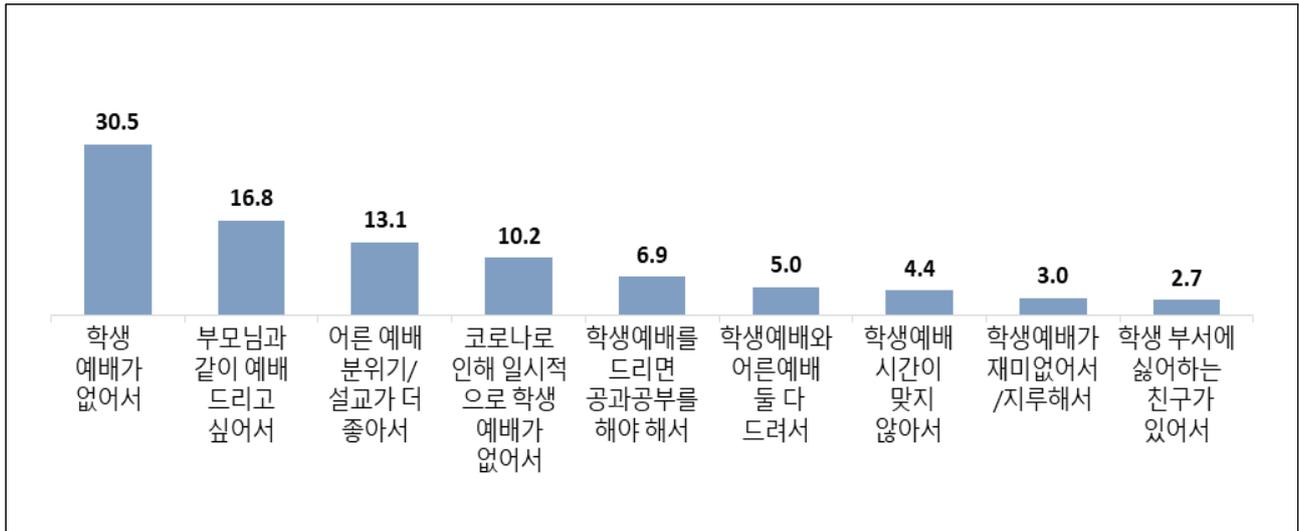


[표5] 지난주 예배 구분(어른 예배 vs 학생 예배)

(Base=지난주 출석교회 현장&온라인 예배 드린 자, N=338, %)

구분	사례수 (명)	어른 예배	학생 예배	계
전체	(338)	40.4	59.6	100.0
교회 규모	100명 미만	58.9	41.1	100.0
	100~499명	35.7	64.3	100.0
	500~999명	30.1	69.9	100.0
	1000명 이상	23.0	77.0	100.0
중고등부 유무	있음	32.6	67.4	100.0
	없음	100.0	0.0	100.0
중고등부 규모	10명 미만	55.3	44.7	100.0
	10~49명	33.1	66.9	100.0
	50~99명	28.3	71.7	100.0
	100명 이상	17.1	82.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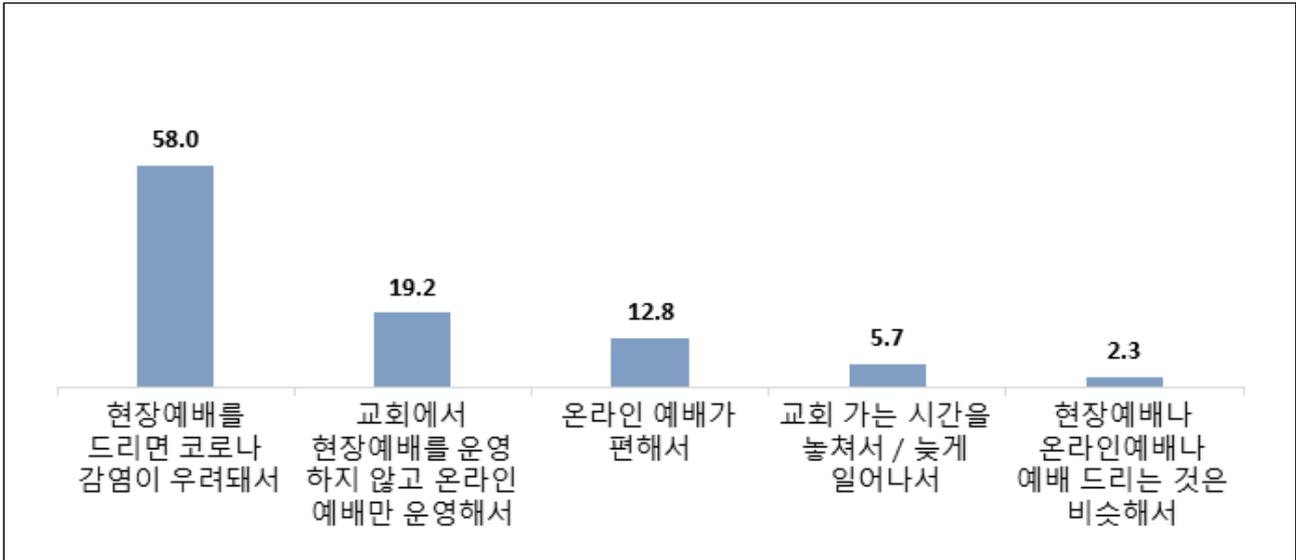
지난주 출석교회의 현장예배 또는 출석교회의 온라인예배를 드린 학생에게, 어른예배와 학생예배 중 어느 예배를 드렸는지 물은 결과, 학생예배가 59.6%로 약간 더 많았다. 교회 규모 및 중고등부 규모가 작은 집단에서 ‘어른 예배’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형교회에서 ‘학생예배’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소형교회나 중고등부 학생이 적은 경우에는 중고등부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19년도 조사에서 학생예배를 드린 비율이 73.4%였던 것에 비해 10%p 이상 줄어든 결과인데 코로나 여파 때문으로 보인다.



어른 예배를 드린 이유에 대해서, 어른 예배를 드린 학생 5명 중 2명은(40.7%) ‘학생예배가 없어서’ 어른예배를 드렸다고 응답했다.(‘학생예배 없음’ 30.5% +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학생예배 없음’ 10.2%) 그 다음으로 ‘부모님과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서’(16.8%), ‘어른 예배 분위기/설교가 더 좋아서’(13.1%) 등의 순으로 응답됐으며, 학생예배 자체에 대한 불만(공과공부 때문에, 지루해서 등)으로 학생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른예배를 드린 학생들 중 60%에 가까운 학생들이 학생예배가 있음에도 어른 예배를 드렸다는 점에서 학생 예배에 대한 호감이 적다고 볼 수 있다. 교인 수 100명 미만 교회에서 ‘학생예배가 없어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교인 수 500명 이상 중대형교회와, 지난주 온라인예배를 드린 학생에서 ‘부모님과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9] 온라인 예배 드린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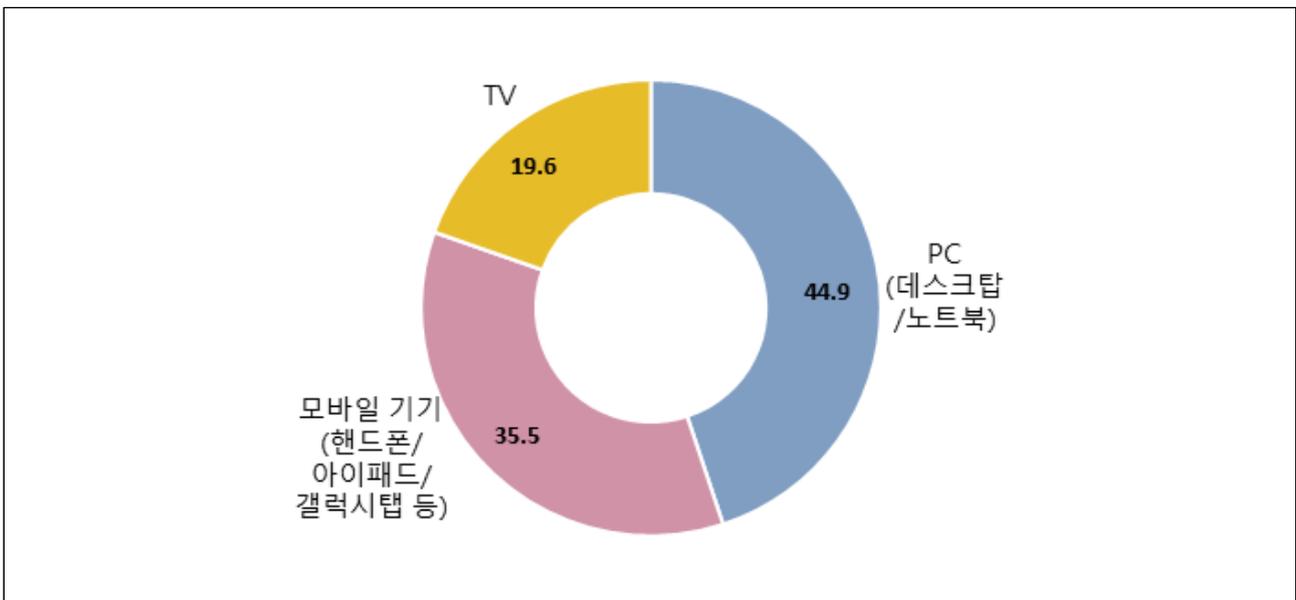
(Base=지난주 온라인예배 드린 자, N=125, %)



지난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출석교회 또는 다른 교회의 온라인 예배)로 드린 학생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절반 이상(58.0%)이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우려’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교회에서 현장예배를 운영하지 않아서’가 높게 나타나, 코로나19 상황을 주 이유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예배가 편해서’는 12.8%였다.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우려’는 여학생과 중학생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고, ‘온라인 예배가 편해서’ 응답률은 고등학생에서 더 높은 특징을 보인다.

[그림10] 온라인 예배 시 활용 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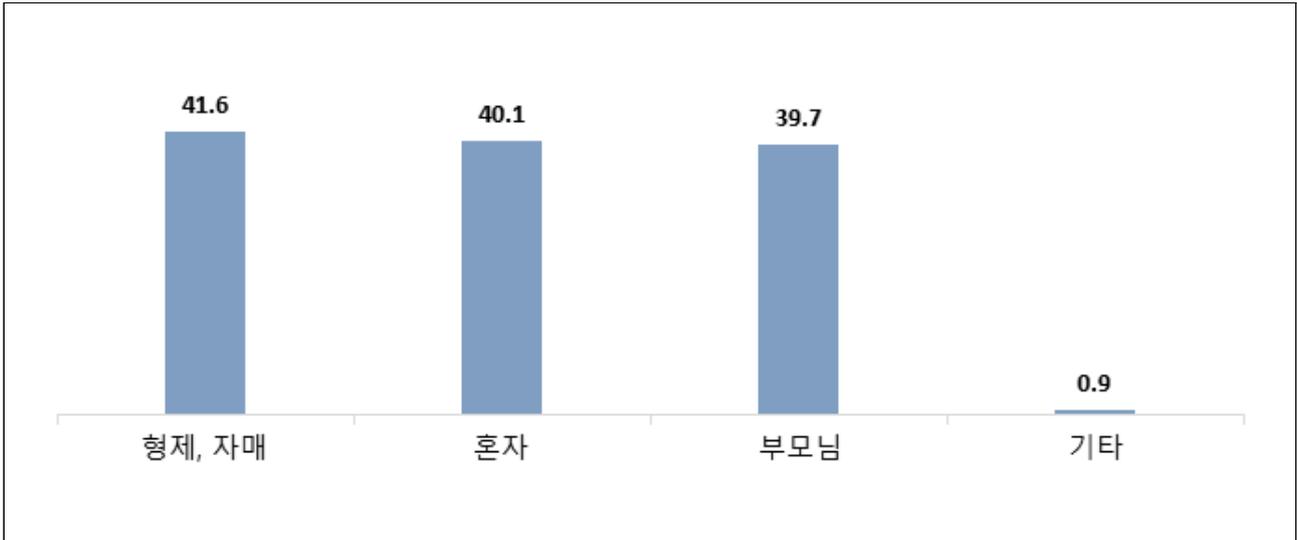
(Base=지난주 온라인예배 드린 자, N=125, %)



온라인 예배 시 이용한 기기는 ‘PC(데스크탑, 노트북)’가 44.9%로 가장 많았으며, ‘모바일 기기’가 35.5%, ‘TV’가 19.6%로 응답하여 대부분이 개인용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PC, 여학생은 TV를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학생의 TV 이용률이 고등학생보다 높다.

[그림11]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린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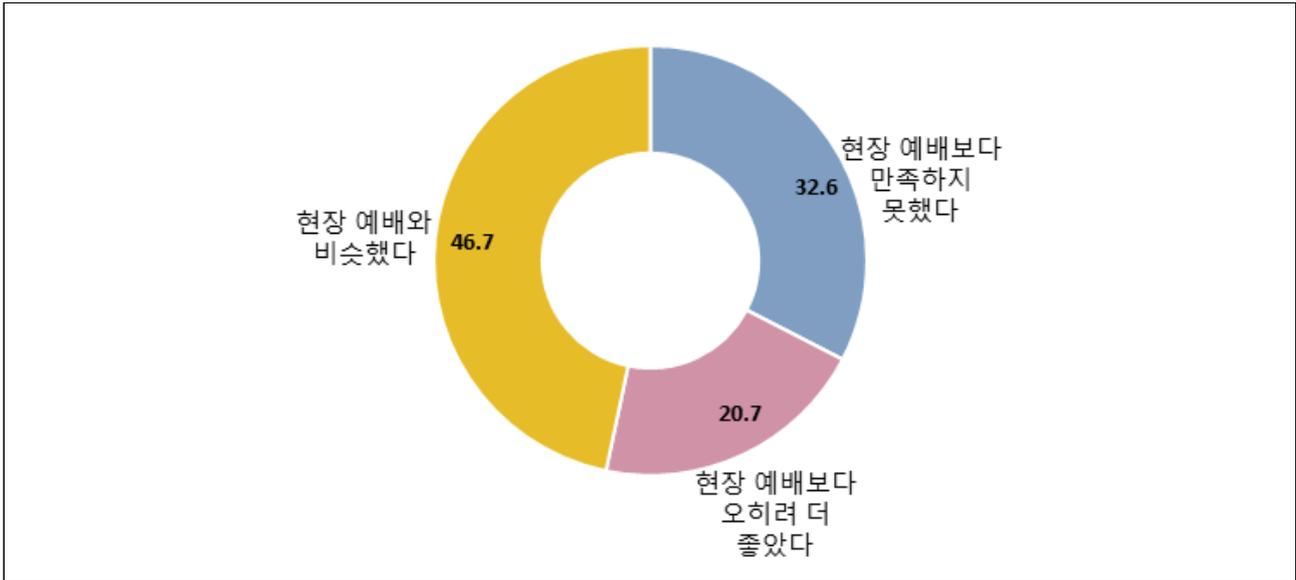
(Base=지난주 온라인예배 드린 자, N=125, %/중복)



온라인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경우가 40.1% 였으며, 60% 가량은 형제/자매나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문항과 관련해서 보면, 혼자 예배 드리는 경우에 대부분 모바일 기기를 쓴다고 볼때, 가족과 함께 드리는 경우에도 적지 않은 응답자가 PC를 이용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보여 이 경우에 예배에 대한 집중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학생과 고등학생은 혼자 드리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여학생과 중학생은 형제/자매나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12] 온라인/방송/가정 예배의 현장예배 대비 만족도

(Base=지난주 온라인/방송/가정 예배 드린 자, N=176, %)



[표6] 온라인/방송/가정 예배의 현장예배 대비 만족도

(Base=지난주 온라인/방송/가정 예배 드린 자, N=17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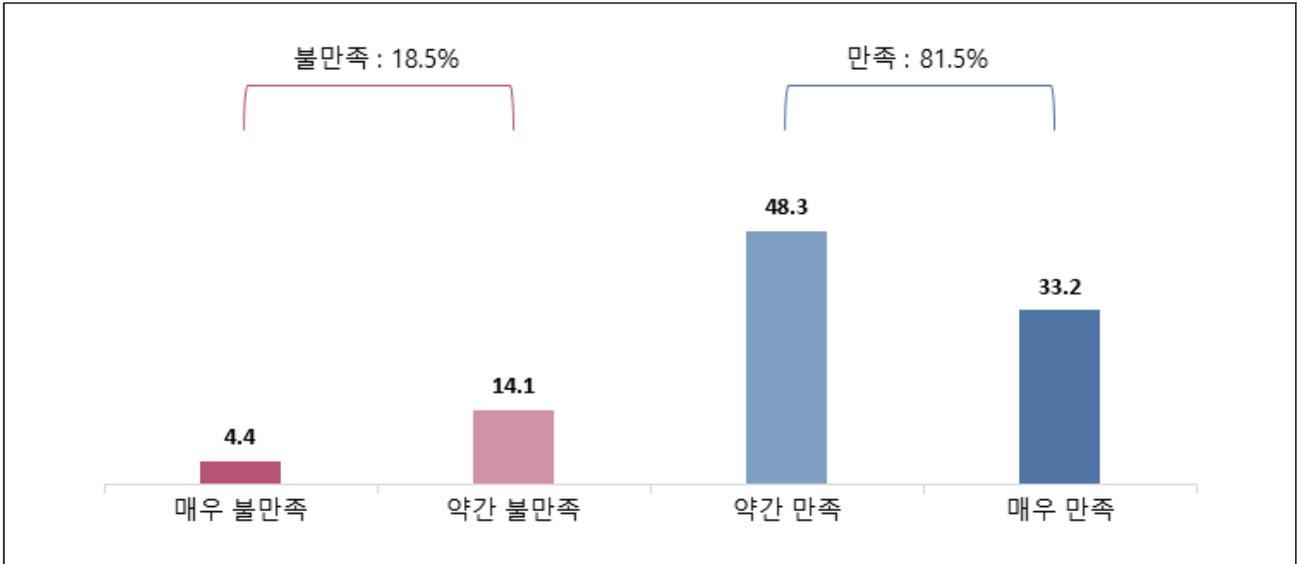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명)	현장 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했다	현장 예배보다 오히려 더 좋았다	현장 예배와 비슷했다	계
전 체	(176)	32.6	20.7	46.7	100.0
교회 규모	100명 미만	(41) 18.6	31.7	49.7	100.0
	100~499명	(55) 28.3	21.6	50.1	100.0
	500~999명	(43) 35.1	18.4	46.5	100.0
	1000명 이상	(38) 51.0	10.2	38.7	100.0
중고등부 유무	있음	(153) 35.4	17.8	46.8	100.0
	없음	(24) 14.6	39.5	45.9	100.0
중고등부 규모	10명 미만	(24) 24.4	22.8	52.7	100.0
	10~49명	(47) 34.5	21.6	43.9	100.0
	50~99명	(38) 36.2	13.9	49.9	100.0
	100명 이상	(44) 41.7	14.3	44.0	100.0
지난 주일예배 유형	온라인 예배	(125) 32.5	18.2	49.3	100.0
	방송/가정 예배	(51) 32.8	26.8	40.4	100.0

지난 주일 예배를 온라인예배, 방송 예배, 가정 예배로 드린 응답자들의 만족도에 대하여 절반 정도는 '현장예배와 비슷했다'고 응답했으며, '현장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했다'는 32.6%, '현장예배보다 오히려 더 좋았다'는 20.7%로 나타났다. 3분의 2정도가 온라인예배에 만족감을 나타낸 것인데, 기독 청년 조사에서 3분의 2가량이 현장예배가 더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하면 온라인예배에 대한 청소년들의 거부감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교회에서는 '현장예배보다 좋았다', 대형교회에서는 '현장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고등부가 있는 교회에서 '현장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했다'는 응답률이 더 높은 것을 보았을 때,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예배 여건이 잘 갖춰진 경우에는 현장예배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형교회의 경우 온라인예배를 드렸다는 응답은 17%로 많지 않았으므로 소형교회 학생들이 온라인예배를 더 선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온라인예배보다 '방송/가정 예배'를 드린 학생에서 '현장예배보다 오히려 더 좋았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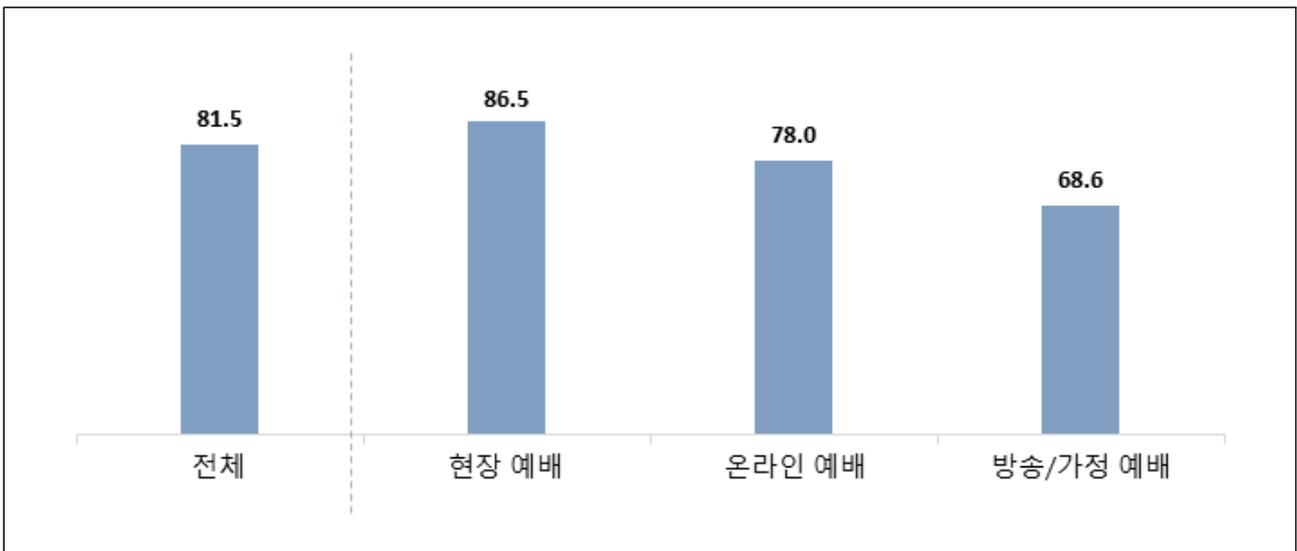
[그림13] 지난 주일 예배 만족도

(Base=지난주 주일예배 드림, N=399, %)



[그림14] 지난 주일 예배 만족도 - 예배 유형별 '만족한다'(약간+매우) 비율

(Base=지난주 주일예배 드림, N=399, %)



[표7] 지난 주일 예배 만족도

(Base=지난주 주일예배 드림, N=399, %)

구 분	사례수 (명)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계	[불만족]	[만족]	
전 체	(399)	4.4	14.1	48.3	33.2	100.0	18.5	81.5	
교회 규모	100명 미만	(125)	4.8	10.9	43.2	41.1	100.0	15.7	84.3
	100~499명	(133)	2.8	11.0	51.3	34.8	100.0	13.8	86.2
	500~999명	(78)	7.3	18.2	49.1	25.4	100.0	25.4	74.6
	1000명 이상	(63)	3.5	21.8	50.8	23.9	100.0	25.3	74.7
지난 주일예배 유형	온라인 예배	(125)	3.6	18.4	49.8	28.2	100.0	22.0	78.0
	현장 예배	(222)	4.5	9.0	48.1	38.3	100.0	13.5	86.5
	방송/가정 예배	(51)	6.0	25.4	45.1	23.6	100.0	31.4	6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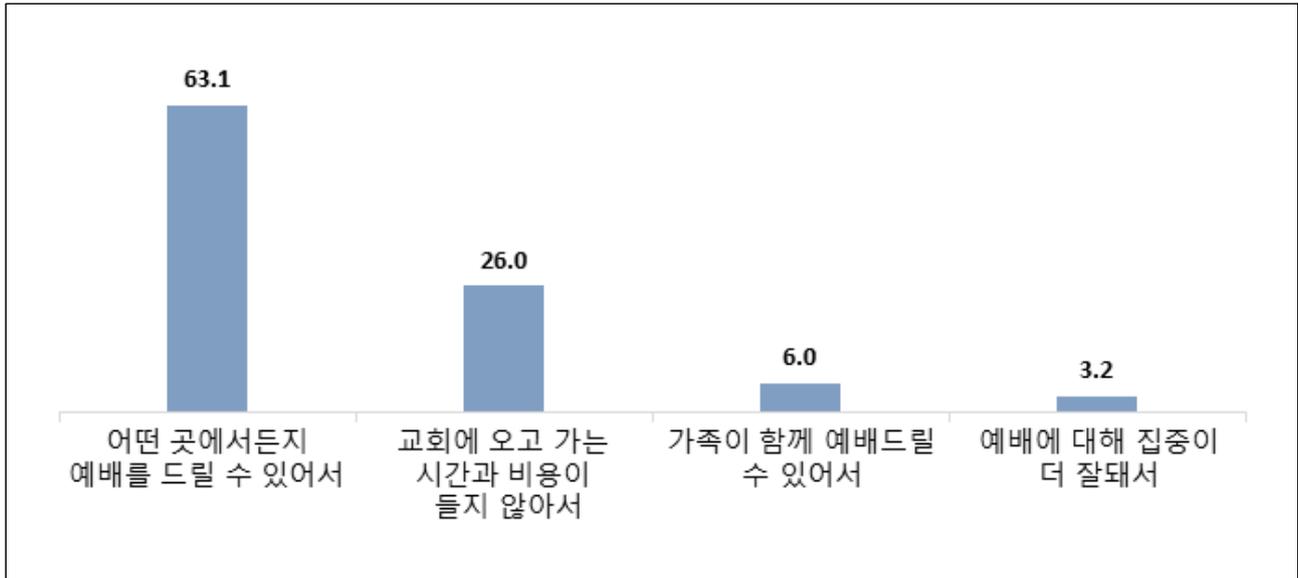
지난 주일예배에 대한 만족도(약간 만족+매우 만족)는 81.5%로, 크리스천 중고생들은 주일예배에 대해서는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배 유형별로는 '현장예배'를 드린 집단에서 만족도가 86.5%로 가장 높았고, '온라인예배'는 78.0%, '방송/가정 예배'는 68.6%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주일예배

만족도는 교회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보인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형교회에서는 어른 예배를 드린 경우가 더 많으므로 소형교회의 학생예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교차분석을 해본 결과 소형교회에서 어른 예배보다 학생예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회 규모와 예배 형태에 대하여 교차분석을 한 결과,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경우는 100명 미만 교회의 학생예배가 89.3%였다. 1000명 이상 교회의 현장예배도 95.3%로 매우 높았고, 100명 미만 교회의 방송/가정예배가 93.5%였는데, 두 경우 모두 사례 수가 적어서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

[그림15] 온라인 예배 만족 이유

(Base=지난주 온라인예배 드린 자 중 예배 만족자, N=9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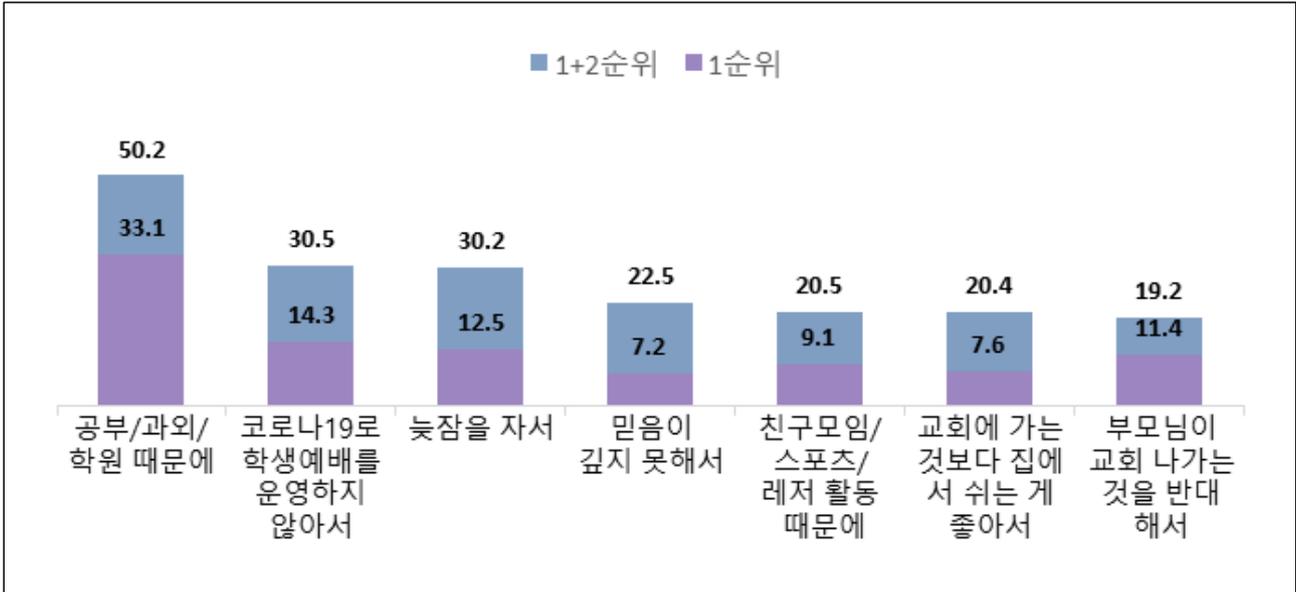


지난 주일예배를 온라인 예배(출석교회 또는 다른교회의 온라인 예배)로 드린 학생 중 예배에 '만족한다'(약간+매우)고 한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2/3가(63.1%) '어떤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라고 응답해, 장소의 자유로움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교회에 오고 가는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아서'는 26.0%였는데 고등학생에서는 35.5%로 더 높게 나타나 입시 준비와 학업으로 상대적으로 더 바쁜 고등학생들에게는 시간 절약의 이점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예배에 불만족한 이유로는 '현장예배만큼 집중할 수 없어서'가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예배의 생생한 분위기를 느끼기 어려워서'(29.2%)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례 수가 적으므로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그림16] 지난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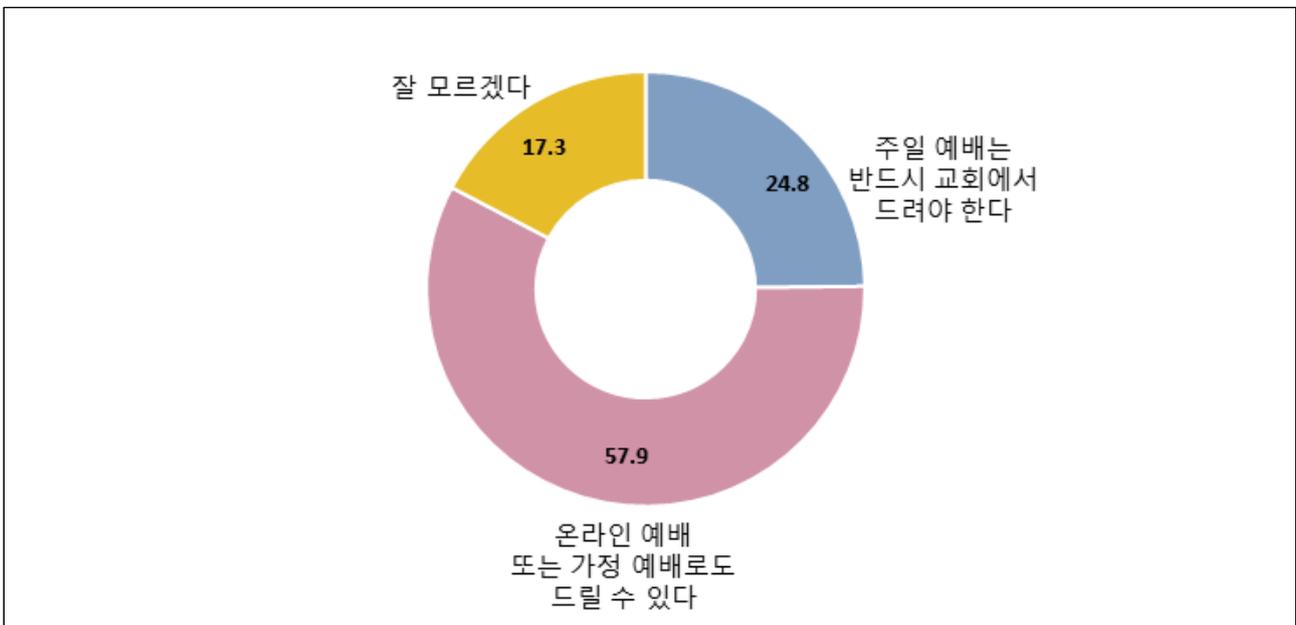
(Base=지난 주일예배 드리지 못함, N=101, %)



지난주 주일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유로는 1순위와 1+2순위 모두 ‘공부/과외/학원 때문에’가 가장 높게 나타나, 크리스천 중고생들의 신앙에 가장 어려운 점은 학업과 병행하는 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2순위 응답률을 살펴보면, 중학생은 학업 이유 외에 ‘학생예배를 운영하지 않아서’와 ‘부모님의 반대’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고등학생은 ‘늦잠’과 ‘쉬는 게 좋아서’ 등 휴식의 이유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그림17] 주일 예배 방식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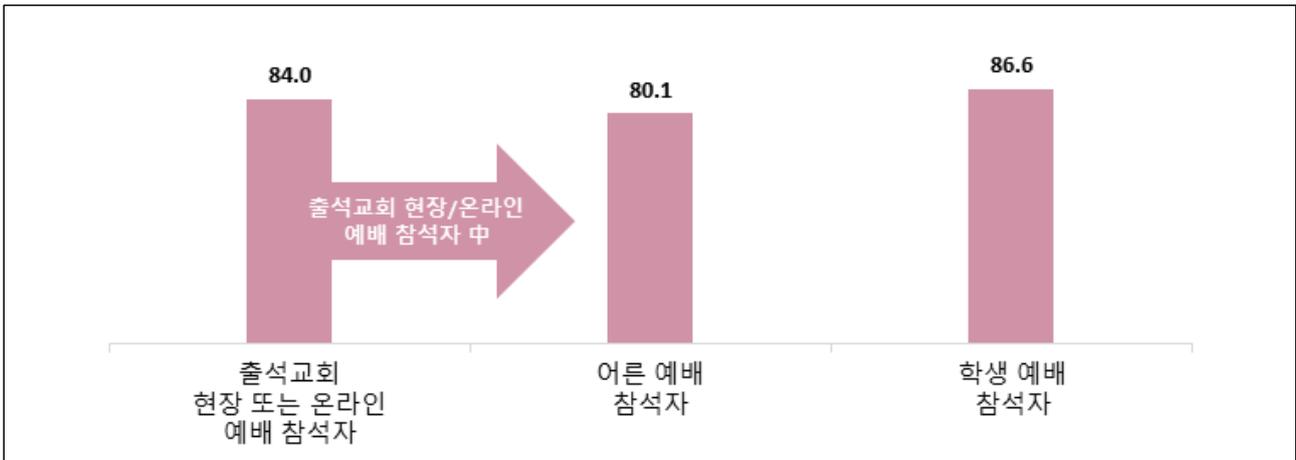


다음으로 주일 예배 방식에 대하여, 크리스천 중고생의 절반 이상(57.9%)은 ‘주일예배를 온라인예배 또는 가정 예배로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일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비율은 24.8%로 적게 나타났다. 이것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와도 비슷하다.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응답률은 신앙 단계가 높을수록 높아지며, 교회 규모가 작을수록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2. 교회 중고등부 생활

[그림18] 학생예배 만족도(약간만족+매우만족)

(Base=전체, N=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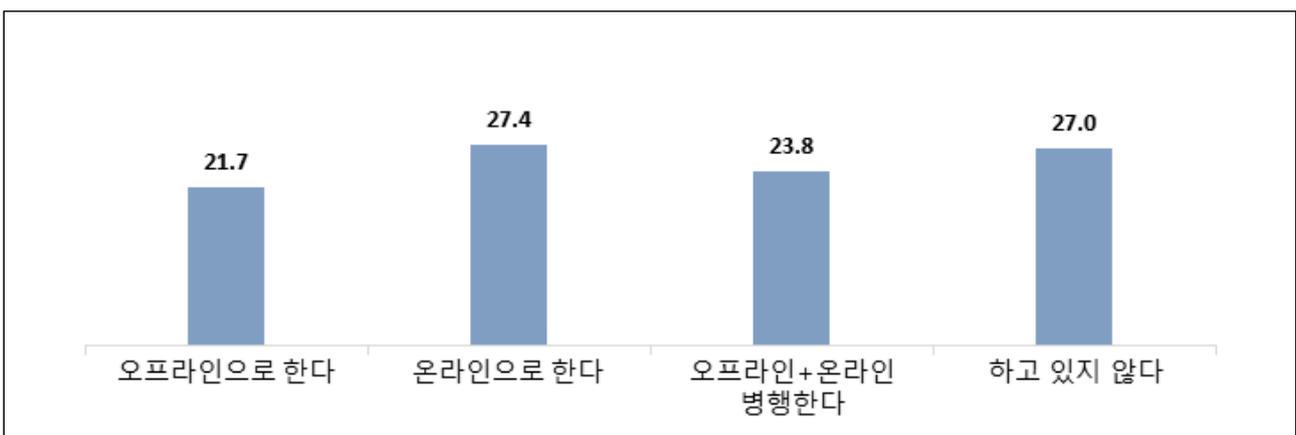


앞에서 지난주 주일예배를 출석교회 현장/온라인예배로 드린 응답자의 주일예배 만족도(약간만족+매우만족)는 84.0%였다. 출석교회 현장/온라인예배 참석자 중에서 어른 예배 참석자 만족도는 80.1%, 학생예배 참석자 만족도는 86.6로 학생예배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9년 조사에서는 어른예배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는데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나 두 가지로 추정된다. 한 가지는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예배를 더 잘 준비해서일 수도 있고 다른 한 가지는 학생예배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을 해서 상대적으로 학생예배가 잘 운영되는 교회들에서 학생예배에 참여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학생예배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는 ‘설교가 지루하다’, ‘온라인 시스템이 마음에 안든다’ 등이 꼽혔는데, 사례 수가 적으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림19] 현재 공과공부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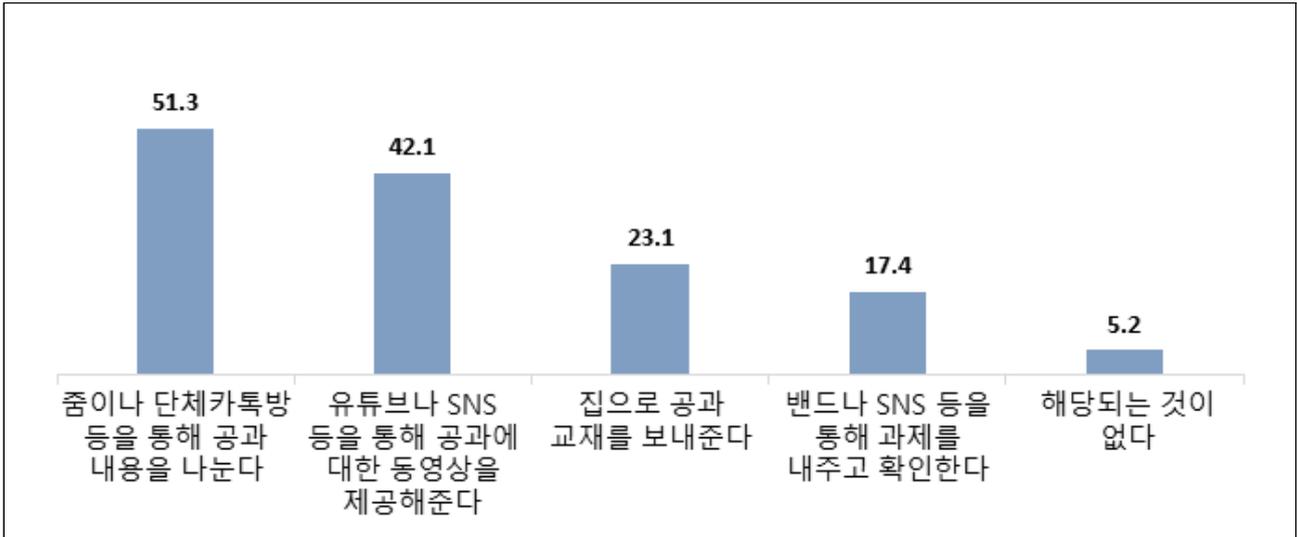
(Base=현재 주로 학생 예배 드리는 자, N=315, %)



현재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을 포함한 공과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물었는데, ‘온라인’이 27.4%, ‘오프라인’이 21.7%였으며, ‘온라인+오프라인 병행’은 23.8%로 나타났다. ‘하고있지 않다’는 비율은 27.0%로 나타나 코로나 상황에서 비교적 공과공부를 잘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인 수 100명 미만의 교회에서는 ‘오프라인’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1000명 이상 교회에서는 ‘오프라인+온라인 병행’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하고있지 않다’는 응답은 교인 수 500명 이하의 중소형교회와 중고등부 학생 10명 이하의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 교회가 작거나 학생수가 적은 경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20] 교회에서 공과공부 위해 제공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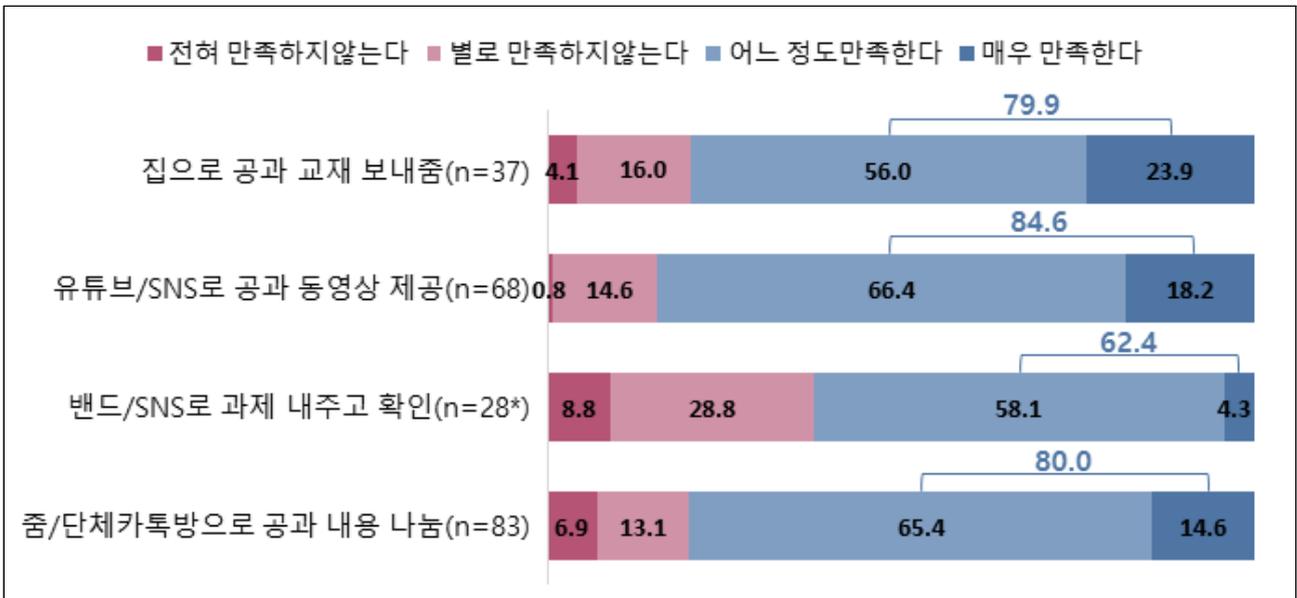
(Base=온라인 통해 공과공부 하는 자, N=161, %/중복)



온라인을 통해(온라인,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공과공부를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회에서 공과공부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것들을 물은 결과, 절반 이상의 교회가 ‘줌이나 단체카톡방 등을 통해 공과 내용을 나누고 있었다.(51.3%)’ ‘유튜브나 SNS를 통해 공과 관련 동영상 제공’은 42.1%, ‘집으로 공과 교재를 보내줌’은 23.1%, ‘밴드나 SNS 등을 통해 과제를 내주고 확인함’은 17.4%였으며, ‘해당되는 것이 없다’는 응답률은 5.2%로, 온라인 공과공부를 하는 교회들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공과공부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줌이나 단체카톡방을 통해 공과 내용을 나눈다’는 응답률은 교인 수 1000명 이상, 중고등부 수 100명 이상의 대형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다.

[그림21] 교회에서 공과공부 위해 지원하는 항목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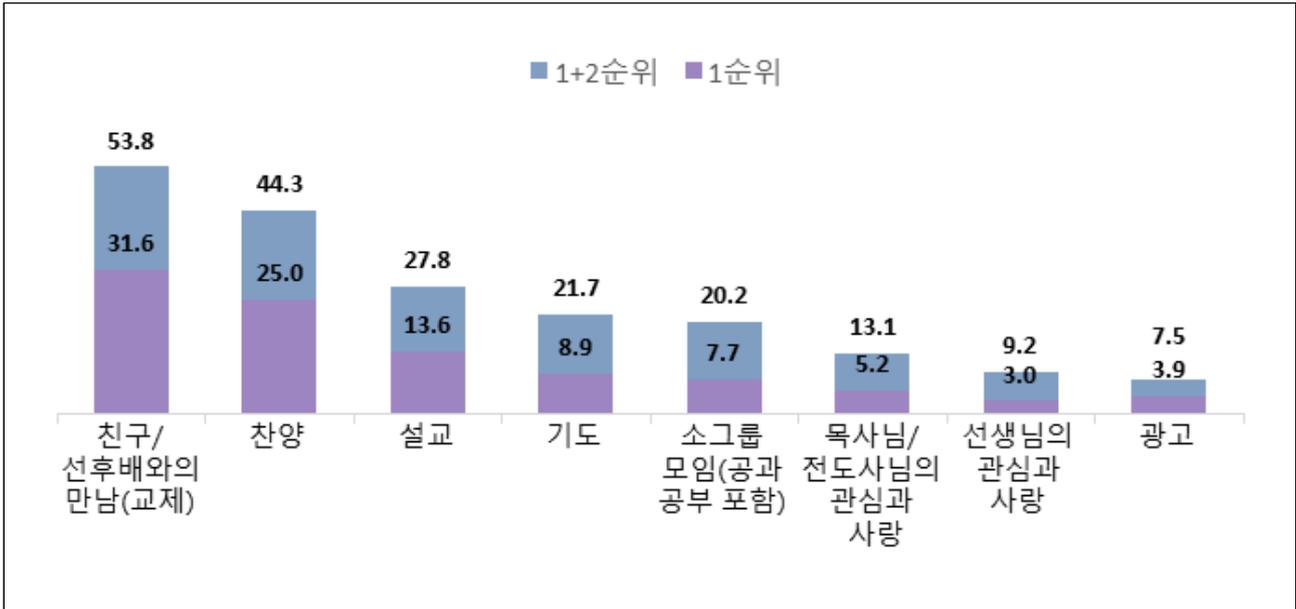
(Base=각 항목별 제공받은 자, %)



교회에서 공과공부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각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공과 동영상 제공’이 84.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줌/단체카톡 등으로 공과 내용 나눔’ 80.0%, ‘집으로 공과 교재 보내줌’ 79.9%, ‘과제 내주고 확인’ 62.4%(사례수 적음) 등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공과공부를 위한 자료 제공이나 나눔 등에 대한 만족도는 양호한 편으로, 교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공과에 대한 자료 제공과 나눔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22] 중고등부 예배 및 활동에 기대하는 것

(Base=현재 주로 학생 예배 드리는 자, N=3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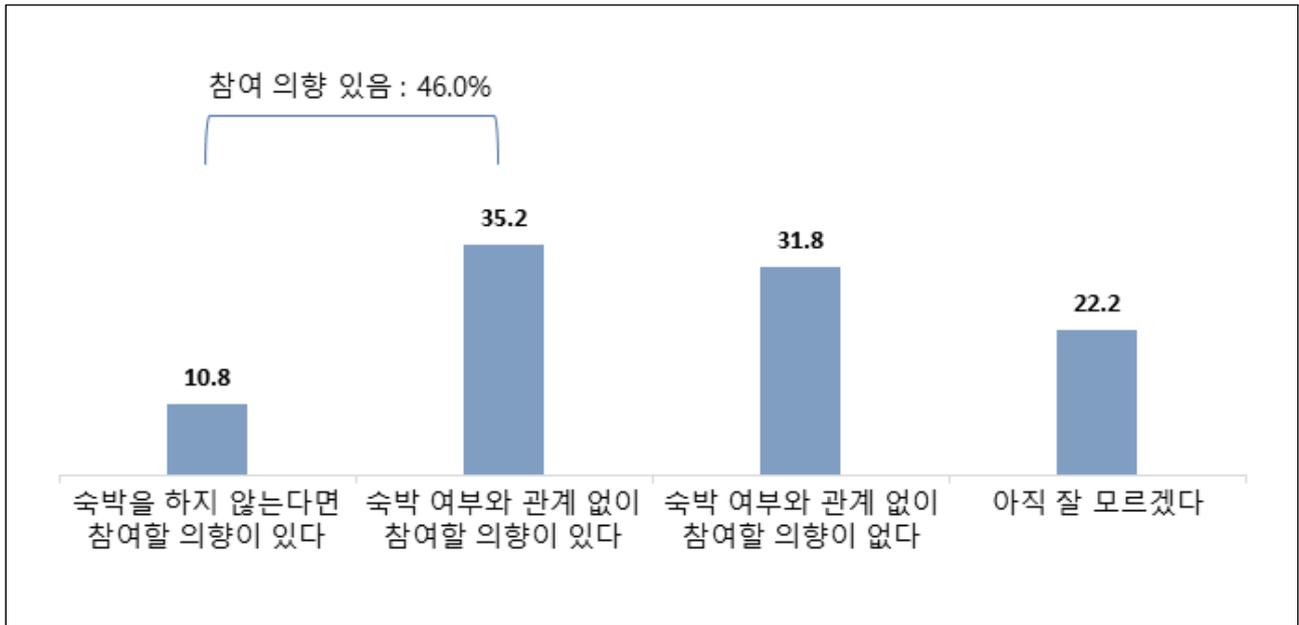
[표8] 중고등부 예배 및 활동에 기대하는 것(1+2순위)

(Base=현재 주로 학생 예배 드리는 자, N=315, %)

구분	사례수 (명)	친구/선후배와의 만남(교제)	찬양	설교	기도	소그룹 모임(공과 공부 포함)	목사님/전도사님의 관심과 사랑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	광고	기타
전체	(315)	53.8	44.3	27.8	21.7	20.2	13.1	9.2	7.5	2.4
성별	남학생 (171)	50.1	36.0	28.5	24.8	19.0	18.3	10.1	9.6	3.4
	여학생 (144)	58.1	54.1	26.9	18.0	21.6	7.0	8.2	5.0	1.3
학교급	중학생 (160)	52.2	49.9	27.3	23.7	18.1	11.0	6.8	8.1	3.0
	고등학생 (155)	55.4	38.5	28.2	19.7	22.4	15.3	11.7	7.0	1.9
중고등부 규모	10명 미만 (35)	62.4	36.4	34.3	25.4	14.8	4.5	11.7	5.4	5.3
	10~49명 (132)	51.3	45.7	25.5	23.3	23.9	13.3	6.6	6.2	4.2
	50~99명 (75)	52.9	49.1	22.5	20.6	16.7	16.5	13.6	8.2	0.0
	100명 이상 (74)	55.1	40.7	34.0	18.1	19.6	13.4	8.3	10.3	0.5
신앙의 단계	1단계 (105)	61.7	37.5	23.9	20.3	23.1	6.9	11.8	10.1	4.6
	2단계 (113)	57.0	40.8	25.5	16.2	24.5	16.1	9.5	8.2	2.0
	3단계 (66)	47.1	58.2	34.4	25.3	13.1	12.3	6.5	2.4	0.8
	4단계 (31)	29.8	49.9	34.5	38.5	9.8	24.9	5.2	7.5	0.0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이 예배 및 활동에 기대하는 것으로는 1순위와 1+2순위 모두 신앙 활동보다도 ‘친구/선후배와의 만남(교제)’가 가장 높게 나타나, 또래 집단을 중시하는 연령대의 특성이 드러난다. 그 다음으로는 찬양, 설교, 기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2순위 응답 기준, 남학생은 기도와 목사님/전도사님의 관심과 사랑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꼽았고, 여학생은 찬양을 많이 꼽은 특징을 보인다. 또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찬양을 응답한 비율이 더 높다. 중고등부 규모가 10명 미만으로 작은 곳에서 교제와 기도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신앙 단계별로는 1단계에서 교제와 목사님/전도사님의 관심과 사랑 응답률이 높으며, 4단계에서는 찬양과 기도 응답률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신앙 단계가 낮은 청소년들에게는 친구나 교역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신앙 단계가 높은 청소년들에게는 신앙 활동 자체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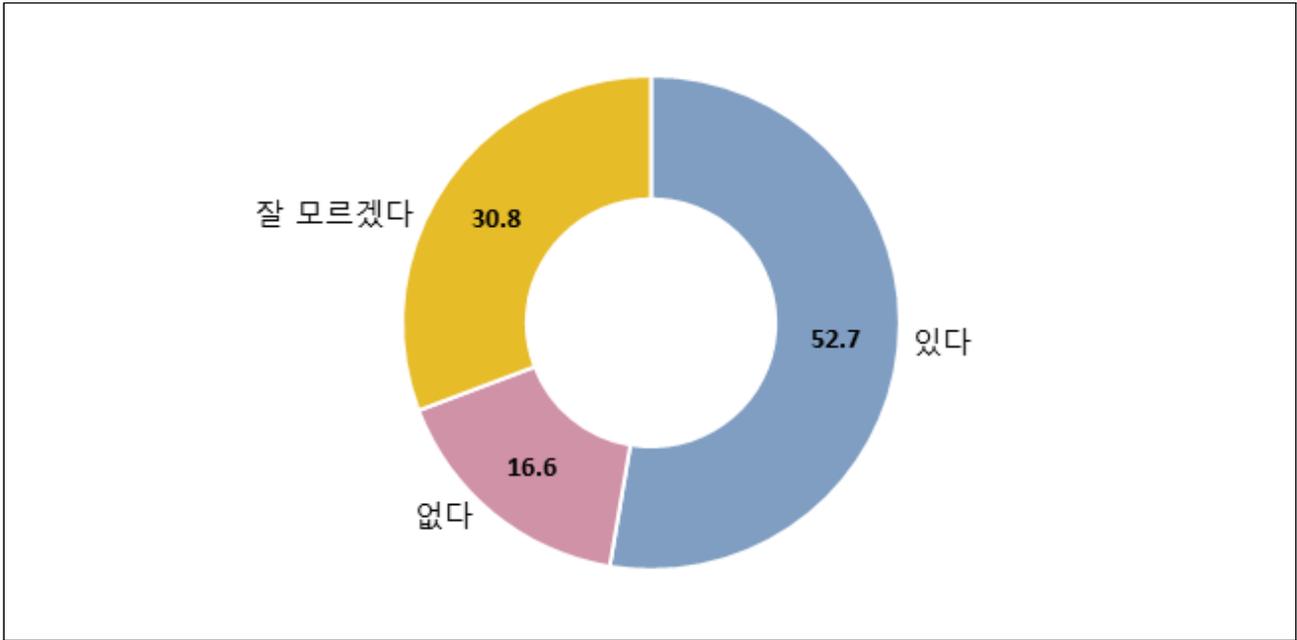


코로나19 상황이 현재와 비슷하다는 가정 하에 올 여름 수련회 참여 의향을 물었는데, ‘숙박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의향 있다’가 35.2%, ‘숙박을 하지 않는다면 참여 의향이 있다’가 10.8%로, 참여 의향을 비친 중고생이 46.0%였고, ‘숙박과 관계없이 참여 의향이 없다’는 31.8%로 3명 중 1명 꼴로 불참 의향을 보였다. ‘숙박 관계없이 참여 의향 없음’은 여학생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신앙 단계로는 1단계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다. ‘숙박과 관계 없이 참여 의향 있음’은 신앙 단계 3, 4단계에서 높게 나타난다.

청소년기의 수련회 경험이 평생의 신앙 경험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수련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되 방역을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참여를 위해서 숙박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효과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림24] 고교 졸업 후 청년부 활동 의향

(Base=고등학생, N=252, %)



[표9] 고교 졸업 후 청년부 활동 의향

(Base=고등학생, N=25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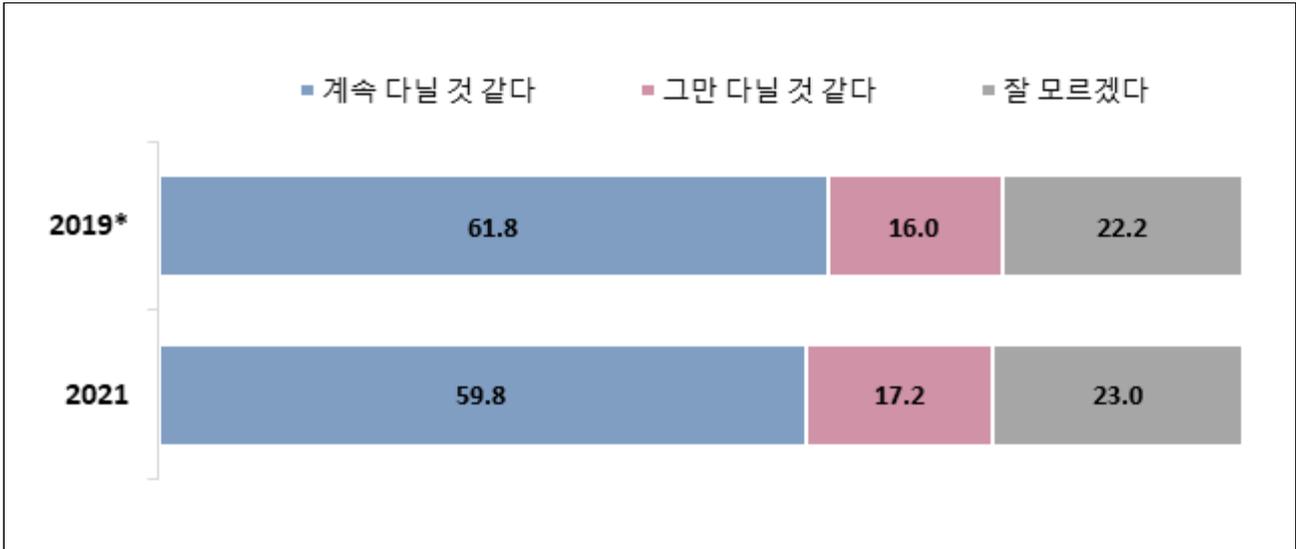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52)	52.7	16.6	30.8	100.0
부모 종교	모두 개신교	(165) 55.1	16.8	28.0	100.0
	한분만 개신교	(54) 50.4	16.0	33.6	100.0
	모두 비개신교	(32) 43.8	16.2	40.0	100.0
아버지 직분	종직자	(65) 60.0	18.2	21.8	100.0
	서리집사/직분없음	(89) 53.4	15.2	31.4	100.0
	가나안성도	(16) 43.7	23.0	33.3	100.0
	비기독교인	(82) 47.7	15.5	36.7	100.0
어머니 직분	종직자(사모 포함)	(61) 56.7	19.4	23.9	100.0
	서리집사/직분없음	(148) 53.5	14.7	31.9	100.0
	가나안성도	(5) 40.0	31.7	28.3	100.0
	비기독교인	(37) 44.8	17.3	37.9	100.0
중고등부 유무	있음	(221) 53.8	15.3	30.9	100.0
	없음	(31) 44.5	25.7	29.8	100.0
지난 주일예배 유형	온라인 예배	(71) 49.2	17.9	33.0	100.0
	현장 예배	(112) 64.2	13.0	22.8	100.0
	방송/가정 예배	(20) 41.9	15.8	42.3	100.0
	드리지 못함	(48) 35.5	23.3	41.1	100.0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청년부에 올라가 활동할 의향을 물었더니 절반 정도(52.7%)가 '있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해, 현 크리스천 고등학생의 청년부 활동 의향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부 활동 의향이 '있다'는 응답률은 부모가 모두 개신교이고 부모 직분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며, 중고등부가 없는 곳보다 있는 곳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즉, 부서 소속감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학생에게서 앞으로도 부서 활동률이 더 높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고등부나 청년부가 활성화 되어 있는 교회의 경우에도 실제로 고등부 학생들이 청년부로 올라가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고등학생들의 신앙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난주 주일예배 유형별로는 '현장예배'를 드린 집단에서 '있다'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 경우들조차 응답률이 60% 정도거나 그보다 낮다는 점에서 청년부 활동 의향이 높은 편은 아니었다.

[그림25] 어른이 된 후 교회 다닐 의향

(Base=전체, N=500, %)



[표10] 어른이 된 후 교회 다닐 의향

(Base=전체, N=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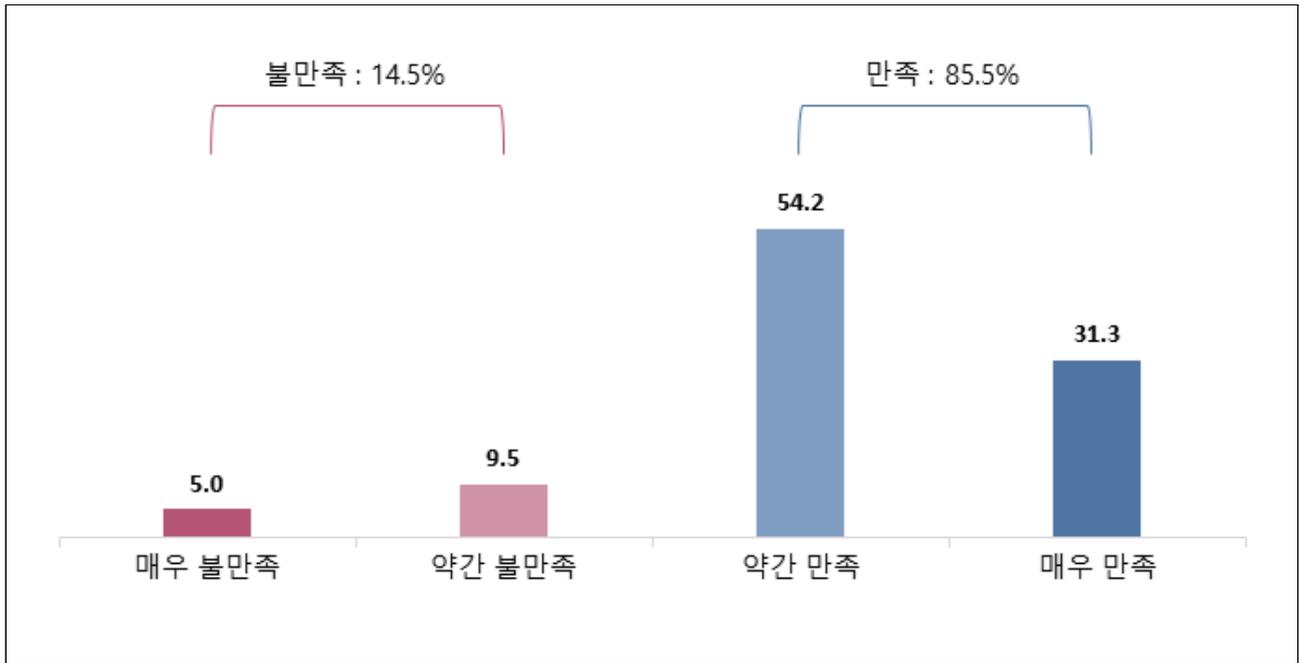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계속 다닐 것 같다	그만 다닐 것 같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500)	59.8	17.2	23.0	100.0
학교급	중학생 (247)	52.9	22.9	24.1	100.0
	고등학생 (253)	66.5	11.6	21.9	100.0
부모 종교	모두 개신교 (331)	64.2	15.6	20.2	100.0
	한분만 개신교 (107)	59.9	17.7	22.4	100.0
	모두 비개신교 (62)	36.0	25.2	38.8	100.0
아버지 직분	종직자 (136)	69.6	14.1	16.3	100.0
	서리집사/직분없음 (179)	59.6	17.0	23.4	100.0
	가나안성도 (21)	68.7	12.0	19.3	100.0
	비기독교인 (164)	50.7	20.8	28.6	100.0
어머니 직분	종직자(사모 포함) (123)	65.2	20.3	14.5	100.0
	서리집사/직분없음 (301)	63.2	14.6	22.2	100.0
	가나안성도 (10)	31.7	12.8	55.5	100.0
	비기독교인 (67)	38.3	24.0	37.7	100.0
중고등부 유무	있음 (431)	61.2	16.2	22.5	100.0
	없음 (69)	50.7	23.4	25.9	100.0

어른이 된 후에도 교회에 계속 다닐 것 같은지 묻은 결과, 5명 중 3명(59.8%)은 ‘계속 다닐 것 같다’고 응답했으며, 17.2%는 ‘그만 다닐 것 같다’, 23.0%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어른’이라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가치 판단을 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시기를 의미한다는 의미에서, 크리스천 중고생이 아무런 외부요인 영향 없이 자신의 의지만으로 교회 출석을 택하게 된다면 5명 중 2명은 이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른이 된 후 ‘계속 다닐 것 같다’는 비율은 고등학생에서, ‘그만 다닐 것 같다’는 비율은 중학생에서 더 높았다. 또한 부모 모두 개신교이고 직분이 높은 학생에서 ‘계속 다닐 것 같다’ 응답률이 높았고, 부모가 모두 비개신교인 학생은 ‘그만다닐 것 같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중고등부가 있는 교회에서는 ‘계속 다닐 것 같다’가 높고, 없는 교회에서는 ‘그만 다닐 것 같다’가 높아 교회 내 부서 또는 소그룹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다. 19년 조사 결과와도 거의 유사한 응답 비율을 보였다.

[그림26] 중고등부 전반적 만족도

(Base=현재 주로 학생 예배 드리는 자, N=3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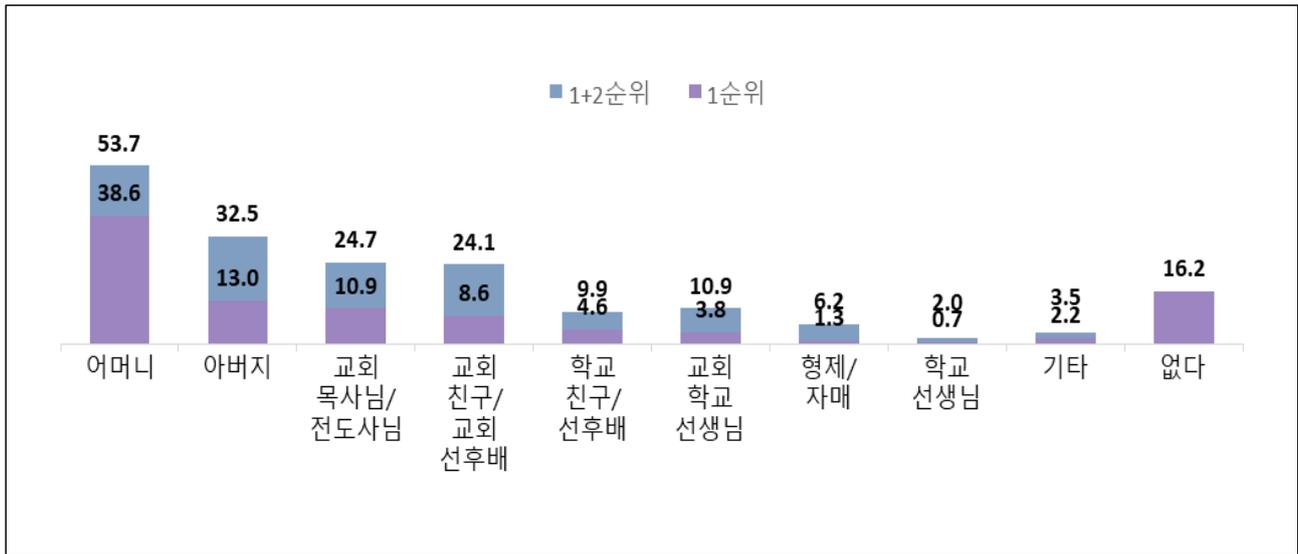


중고등부의 전반적인 것을 종합했을 때 만족도는 85.5%로, 중고등부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고등부 규모가 50~99명인 곳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지난주 현장예배를 드린 집단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교회 예배나 중고등부 활동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도가 높게 나왔는데 교회 청소년들에 대한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이것이 실제 생각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의 특성상 정답을 말하려고 하거나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모범생 콤플렉스'가 작용한 것인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코로나19와 신앙생활

[그림27] 코로나19 기간 중 신앙생활 영향자

(Base=전체, N=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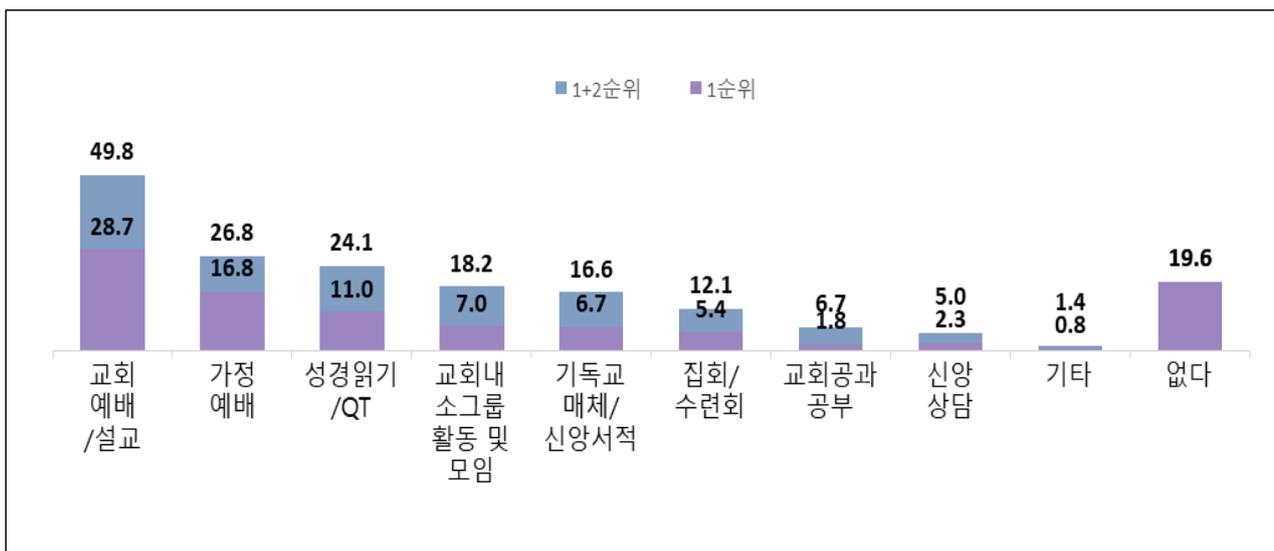


코로나19 기간 중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으로는, 1순위와 1+2순위 모두 ‘어머니’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 신앙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남학생은 1순위로 ‘아버지’를 상대적으로 높게 꼽았고, 여학생은 ‘어머니’를 높게 꼽았다. 또한, 중학생은 1순위로 ‘어머니’를 꼽은 비율이 고등학생보다 높고, 고등학생은 ‘교회 친구/선후배’를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1+2순위 기준으로는, 중고등부가 있는 집단에서는 ‘교회 친구/선후배’ 비율이, 중고등부가 없는 집단에서는 ‘학교 친구/선후배’ 비율이 각각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고, 중고등부 규모가 작은 곳에서 ‘교회 목사님/전도사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고등부 규모가 큰 곳에서 ‘교회학교 선생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9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코로나 이후 교회 목사님/전도사님 보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28] 코로나19 발생 후 신앙성장에 도움받는 것

(Base=전체, N=500, %)



코로나19 발생 후 지난 1년간 신앙 성장을 위해 가장 크게 도움 받은 것으로는 ‘교회 예배/설교’가 1순위와 1+2순위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가정 예배’가 꼽혔다. 코로나로 인해 가정 예

배가 상대적으로 활발해짐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가정 예배' 다음으로는 '성경읽기/QT', '교회 내 소그룹 활동 및 모임', '기독교 매체/신앙 서적' 등의 순으로 응답됐다.

1+2순위 응답 기준으로, '교회 예배/설교' 응답률은 중고등부가 있는 곳과, 지난 주 온라인예배와 현장 예배를 드린 집단에서 높고, '가정예배' 응답률은 중학생과 부모 한 분 이상 개신교인 집단, 그리고 부모의 직분이 중직자인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성경읽기/QT'는 중고등부가 없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고, '기독교 매체/신앙 서적'은 지난주 방송/가정 예배를 드린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은 보였다. 19년 조사에서는 '집회/수련회' 응답률이 높았고 '가정예배'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29] 코로나19 이후 신앙생활 양적 변화

(Base=전체, N=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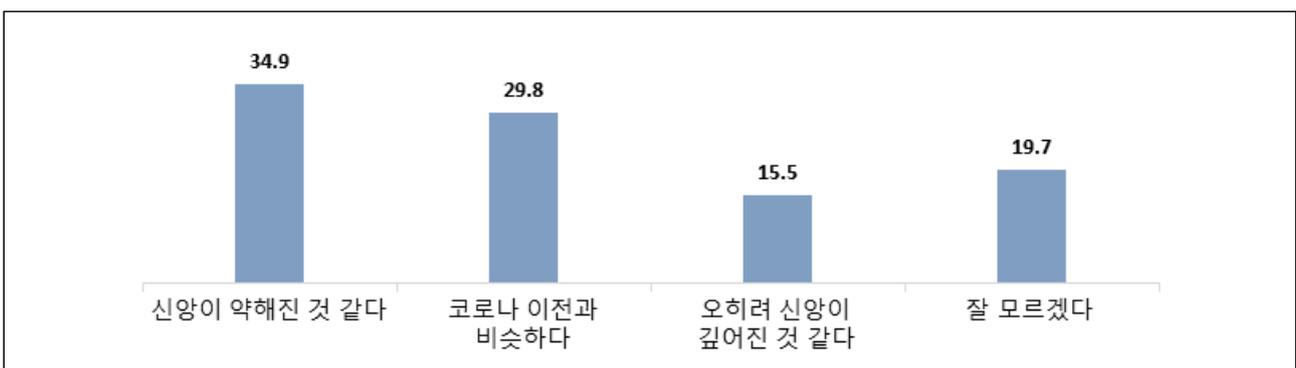


코로나19 발생 후 신앙생활의 양적인 변화를 측정한 결과,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거나 공부하는 시간, 가정예배 드리는 빈도는 코로나 이전보다 ‘늘어났다’는 비율보다 ‘줄었다’는 비율이 더 높고, ‘기독교 관련 온라인 콘텐츠 이용 시간’은 유일하게 코로나 이전보다 ‘늘어났다’는 비율이 더 높았다. 전체적인 신앙생활은 코로나 전보다 ‘줄었다’ 38.5%, ‘늘어났다’ 11.5%로, 양적 신앙생활은 준 비율이 훨씬 많았다.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거나 공부하는 시간, 기독교 관련 온라인 콘텐츠 이용 시간이 ‘줄었다’는 비율은 지난주 방송/가정예배 드린 경우와 예배 드리지 못한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가정예배 드리는 빈도가 ‘줄었다’는 비율은 지난주 가정예배 드린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설문에서 묻은 가정예배는 주일예배를 대신해 드리는 예배를 제외하고 물었기 때문에, 주일예배를 가정예배로 드린 응답자들도 그 외의 가정예배 빈도는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신앙생활이 ‘줄었다’는 응답률은 지난주 예배 드리지 못한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독 청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청소년이 청년보다는 양적인 신앙생활 감소는 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30] 코로나19 이후 신앙수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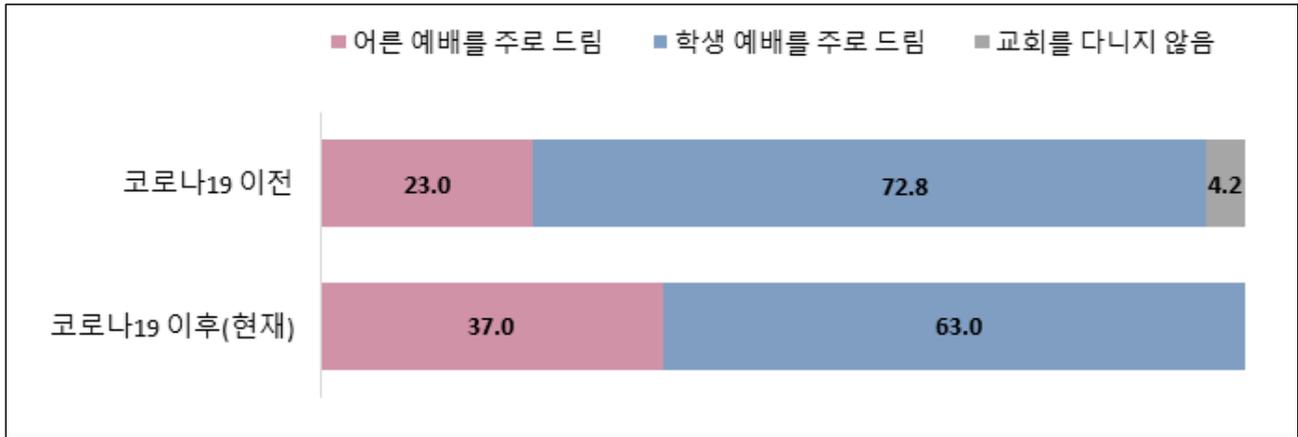
(Base=전체, N=500, %)



코로나19 이후 신앙의 질적 변화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는 비율이 34.9%로 가장 높았으며, ‘코로나 이전과 비슷하다’가 29.8%, ‘오히려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는 15.5%로 나타났다. ‘신앙이 깊어졌다’가 15.5%라는 것은, 크리스천 중고생 5명 중 4명 이상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신앙의 질적 향상을 겪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는 응답률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독 청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청소년에서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온 점이 특징적이다. 청년들에 비해서 청소년들의 신앙생활이 더 많이 관리받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림31] 코로나19 전/후 예배 구분(어른 예배 vs 학생 예배)

(Base=전체, N=500, %)



[표11] 코로나19 전/후 예배 구분(어른 예배 vs 학생 예배) - 코로나19 전

(Base=전체, N=500, %)

구분	사례수 (명)	어른 예배를 주로 드렸다	학생 예배를 주로 드렸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	계
전체	(500)	23.0	72.8	4.2	100.0
성별	남학생	(258) 29.1	66.9	4.0	100.0
	여학생	(242) 16.6	79.1	4.3	100.0
학교급	중학생	(247) 18.5	75.2	6.3	100.0
	고등학생	(253) 27.4	70.4	2.1	100.0
중고등부유무	있음	(431) 12.8	84.5	2.6	100.0
	없음	(69) 86.1	0.0	13.9	100.0

[표12] 코로나19 전/후 예배 구분(어른 예배 vs 학생 예배) - 코로나19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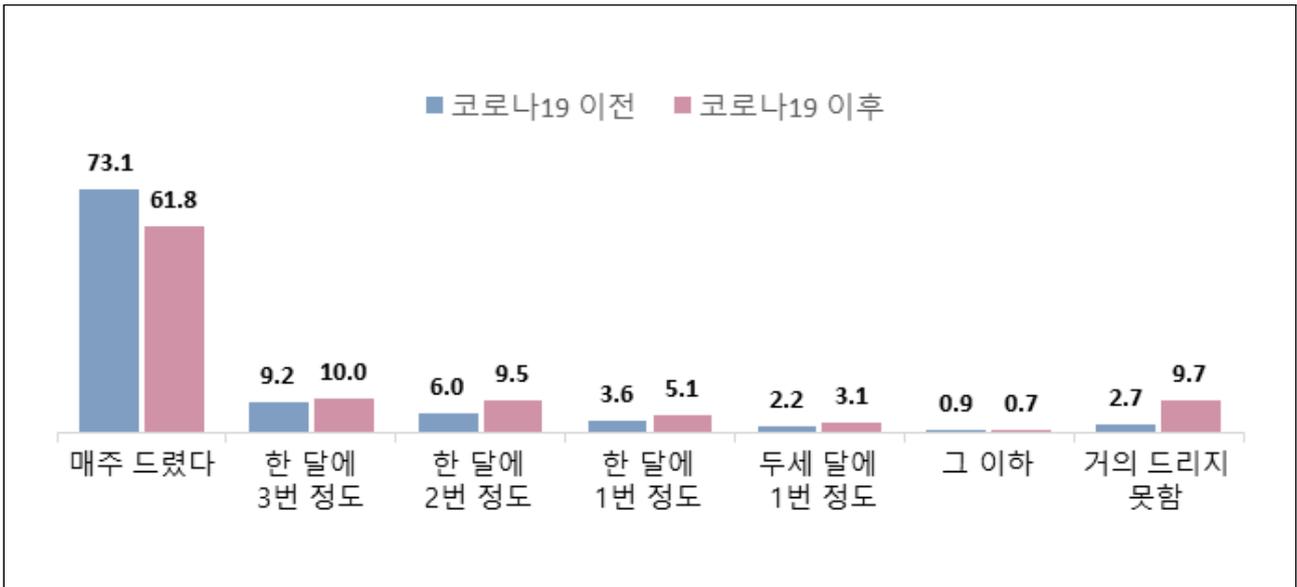
(Base=전체, N=500, %)

구분	사례수 (명)	어른 예배를 주로 드린다	학생 예배를 주로 드린다	계
전체	(500)	37.0	63.0	100.0
성별	남학생	(258) 33.8	66.2	100.0
	여학생	(242) 40.4	59.6	100.0
학교급	중학생	(247) 35.1	64.9	100.0
	고등학생	(253) 38.8	61.2	100.0
중고등부유무	있음	(431) 26.8	73.2	100.0
	없음	(69) 100.0	0.0	100.0

코로나19 전후 참석 예배를 보면, 코로나19 이전에는 크리스천 중고생 4명 중 3명 가량은 학생예배를 드렸으나, 현재는 그 비율이 5명 중 3명 꼴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예배의 통폐합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전에 주로 ‘어른예배’를 드렸다는 비율은 남학생과 고등학생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학생예배’를 드렸다는 비율은 여학생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다. 중고등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예배를 드리는 비율은 현재 26.8%로, 코로나19 이전(12.8%)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어른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이 늘어남을 인지하고 교회에서 이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32] 코로나19 전/후 주일예배 빈도

(Base=전체, N=500, %)



[표13] 코로나19 전/후 주일예배 빈도 - 코로나19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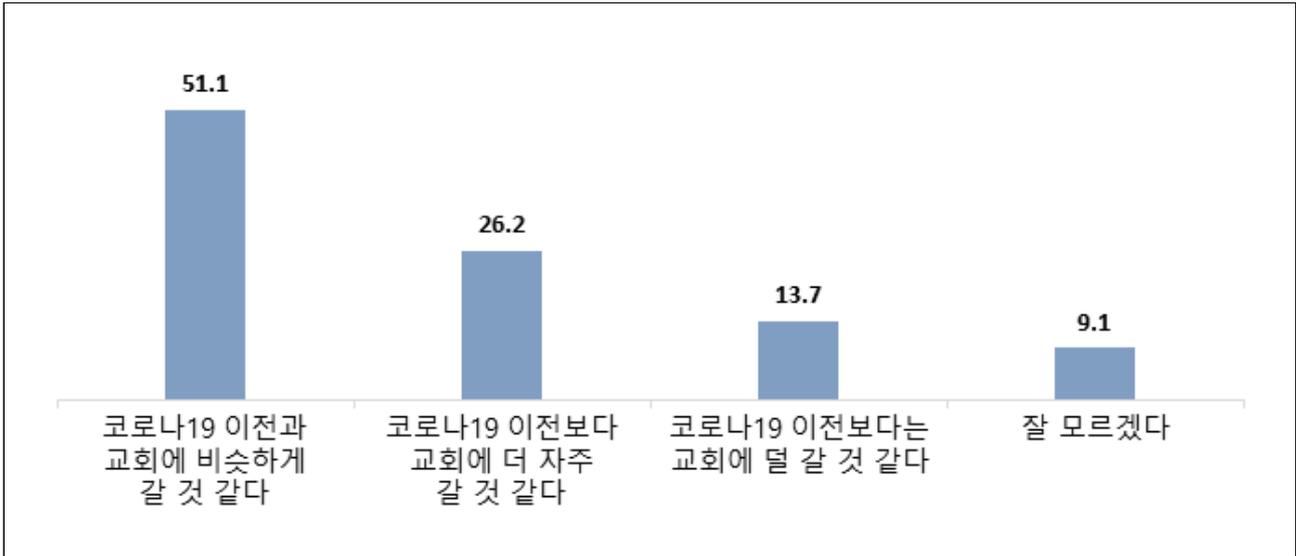
(Base=전체, N=500, %)

구 분	사례수 (명)	매주 드렸다	한 달에 3번 정도 드렸다	한 달에 2번 정도 드렸다	한 달에 1번 정도 드렸다	두세 달에 1번 정도 드렸다	그 이하	거의 드리지 못함	계	
전 체	(500)	61.8	10.0	9.5	5.1	3.1	0.7	9.7	100.0	
부모 종교	모두 개신교	(331)	69.7	8.4	7.9	4.5	2.2	0.2	7.0	100.0
	한분만 개신교	(107)	52.9	13.8	14.2	6.9	2.9	2.7	6.6	100.0
	모두 비개신교	(62)	34.9	12.6	9.6	5.6	7.8	0.0	29.5	100.0

코로나19 전후 예배 참석은, 주일예배를 ‘매주 드렸다’는 비율은 코로나19 이전 73.1%에서 코로나19 이후 61.8%로 10%p 이상 감소했으며, ‘거의 드리지 못한다’는 비율은 코로나19 이전 2.7%에서 코로나19 이후 9.7%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예배를 드리는 빈도가 줄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경우 예배 참석이 신앙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이 예배에 잘 참석하도록 독려하고 세심하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주일예배를 ‘거의 드리지 못한다’는 비율은 부모가 모두 비개신교인 학생에서 무려 29.5%로 나타나 이 역시 부모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3] 코로나19 종식 후 주일예배를 위한 교회출석 예상

(Base=전체, N=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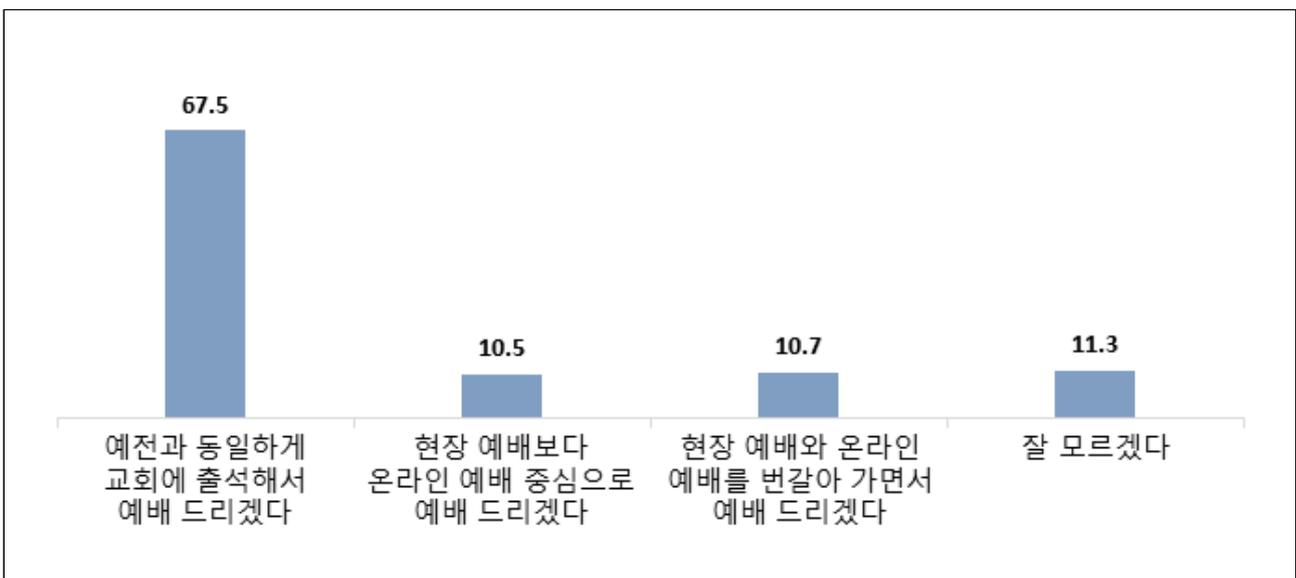


코로나19 종식 후에 주일예배를 드리기 위한 교회 출석에 대하여, 절반의 응답자가(51.1%)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하게 교회에 갈 것 같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자주 갈 것 같다’는 26.2%, ‘코로나19 이전보다 덜 갈 것 같다’는 13.7%로, 크리스천 중고생이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출석(현장 출석)을 이탈할 비율은 약 20% 내외로 보여진다.(덜 갈 것 같다+잘 모르겠다)

특징적인 점은, 부모가 모두 비개신교인 학생에서 ‘코로나19 이전보다 교회에 더 자주 갈 것 같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다는 것인데, 이는 부모의 신앙과 상관없이 본인의 의지로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경우 교회출석에 대한 의지가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부모가 모두 비개신교인 경우 지난주 주일예배를 ‘드리지 못한’ 비율이 가장 높으며, 코로나19 이후 주일예배를 ‘거의 드리지 못한다’는 비율도 가장 높다.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현실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인데, 이들이 교회에서 소외되고 이탈되지 않도록 도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34] 코로나19 종식 후 주일예배 형태 예상

(Base=전체, N=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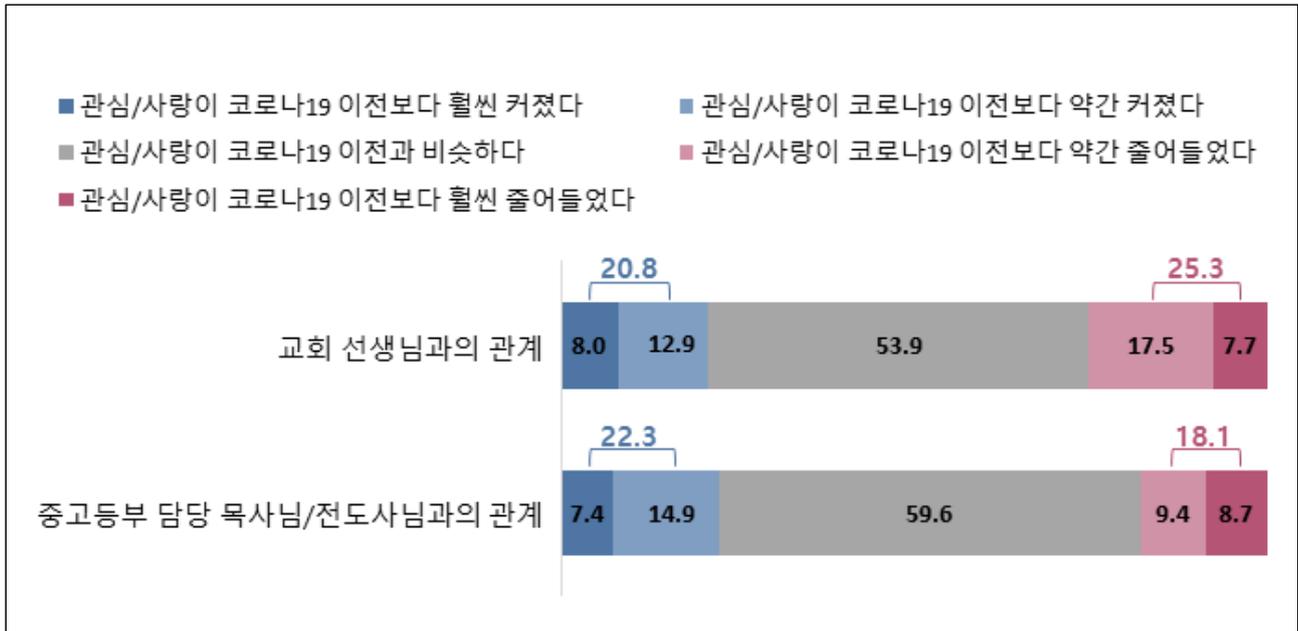


코로나19 종식 후 주일 예배 유형으로는 ‘예전과 동일하게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 드리겠다’가 67.5%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예배 중심으로 드리겠다’와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를 번갈아가며 드리겠다’가 각각

10.5%, 10.7%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장 예배를 드리겠다는 응답이 3분의 2정도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현장예배에서 이탈할 우려도 보이고 있으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는 응답이 20%정도 나온 것을 감안하여 온라인 예배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드리겠다’는 비율은 지난주 주일예배를 현장예배 또는 온라인예배로 드린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는데, 특히 지난주 온라인 예배를 드린 응답자의 70%도 코로나 종식 후에는 현장예배를 드리겠다고 응답했다.

[그림35] 코로나19 전/후 교회 내 관계 변화 정도

(Base=중고등부 있음, N=291, %)



코로나19 전후로 학생들이 느끼는 교회 선생님 및 중고등부 담당 교역자와의 관계 변화에 대해, 교회 선생님과의 관계,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전도사님과의 관계 모두 ‘비슷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교회 선생님은 코로나 이전보다 관심과 사랑이 ‘줄어들었다’는 비율이 ‘커졌다’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고, 중고등부 담당 교역자는 ‘커졌다’는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두 관계 모두, 코로나 이전보다 관심과 사랑이 ‘줄어들었다’는 비율이 교회 규모와 중고등부 규모가 큰 곳에서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Ⅲ. 결론 및 제언

이번 기독 청소년 의식 조사는 기독 청소년에 대한 조사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차세대의 신앙생활과 그들의 의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여겨진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 그리고 교회도 모두 어려운 시기에 기독 청소년들의 신앙과 생활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들이 많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먼저 교인 수가 적고 중고등부 학생 수가 적은 소형교회에서 현장예배를 드렸다는 응답이 많았고 공과공부도 오프라인으로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이것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중소형교회에서는 공과공부를 하고있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서 작은 교회들이 청소년들의 신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디지털 매체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이번 조사에서 공과 동영상 제공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온 것을 감안하면 교단이나 규모가 큰 교회들이 동영상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교재를 개발하여 작은 교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형교회에서 확진자가 전염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소형교회의 경우 현장예배나 모임시에 방역에 더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크리스천 중고생의 60%는 모태신앙으로 조사됐으며, 중학교 이전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비율이 대부분(94.6%)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잘 정착하여 가정 안에서 기독교 신앙이 전수되고 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신자가 유입되지 않고 있어서 청소년과 청년 등 젊은 층에서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가족 종교화 경향이 심화됨으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의 확장성이 매우 부족하며 자칫 끼리끼리의 종교로 전락할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청소년들이 향후 청년부에서 활동할 의향이 낮은 편으로 조사되었다는 점도 매우 우려스럽다. 청년부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릴 수 있으나 신앙의 연계성과 공동체 형성이라는 면에서 유익이 있으므로 청소년들이 청년부에서의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른이 된 후에도 교회에 계속 다닐 것으로 본 청소년들이 59.8%에 불과했고, 17.2%는 그만 다닐 것 같다고 했으며 나머지 23.0%도 확신하지 못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교회 이탈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것은 기독 청년 조사에서도 절반 정도인 53.3%만 10년 후에도 기독교 신앙도 유지하고 교회도 잘 나갈 거 같다고 응답했고, 39.9%는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는 잘 안 나갈 거 같다고 응답한 것과 관련해서 보면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매우 어둡게 하고 있다. 성인 인구 기준으로 23%인 교회 이탈 성도 곧 가나안 성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결과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

크리스천 중고생들의 신앙생활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코로나19 기간 중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으로는 어머니가 가장 높았다. 그만큼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교육의 책임을 어머니에게만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일반적으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자녀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고 대화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 적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코로나 이후 교회 목사님/전도사님 보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는 점에서 아버지 역시 자녀의 신앙교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 수준이 높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아버지의 영향이 컸는데 경제 수준이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모님 두분 다 기독교인 경우는 경제 수준이 높은 경우에 가장 많았고, 부모님과의 관계는 경제 수준과 비례하였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비율도 마찬가지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19년도 조사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데, 가정의 경제 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이 많고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우 휴식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영업에 매달려야 하는 실정이므로 종교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경제 수준이 상층인 학생들과 기독교인 부모를 둔 학생이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로 볼 때 경제 수준이 낮고 그래서 부모 모두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경우에 자녀가 교회에 나오기도 쉽지 않고 삶의 만족도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곧 경제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이 신앙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에게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이들을 도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앙은 양과 질 면 모두에서 다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늘었고, 학생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늘었는데 조사 결과에서 청소년들의 신앙이 예배 참석, 특히 현장예배 참석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코로나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 더 관심을 갖고 독려해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현장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19년도에 비해 학생예배를 드린 비율이 10%p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앞으로 학생예배가 더 약화되는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응답도 적지 않게 나온 것을 감안하여 온라인 예배의 지속적인 운영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러 항목에서 부모가 모두 비개신교인 청소년들의 신앙생활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난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부모 모두 비개신교인인 경우에는 청년부에서 활동할 의향이나 교회에 계속 다닐 의향도 매우 낮게 나와서 기독교 가정이 아닌 학생들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비기독교 가정의 청소년들은 초등학교 이후에 나온 비율이 과반수를 차지하여 기독교 가정의 청소년들에 비해서 교회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고 자칫 기독교 가정의 청소년과 비기독교 가정의 청소년으로 부류가 나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지나친 가족 중심의 교회 생활을 지양하고 신앙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아울러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들의 경우에 불가피하게 청소년들이 어른 예배를 드리게 되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어른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청소년들이 어른들과 함께 세대통합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중고등부가 있는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아예 예배는 세대통합으로 하고 공과공부만 따로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어른들과 청소년들의 교회 활동이나 신앙생활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한 시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대통합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교회학교와 중고등부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 중 상당 부분을 교회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 안의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번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교회 안 청소년들은 상당수가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이고 절대 다수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에 나오고 있는 청소년들이다. 결과적으로 교회 밖 청소년들에게는 교회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청소년부는 더욱 축소되고 교인들의 자녀를 위한 부서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본래 주일학교가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을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산업혁명의 영국에서 서민 자제, 특히 노동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일요일에 학교를 개설하여 무상교육을 실시했던 자선교육 기관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회학교의 외연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지역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이들을 위한 사역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시설이나 재정의 상당 부분도 이들을 향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교회들이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 더욱 열린 공간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기독교 청소년들의 가정, 학교생활 및 유튜브 활용실태 분석

박상진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기독교교육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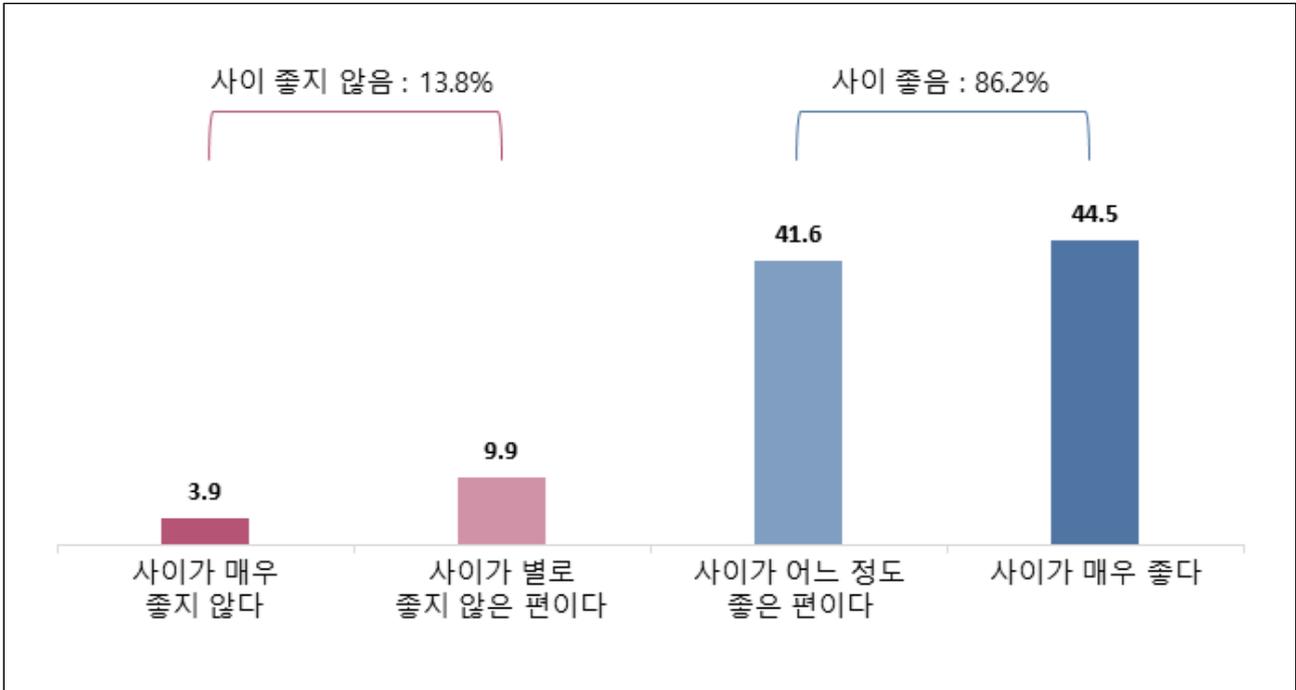
I. 크리스천 중고생의 가정생활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가정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원초적인 관계망이 가족이다.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었을 때에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도 못한 채 가정에서 부모가 학업지도를 해야 했다. 신앙교육에 있어서도 교회학교 중심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가정예배를 비롯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신앙교육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교회교육의 위기적 상황을 유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새로운 가정 중심의 신앙교육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신6:4-9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교육 디자인은 부모를 자녀교육의 주체로 세우셔서 부모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이런 가정 중심, 부모 중심의 성경적 신앙교육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의 가족관계나 가족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1. 가족과의 관계

[그림1] 부모 간 관계

(Base=전체, N=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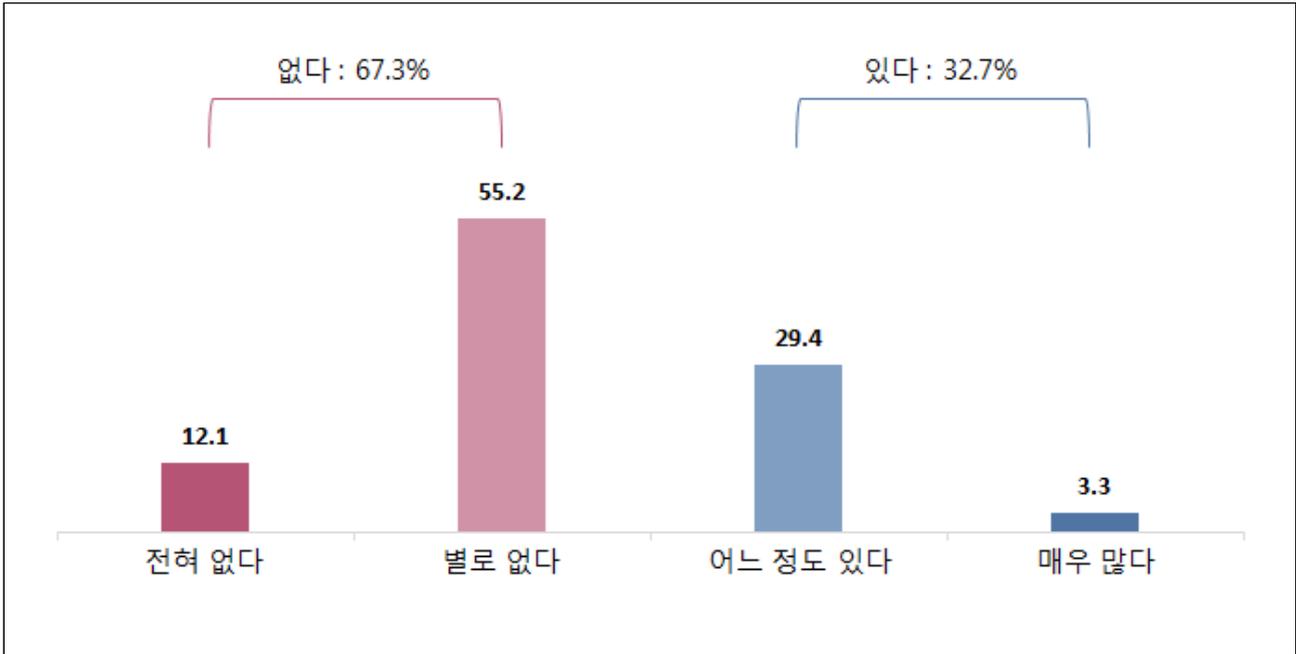


[표1] 부모 종교에 따른 부모 간 관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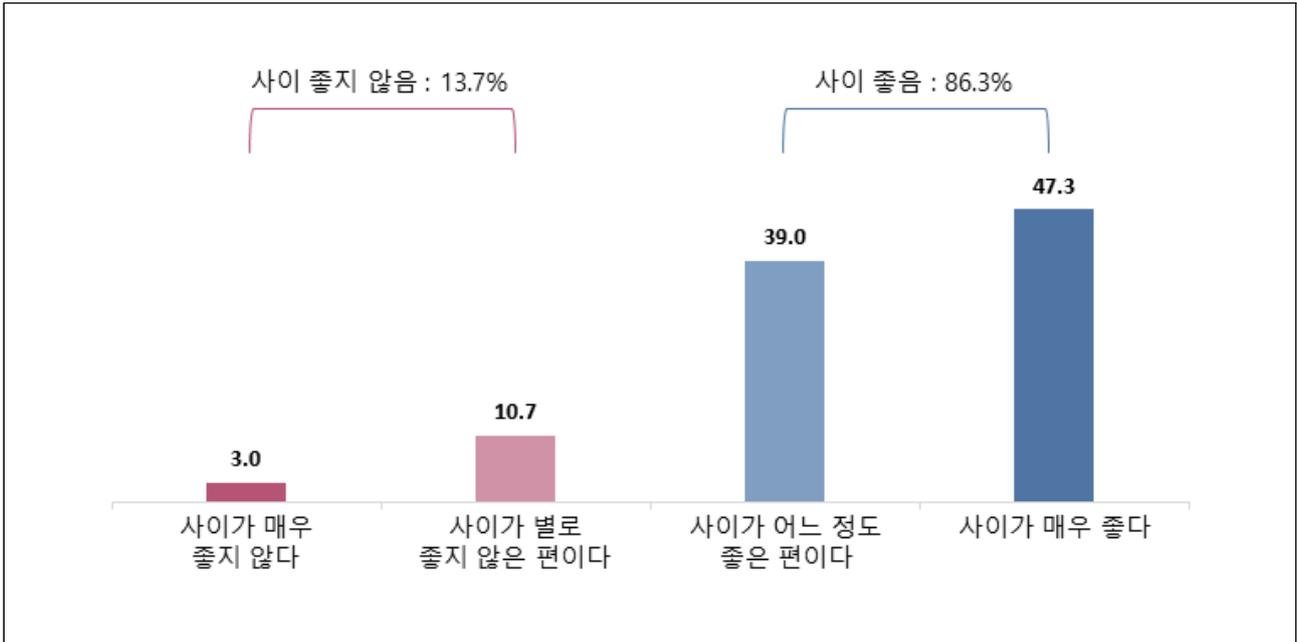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사이 매우 좋지 않다	사이 별로 좋지 않은 편	사이 어느정도 좋은 편	사이 매우 좋다	계	[사이 좋지 않음]	[사이 좋음]	
전체	(500)	3.9	9.9	41.6	44.5	100.0	13.8	86.2	
부모 종교	모두 개신교	(331)	4.0	7.7	40.4	47.9	100.0	11.7	88.3
	한분만 개신교	(107)	1.4	10.2	45.7	42.8	100.0	11.5	88.5
	모두 비개신교	(62)	7.9	21.2	41.2	29.7	100.0	29.1	70.9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어떤 가족관계를 맺고 있는가?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가족관계가 만족스러운지, 아니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지? 가족과의 관계는 가정의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영역이다. 여기에서는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 상호 간의 관계, 그리고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관계,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부모의 상호관계가 어떤지를 묻는 설문에서 ‘사이 매우 좋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4.5%, ‘사이 어느 정도 좋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1.6%로서 청소년의 86.2%가 사이가 좋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부모 모두가 개신교인이거나 적어도 부모 중 한 분이라도 개신교인인 경우에 ‘사이 좋다’는 응답이 각각 88.3%, 88.5%로서 부모가 모두 개신교인이 아닌 경우(70.9%)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신앙이 부부의 화목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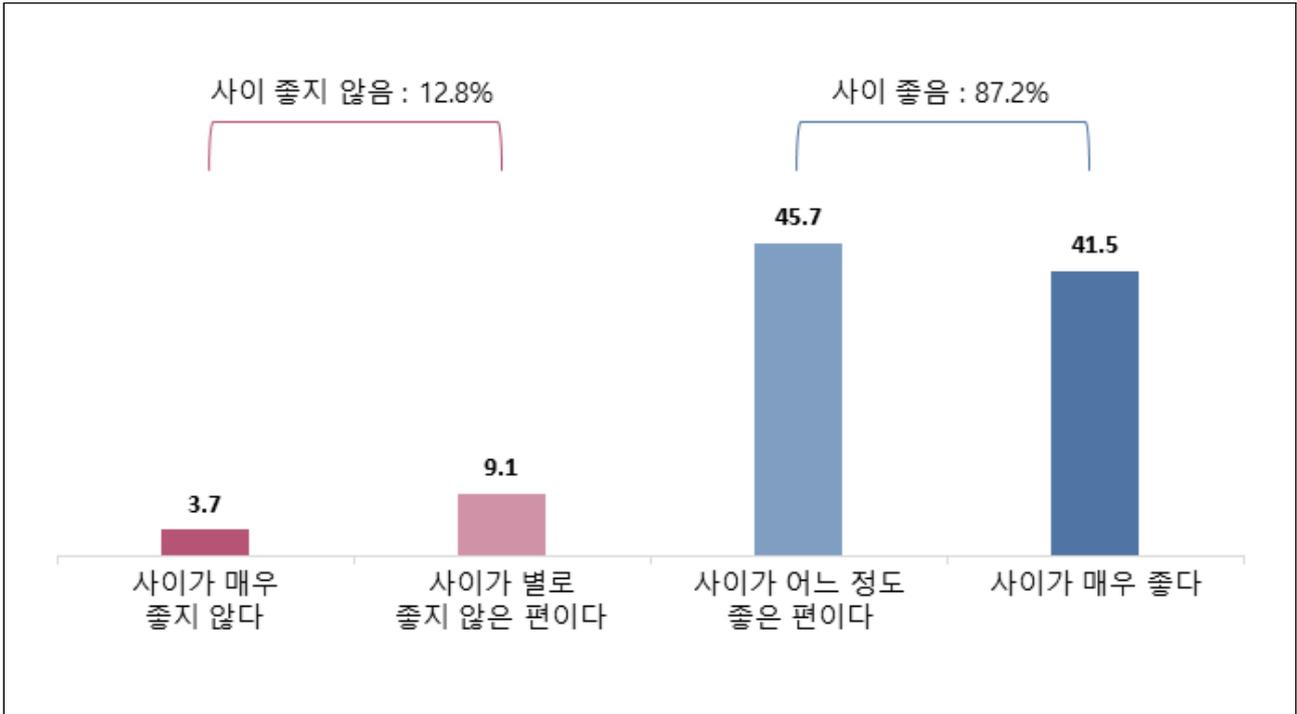
이러한 통계는 목회데이터연구소가 ‘가정의 힘’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통계 중 부모들에게 배우자의 갈등 정도를 묻은 설문과 비교하면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 결과에 의하면 부모들이 부부 갈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2.7%나 된 반면 청소년 자녀들이 부모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3.7%에 불과하다. 즉, 청소년 자녀들은 부모가 서로 사이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부모들은 실제적으로 갈등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그만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부모 간의 갈등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깊지 못함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표2] 부모 종교에 따른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구 분	사례수 (명)	사이 매우 좋지 않다	사이 별로 좋지 않은 편	사이 어느정도 좋은 편	사이 매우 좋다	계	[사이 좋지 않음]	[사이 좋음]	
전 체	(500)	3.0	10.7	39.0	47.3	100.0	13.7	86.3	
부모 종교	모두 개신교	(331)	1.4	9.0	38.9	50.7	100.0	10.4	89.6
	한분만 개신교	(107)	4.2	9.6	41.8	44.4	100.0	13.8	86.2
	모두 비개신교	(62)	9.1	22.0	34.2	34.6	100.0	31.2	68.8

크리스천 중고생이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묻는 질문에는 86.3%가 ‘사이 좋음’으로 응답하였는데, ‘사이 좋지 않음’이 13.7%인 것과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어머니와 좋은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모가 모두 개신교인인 경우 어머니와의 사이가 제일 좋은 것(89.6%)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까지 포함해 부모가 모두 개신교인이 아닌 경우는 ‘사이 좋지 않음’이 31.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크리스천 청소년에게 있어서 부모의 신앙이 부모와의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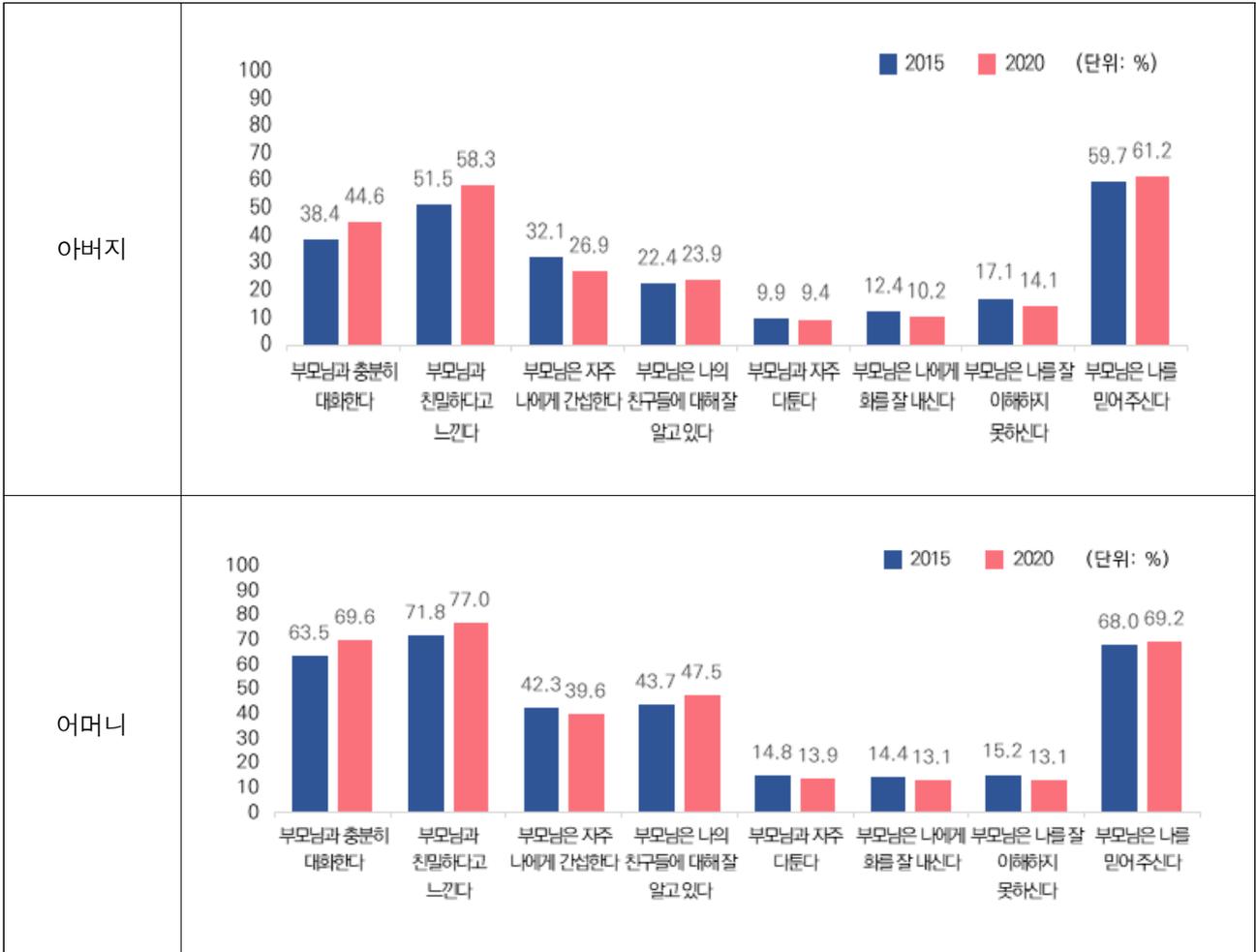


[표3] 부모 종교에 따른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구 분	사례수 (명)	사이가 매우 좋지 않다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편	사이가 어느정도 좋은 편	사이가 매우 좋다	계	[사이 좋지 않음]	[사이 좋음]	
전 체	(500)	3.7	9.1	45.7	41.5	100.0	12.8	87.2	
부모 종교	모두 개신교	(331)	1.5	7.9	43.4	47.2	100.0	9.4	90.6
	한분만 개신교	(107)	7.3	5.0	56.9	30.9	100.0	12.2	87.8
	모두 비개신교	(62)	9.4	22.4	38.9	29.3	100.0	31.8	68.2

크리스천 중고생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묻는 질문에는 87.2%가 ‘사이가 좋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어머니와의 ‘사이가 좋다’는 응답(86.3%)보다도 더 높은 비율로서 과거 청소년들이 가부장적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과는 꺾 다른 양상이다. 이 경우에도 부모가 모든 개신교인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사이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90.6%), 아버지를 포함해 부모가 모두 개신교인이 아닌 경우는 ‘사이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68.2%로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5] 청소년 자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 “그렇다(매우그렇다+대체로그렇다) 비율-15년 조사와의 비교 (단위:%)



이러한 크리스천 중고생의 부모와의 관계는 ‘4차 가족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일반 중고생의 부모와의 관계와 비교해보면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4차 가족실태조사’에서 조사된 ‘청소년 자녀 입장에서 본 부모와 관계’ 설문통계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어머니와의 ‘친밀감’은 77.0%로서 크리스천 청소년(86.3%)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버지와의 친밀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일반 청소년들이 아버지와 느끼는 ‘친밀감’은 58.3%인 것에 비해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경우는 87.2%로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들보다 부모와의 친밀감이 더 높은 편이며,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통계에 비추어 볼 때 크리스천 중고생의 부모와의 관계는 비교적 친밀한 편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도를 높이는 데 공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부모가 개신교인이 아닌 경우에는 부모와의 사이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교가 다른 부모와의 보다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부모 중 한 분만이라도 개신교인인 경우는 비교적 부모와의 사이가 좋은 편이며, 이는 얼마든지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자녀 신앙교육이 적용될 수 있는 토양이라고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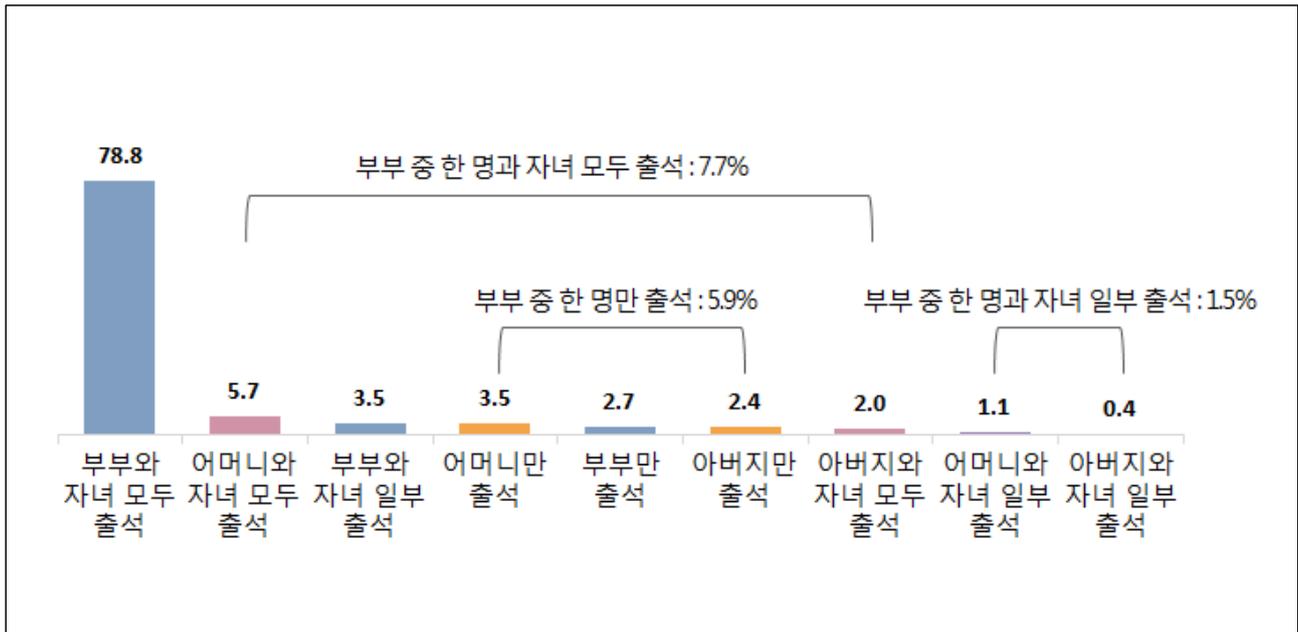
2. 가족 신앙

크리스천 중고생의 가족은 어떤 신앙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신앙 교육을 경험하고 있을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 부모의 종교를 비롯해서 부모의 교회 직분, 가정예배 및 신앙교육과 관련된 질문을 하였다. 필요한 경우는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조사한 다른 자료나 가족과 관련된 국가적 통계자료와 비교하여 크리스천 청소년 가정의 의미를 더 깊이 파악하고자 하였다.

1) 부모의 종교 및 교회직분

[그림6] 가족 구성원별 교회 출석 여부

(Base=전체, N=1500, %)



크리스천 중고생의 부모 종교를 파악해보면 3명 중의 2명(66.2%)은 부모가 모두 기독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어머니만 기독교인인 경우(20.5%)와 아버지만 기독교인인 경우(1.0%)를 합하면 87.7%로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부모가 모두 비기독교인인 경우는 불과 12.4%에 불과하였다. 이는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의 초기와는 달리 선교 130여년이 지난 지금의 경우는 크리스천 중고생의 대부분이 그 부모가 믿는 가정의 자녀인 셈이다. 이는 여전히 믿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전도가 필요하지만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훈련하여 신앙의 대 잇기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일군으로 성숙시키느냐가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통계는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조사한 ‘가정의 힘’ 통계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이 조사에서 크리스천 부모 1500명에게 자녀 교회 출석여부를 묻는 설문에서 자녀가 교회에 출석한다는 비율이 89.9%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 구성원별 교회 출석 여부를 물었는데, 부부와 자녀 모두가 출석하는 비율이 78.8%, 부부 중 한 명과 자녀 모두가 출석하는 비율이 7.7%, 그리고 부부 중 한 명과 자녀 중 일부만 출석하는 비율이 1.5%로서 이를 합하면 88%인데, 이는 앞의 본 조사에서 크리스천 중고생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기독교인인 경우가 87.7%인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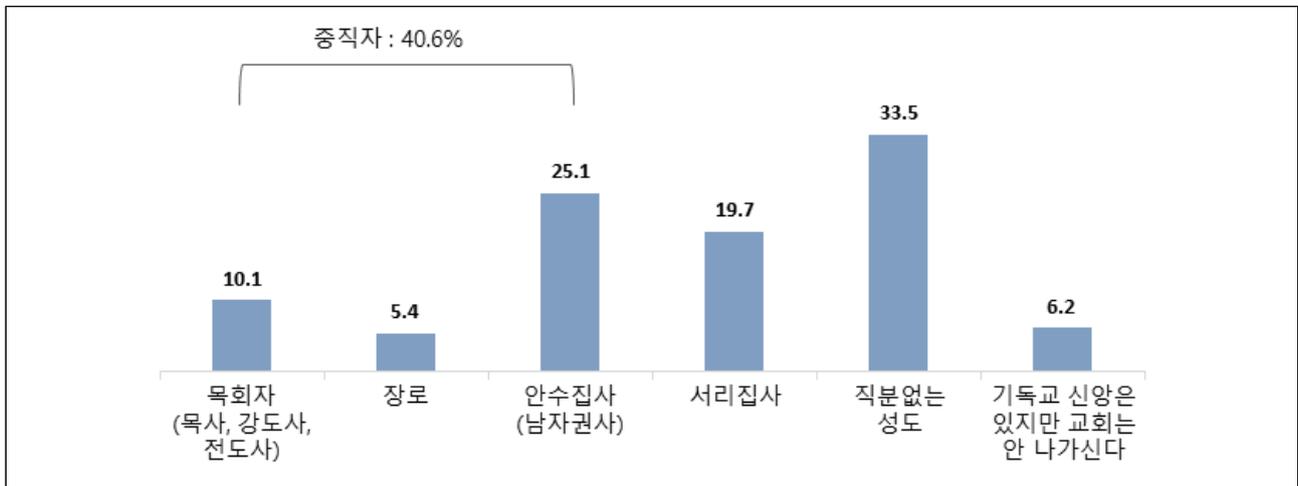
[표4] 주일예배 유형과 부모 종교의 관계

구 분	사례수 (명)	두 분 다 기독교	아버지만 기독교	어머니만 기독교	두 분 다 비기독교	계	
전 체	(500)	66.2	1.0	20.5	12.4	100.0	
지난 주일예배 유형	온라인 예배	(125)	70.7	1.4	19.5	8.5	100.0
	현장 예배	(222)	69.9	1.1	17.5	11.6	100.0
	방송/가정 예배	(51)	69.6	1.6	17.3	11.4	100.0
	드리지 못함	(101)	50.6	0.0	29.9	19.6	100.0

특이한 사항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난 주일 예배를 어떤 유형으로 드렸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부모 두 분 모두가 기독교인인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 70% 가까이 예배를 드린 반면, 어머니만 기독교인이든지 부모 두 분 다 비기독교인인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 예배를 못 드린 경우가 각각 29.9%, 19.6%로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코로나 상황에서는 부모가 기독교인인지의 여부가 청소년 자녀들의 예배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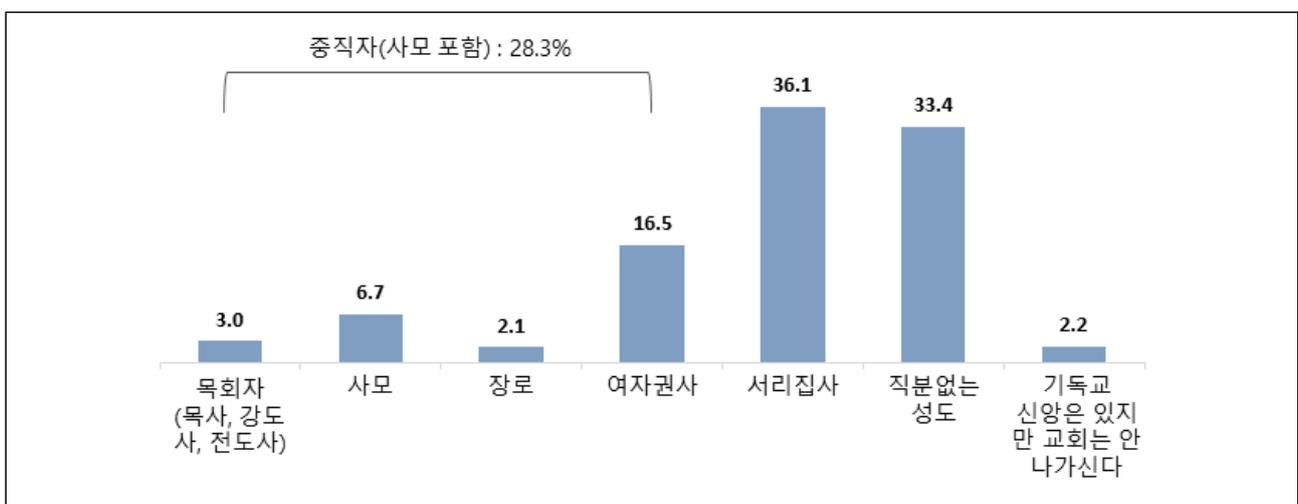
[그림7] 아버지 교회 직분

(Base=아버지가 기독교, N=336, %)



[그림8] 어머니 교회 직분

(Base=어머니가 기독교, N=43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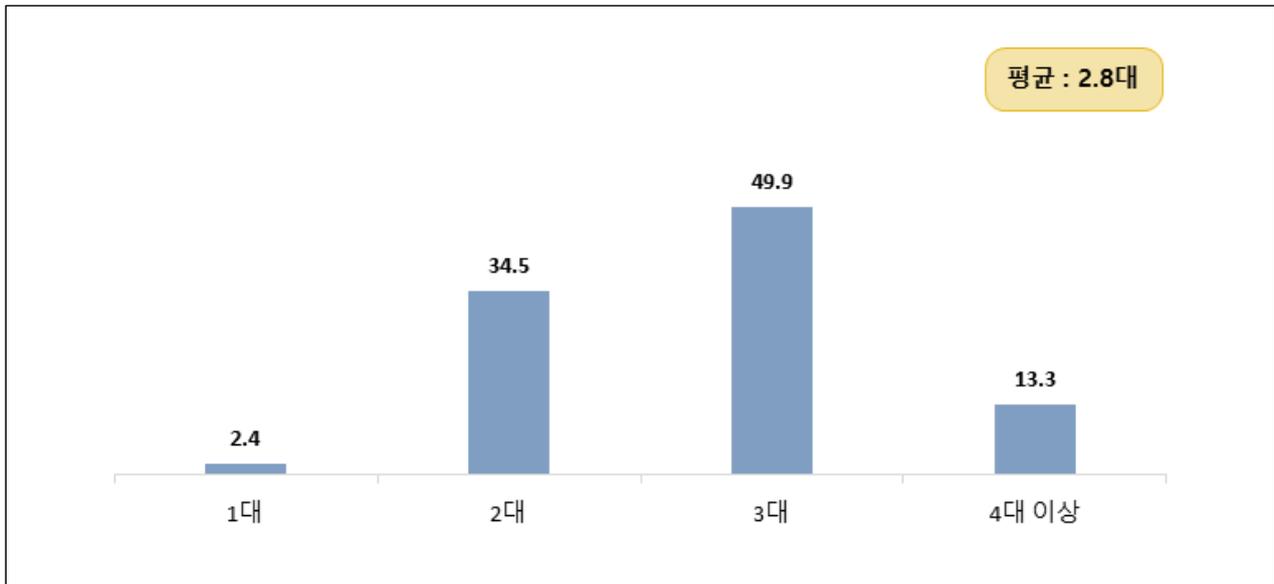


크리스천 중고생의 부모가 모두 기독교인인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부모가 교회의 직분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회 직분의 경우, 목회자, 장로, 안수집사(남자권사)를 포함한 소위

중직자인 경우가 전체의 40.6%에 달하였으며, 서리집사인 경우(19.7%)까지 합하면 60.3%를 차지한다. 어머니가 소위 교회의 중직자인 경우는 아버지가 중직자인 비율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머니가 목회자, 사모, 장로, 여자권사를 포함한 중직자인 비율은 28.3%이다. 그러나 어머니가 서리집사인 경우가 36.1%로서 이를 합한 전체 직분자의 비율은 64.4%로서 오히려 아버지가 직분자인 경우보다 더 높다. 이렇듯 크리스천 청소년 10명 중 6명 이상이 그 부모가 교회 직분자라는 사실은 자녀교육 및 다음세대 교육에 있어서 교회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며, 직분을 지닌 부모의 신앙 및 자녀 신앙교육이 바르게 정립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9] 신앙생활 이어온 대손 수(가정의 힘 통계)

(Base=전체, N=1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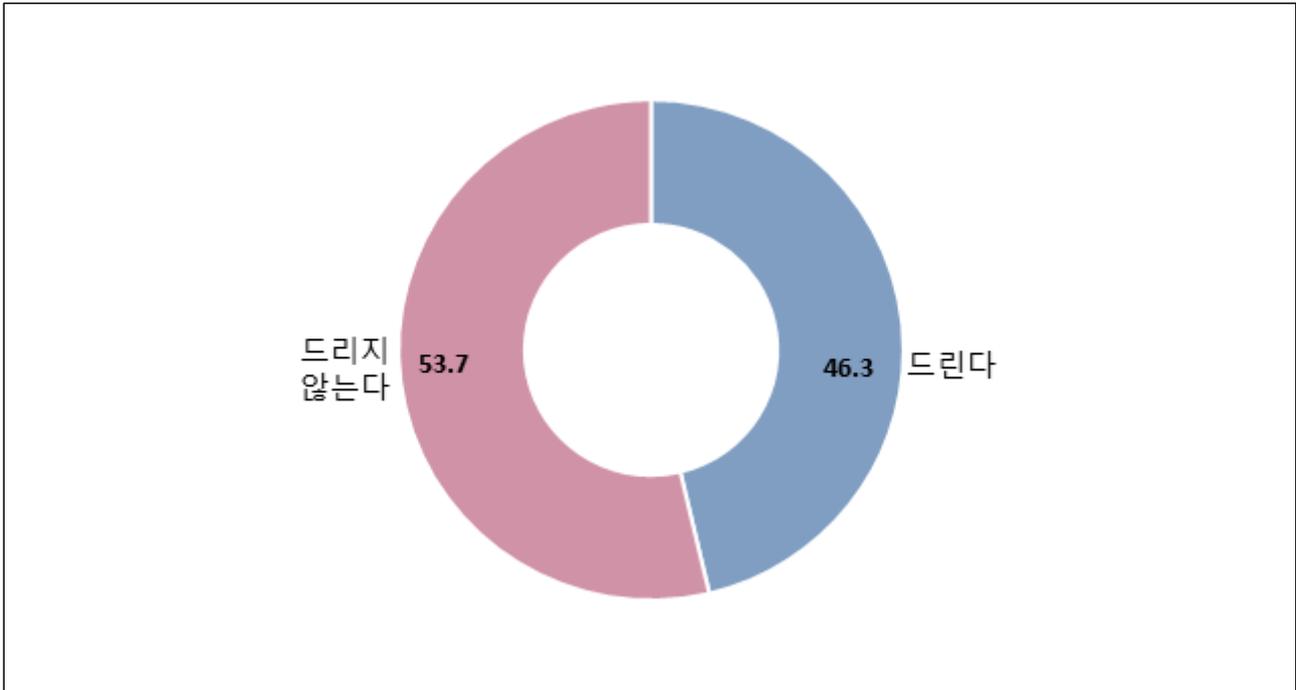


크리스천 중고생의 부모가 직분자, 특히 중직자인 경우가 많은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안믿는 가정에서 교회에 나오는 청소년보다는 오랜 믿음의 가정에서 나오는 청소년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의 힘’ 통계자료 중 신앙생활을 이어온 대손 수를 보면 평균 2.8대로서 3대째 신앙생활을 이어오는 경우가 전체의 49.9%로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정적인 배경을 이해하면서 향후 자녀 신앙교육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가정예배

[그림10] 가정예배 여부

(Base=부모 모두 개신교, N=331, %)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에서 드려지는 현장예배에 참여하기 어려워지면서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고, 이는 자녀 신앙교육의 중요한 통로로서 가정예배를 정착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게 된다. 먼저 가정예배를 드리는 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46.3%가 ‘드린다’고 응답했으며, ‘드리지 않는다’고 응답한 중고생의 비율은 53.7%로 나타났다. 거의 절반 가까운 크리스천 중고생이 가정예배를 드린다고 응답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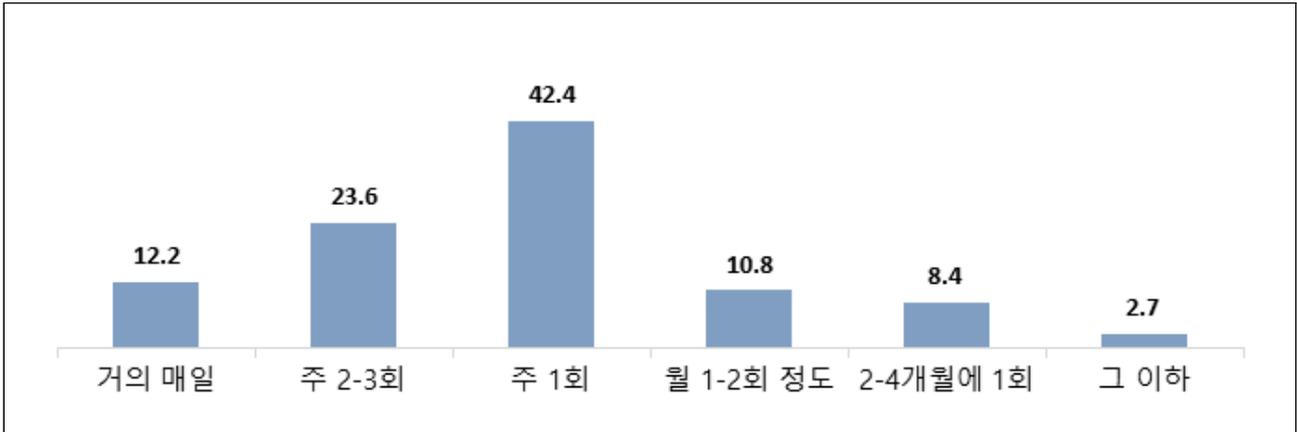
[표5] 주일예배 유형과 부모 종교의 관계

구 분		사례수 (명)	드린다	드리지 않는다	계
전 체		(331)	46.3	53.7	100.0
지난 주일예배 유형	온라인 예배	(88)	66.1	33.9	100.0
	현장 예배	(155)	36.1	63.9	100.0
	방송/가정 예배	(36)	64.3	35.7	100.0
	드리지 못함	(51)	30.4	69.6	100.0

이러한 통계를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가정예배’라는 개념이 주일예배 이외에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의미 외에 주일 교회 현장예배 대신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면서 설문을 분석할 때에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설문조사가 교회에 출석하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출석하는 학생들은 보다 신앙적으로 ‘충성스러운’ 학생들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주일 현장예배 대신 가정에 드려지는 예배를 가정예배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주일예배 유형에 따라 가정예배 여부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경우는 가정예배를 드린다고 응답한 비율이 66.1%로 높게 나타난 반면 현장예배를 드린 경우는 가정예배를 드린다고 응답한 비율이 36.1%로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11] 가정예배 빈도

(Base=가정예배 드림, N=15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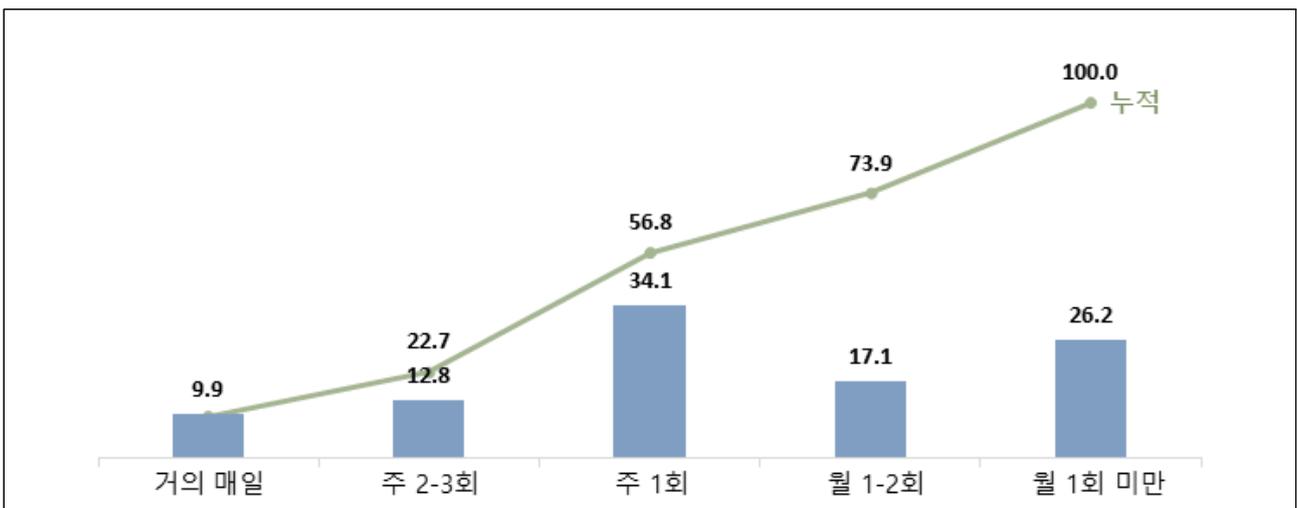
[표6] 주일예배 유형과 가정예배 빈도

구 분	사례수 (명)	거의 매일	주 2-3회	주 1회	월 1-2회 정도	2-4개월에 1회	그 이하	계	
전 체	(153)	12.2	23.6	42.4	10.8	8.4	2.7	100.0	
지난 주일예배 유형	온라인 예배	(58)	7.6	20.6	54.1	9.0	4.3	4.4	100.0
	현장 예배	(56)	24.6	19.7	37.1	8.9	7.0	2.7	100.0
	방송/가정 예배	(23)	1.7	56.4	33.6	8.3	0.0	0.0	100.0
	드리지 못함	(16)	0.0	0.0	30.6	28.1	41.2	0.0	100.0

가정예배를 얼마나 자주 드리는지의 빈도에 대해서는 주 1회가 42.4%로 가장 많았는데, 앞에서 언급한 대로 주일 현장예배 대신에 드러지는 예배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며 해석해야 할 것이다. 거의 매일 드린다고 응답한 비율은 12.2%로서, 현장예배를 드리는 경우(24.6%)가 온라인 예배(7.6%)나 방송예배(1.7%)를 드리는 경우보다 훨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현장예배를 드리는 청소년이 거의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는 비중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12] 가정예배 빈도(가정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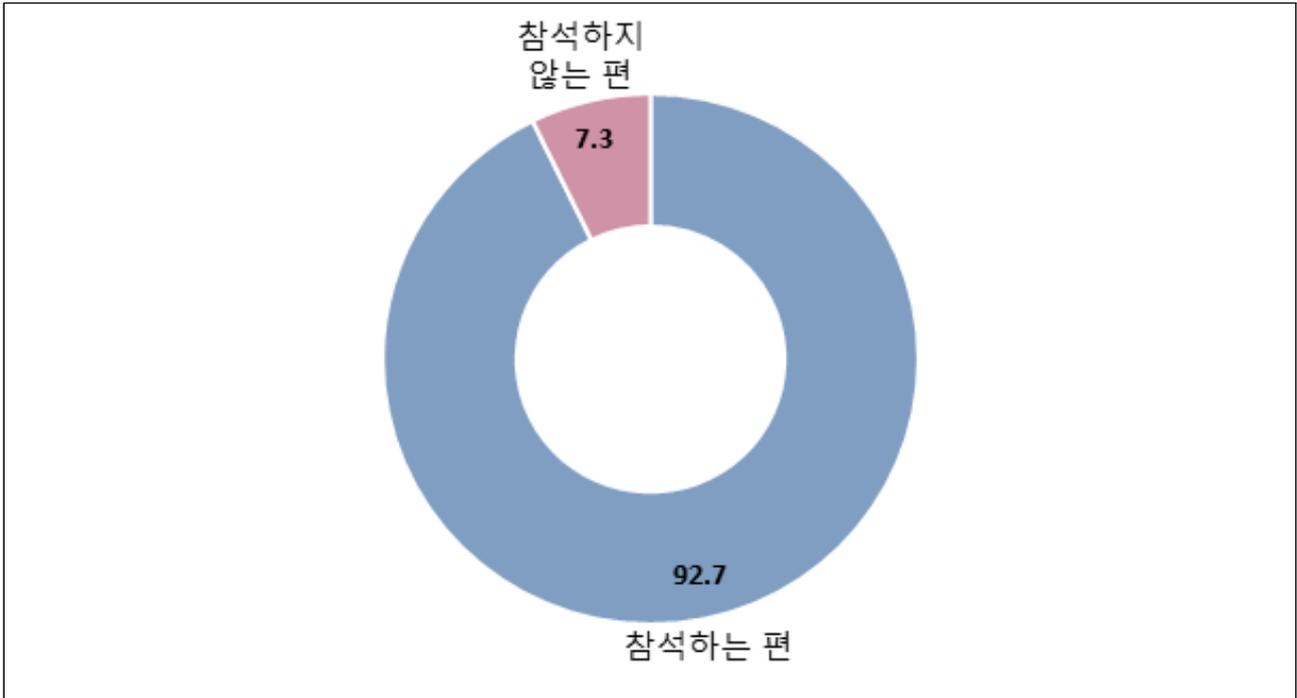
(Base=가정예배 드리는 사람, N=649, %)



이러한 가정예배의 빈도 분포는 '가정의 힘' 통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크리스천 자녀들이 인식하고 있는 가정예배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약간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거의 매일 가정예배를 드린다고 응답한 경우가 크리스천 부모들은 22.7%인데에 비해서, 청소년 자녀들은 35.8%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13] 가정예배 참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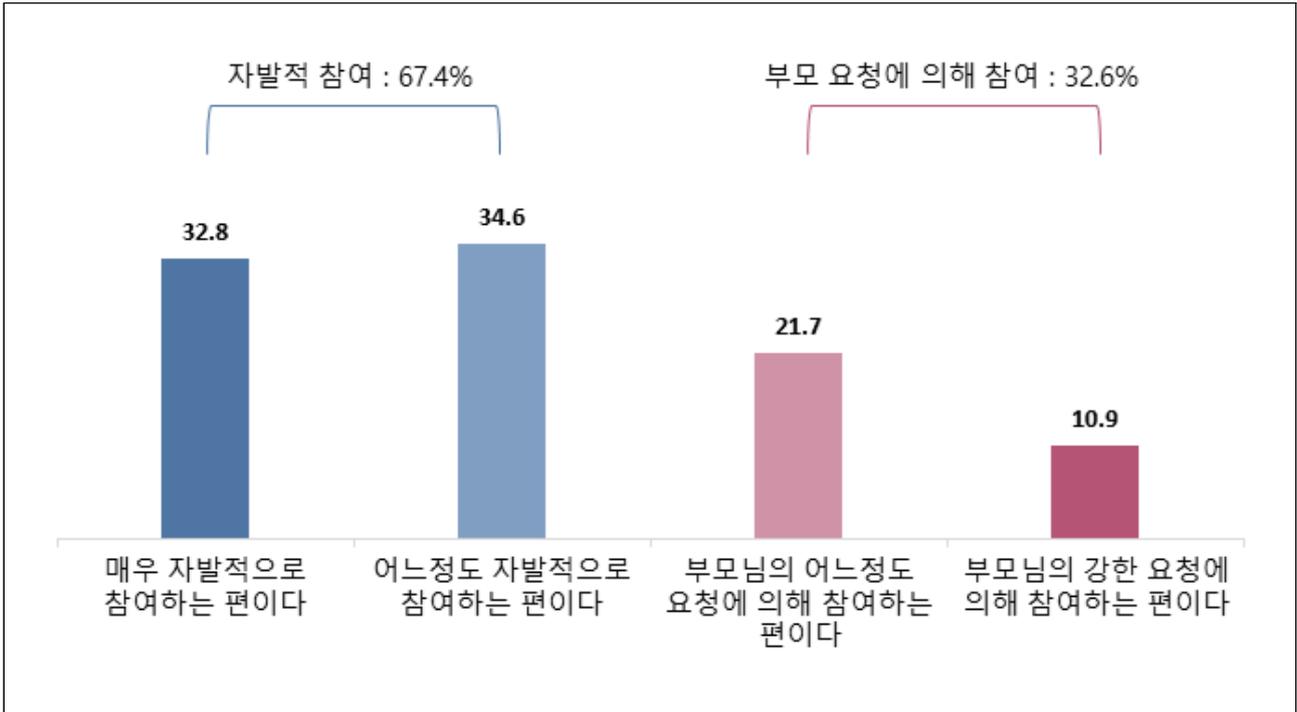
(Base=가정예배 드림, N=153, %)



[표7] 중,고 학교급별 가정예배 참석 여부

구 분		사례수 (명)	참석하는 편	참석하지 않는 편	계
전 체		(153)	92.7	7.3	100.0
학교급	중학생	(84)	96.6	3.4	100.0
	고등학생	(69)	88.1	11.9	100.0

가정예배 참석 여부는 대부분(92.7%)이 참석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중학생의 참여율이 96.6%로서 고등학생의 참여율(88.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8] 남, 여 성별 가정예배 참석 자발성

구 분	사례수 (명)	매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부모님의 어느 정도 요청에 의해 참여하는 편이다	부모님의 강한 요청에 의해 참여하는 편이다	계	[자발적 참여]	[부모 요청에 의해 참여]	
전 체	(142)	32.8	34.6	21.7	10.9	100.0	67.4	32.6	
성별	남학생	(74)	38.1	36.0	15.3	10.5	100.0	74.1	25.9
	여학생	(68)	27.1	33.0	28.6	11.3	100.0	60.1	39.9

가정예배 참석의 자발성은 '자발적 참여'가 67.4%로서 '부모 요청에 의한 참여'(32.6%)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크리스천 청소년의 3분의 1정도는 부모 요청에 의해 마지못해 참석하고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가정예배 참여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는 가정예배를 준비함으로써 스스로 참여하는 자발성을 신장시키는 노력이 요청된다. '자발적 참여'의 비율이 남학생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74.1%), 여학생은 '부모 요청에 의한 참여' 비율(39.9%)이 높게 나타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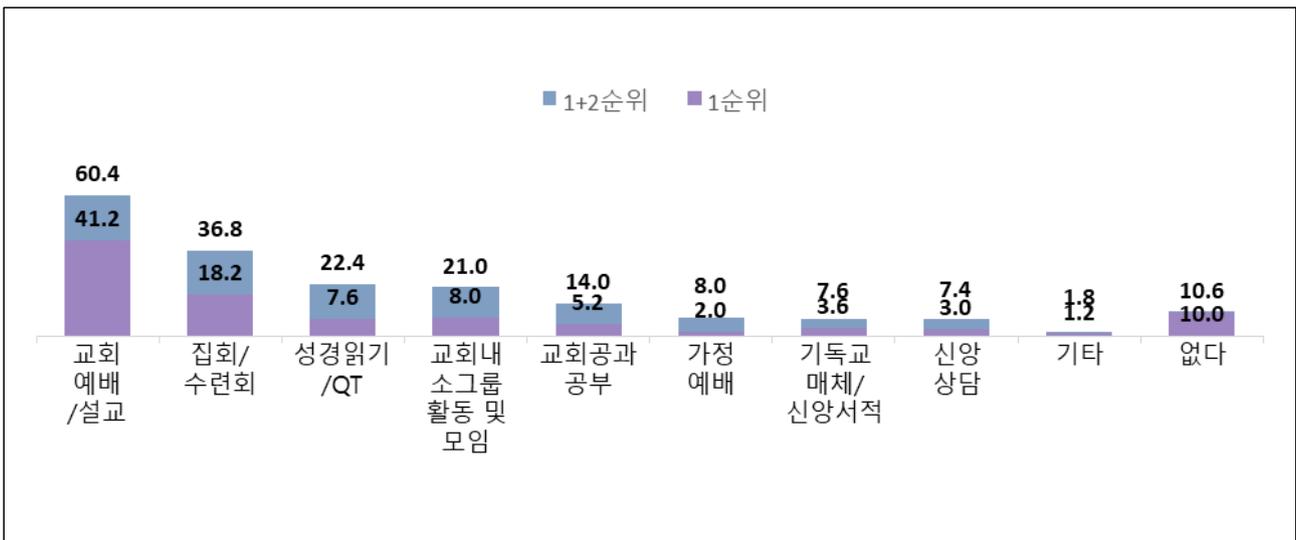
[그림15] 코로나19 발생 후 신앙성장에 도움받는 것

(Base=전체, N=500, %)



[그림16] 비교) 19년도 조사* - 신앙성장에 도움받는 것

(Base=전체, N=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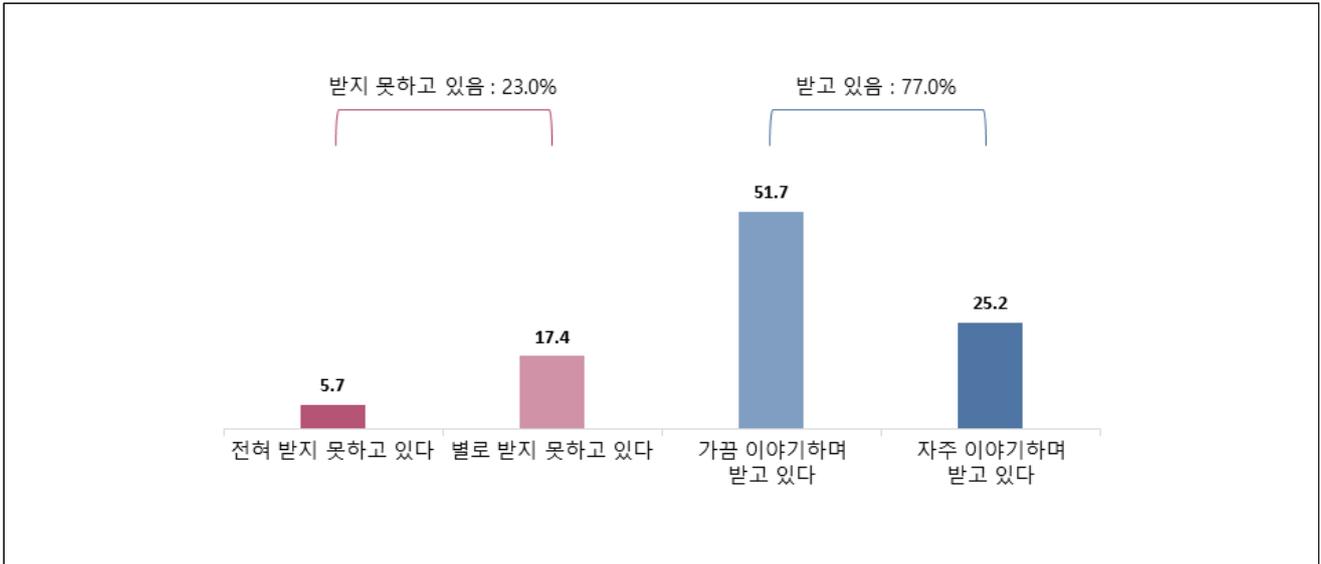
* 교회탐구센터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의식 조사' 2019.11 (전국 교회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코로나19로 인하여 청소년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정예배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공통 가운데서도 누리는 은혜이다. 본 조사연구의 전반부에서 다루어진 내용 가운데 코로나19 발생 후 신앙성장에 도움받는 것 중 '가정예배'가 코로나19 이후에는 두 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에는 '가정예배'라고 응답한 비율이 2.0%에 불과하였는데,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는 16.8%로 상승한 것이다. 주일 현장예배 대신 가정에서 드러지는 '가정예배'로 인한 요인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신앙교육으로서 가정예배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임을 인식하고 이를 반영한 교회-가정 연계 교육 방안 모색이 요청된다.

3) 신앙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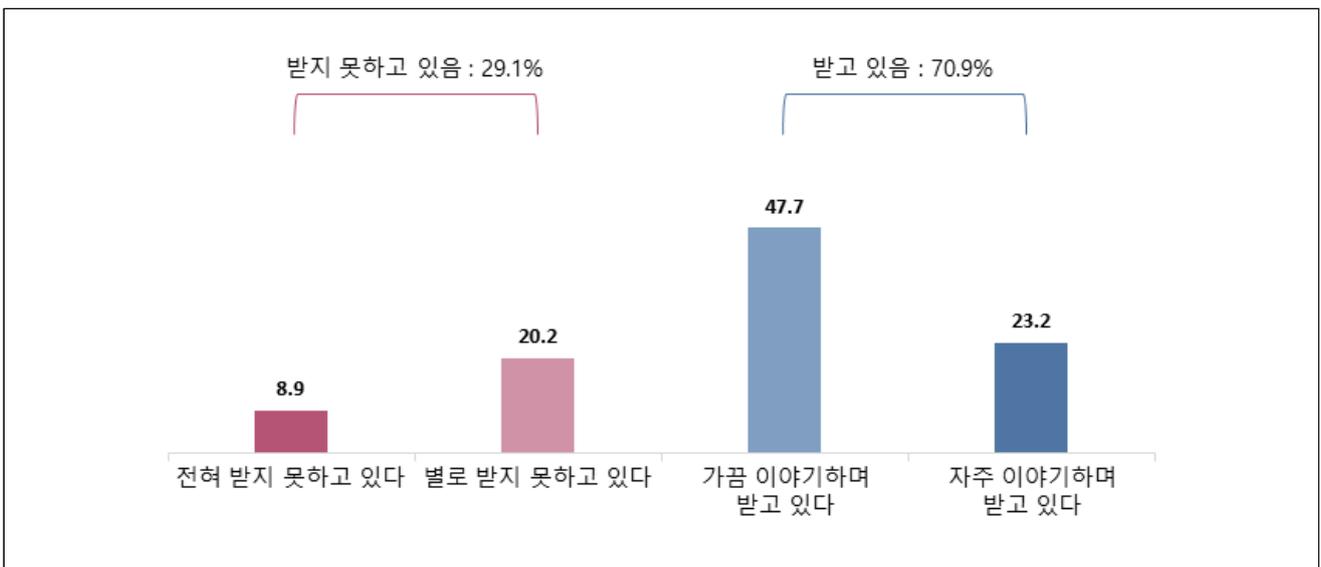
[그림17] 평소 신앙교육 받는 정도

(Base=부모 중 한 명 이상 개신교인, N=438, %)



[그림18] 비교) 19년도 조사* - 평소 신앙교육 받는 정도

(Base=부모 중 한 명 이상 개신교인, N=42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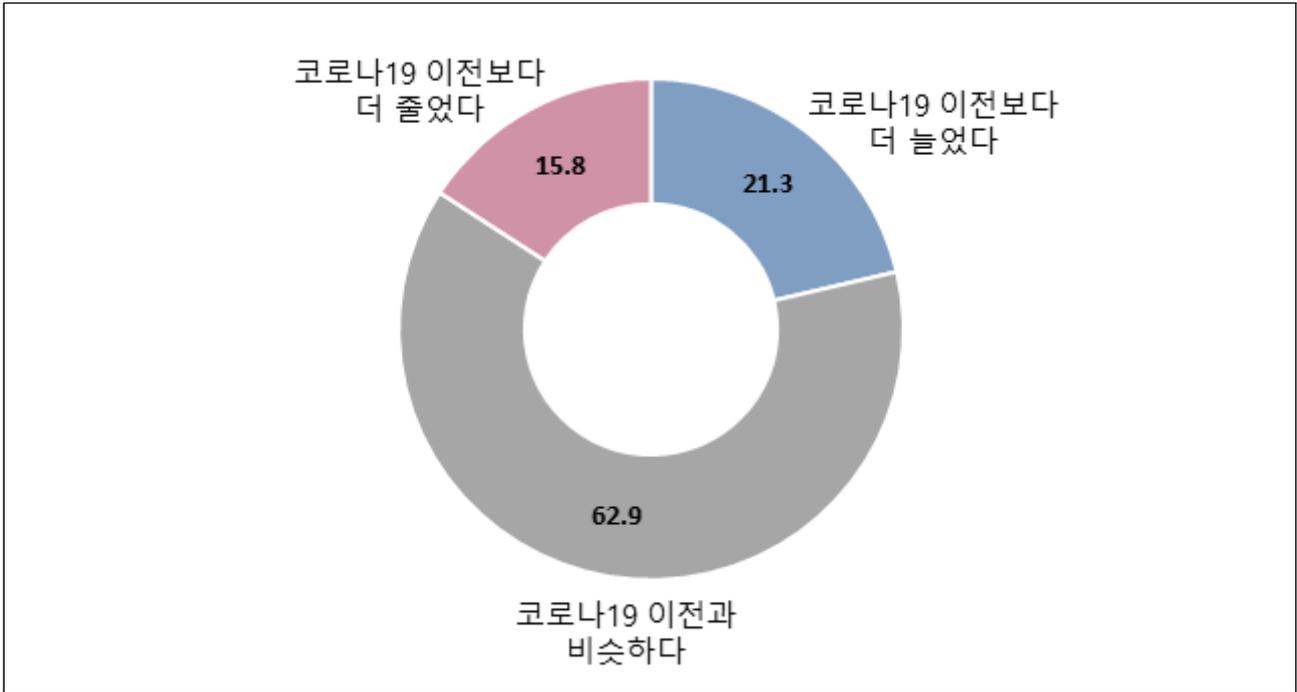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에 대해서는 크리스천 중고생 4명 중 3명정도(77.0%)가 부모로부터 평소 신앙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교회탐구센터가 목회데이터연구소에 의뢰해 조사된 수치보다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족이 함께 하는 신앙활동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으로 보여 진다.

[표9] 부모 종교 및 직분에 따른 평소 신앙교육 받는 정도

구 분		사례수 (명)	매우 자주 이야기하며, 받고 있다	가끔 이야기하며, 받고 있다	별로 받지 못하고 있다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계	[받고 있다]	[받지 못하고 있다]
전 체		(438)	25.2	51.7	17.4	5.7	100.0	77.0	23.0
부모 종교	모두 개신교	(331)	30.0	51.8	13.6	4.6	100.0	81.8	18.2
	한분만 개신교	(107)	10.6	51.6	28.9	8.9	100.0	62.2	37.8
아버지 직분	중직자	(136)	37.4	52.5	7.4	2.7	100.0	89.9	10.1
	서리집사/직분없음	(179)	26.4	51.6	16.2	5.8	100.0	78.1	21.9
	가나안성도	(21)	10.3	46.2	31.9	11.5	100.0	56.5	43.5
	비기독교인	(102)	10.0	52.0	29.8	8.2	100.0	62.0	38.0
어머니 직분	중직자(사모 포함)	(123)	38.5	46.3	12.9	2.4	100.0	84.7	15.3
	서리집사/직분없음	(301)	20.7	55.3	17.8	6.3	100.0	75.9	24.1
	가나안성도	(10)	0.0	17.1	62.2	20.7	100.0	17.1	82.9
	비기독교인	(5)	23.9	42.0	11.1	23.0	100.0	65.8	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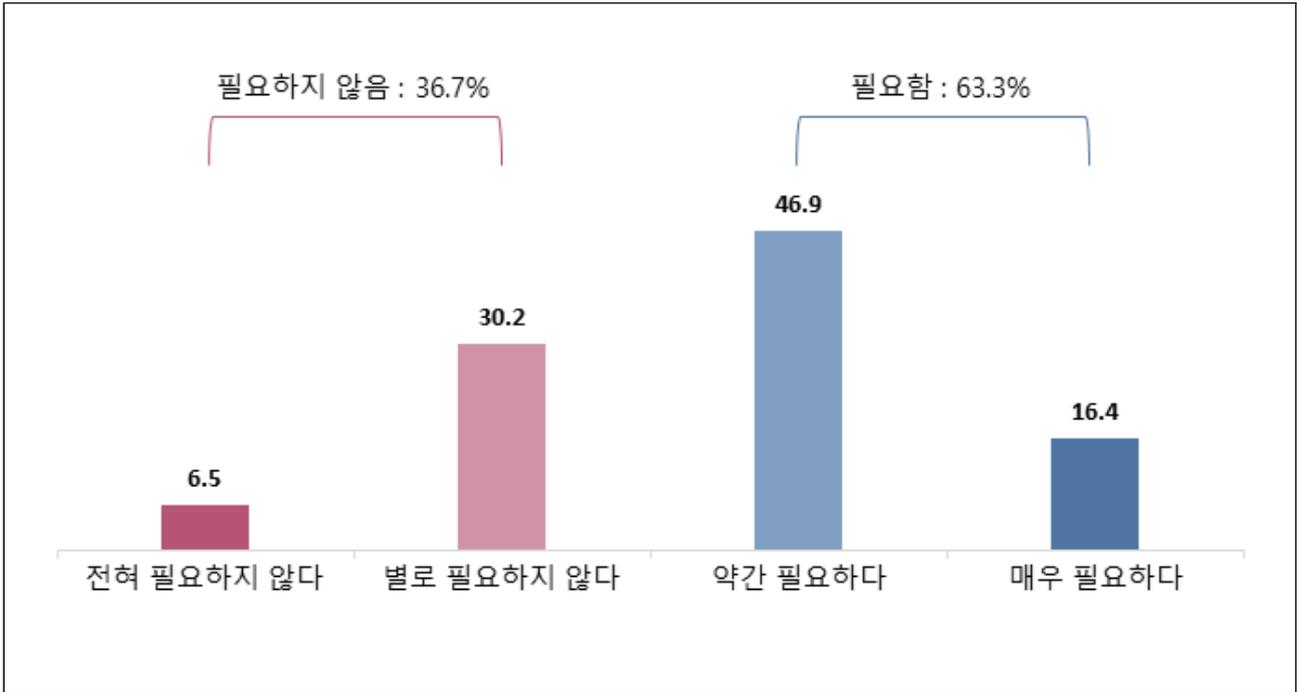
크리스천 청소년이 신앙교육을 받는 정도는 부모의 신앙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부모의 종교가 모두 개신교인 경우 81.8%가 신앙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 분만 개신교인 경우는 62.2%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중직자인 경우도 각각 89.9%, 84.7%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결과는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 정도가 자녀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10] 부모 종교 및 직분에 따른 코로나19 전 대비 신앙교육 정도

구 분		사례수 (명)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늘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하다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줄었다	계
부모 종교	모두 개신교	(331)	24.3	60.6	15.2	100.0
	한분만 개신교	(107)	12.2	70.0	17.8	100.0
아버지 직분	중직자	(136)	29.0	60.2	10.9	100.0
	서리집사/직분없음	(179)	19.3	62.4	18.3	100.0
	가나안성도	(21)	32.3	51.2	16.6	100.0
	비기독교인	(102)	12.4	69.6	17.9	100.0
어머니 직분	중직자(사모 포함)	(123)	27.6	60.4	12.0	100.0
	서리집사/직분없음	(301)	19.5	64.1	16.4	100.0
	가나안성도	(10)	4.5	48.8	46.7	100.0
	비기독교인	(5)	8.1	77.0	14.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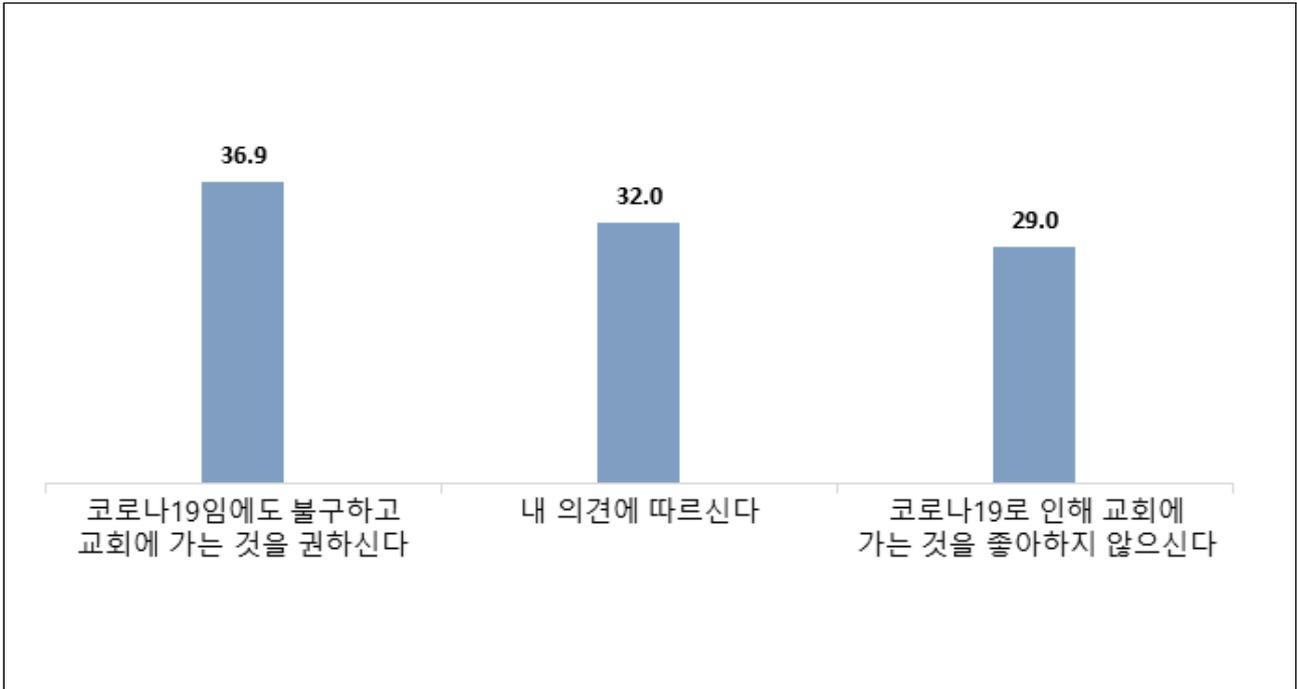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부모님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62.9%가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하다고 응답하였고,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늘어났다는 응답(21.3%)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줄었다는 응답(15.8%)보다 높게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의 신앙교육이 약화되면서 가정예배를 비롯한 가정 내 신앙교육이 상대적으로 활발해진 결과로 보여진다. 신앙교육 받는 것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늘었다는 비율은 부모의 종교가 모두 개신교인 경우에, 그리고 부모의 직분이 중직자일 때 더 높게 나타났다.



[표11] 중고등부 유무, 신앙의 단계에 따른 신앙교육에 대한 필요성

구분	사례수 (명)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계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전체	(438)	6.5	30.2	46.9	16.4	100.0	36.7	63.3
중고등부 유무	있음 (383)	6.3	31.7	47.5	14.5	100.0	38.0	62.0
	없음 (55)	8.2	20.1	42.6	29.1	100.0	28.3	71.7
신앙의 단계	1단계 (142)	12.7	43.9	35.4	8.1	100.0	56.6	43.4
	2단계 (151)	5.0	27.9	53.0	14.1	100.0	32.9	67.1
	3단계 (98)	2.0	20.4	52.2	25.4	100.0	22.4	77.6
	4단계 (47)	2.5	16.3	51.1	30.1	100.0	18.8	81.2

코로나19 시대 신앙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크리스천 중고생의 63.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6.7%로 나타났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은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의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신앙단계가 높아질수록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표12] 부모 종교에 따른 코로나19 후 교회 출석에 대한 부모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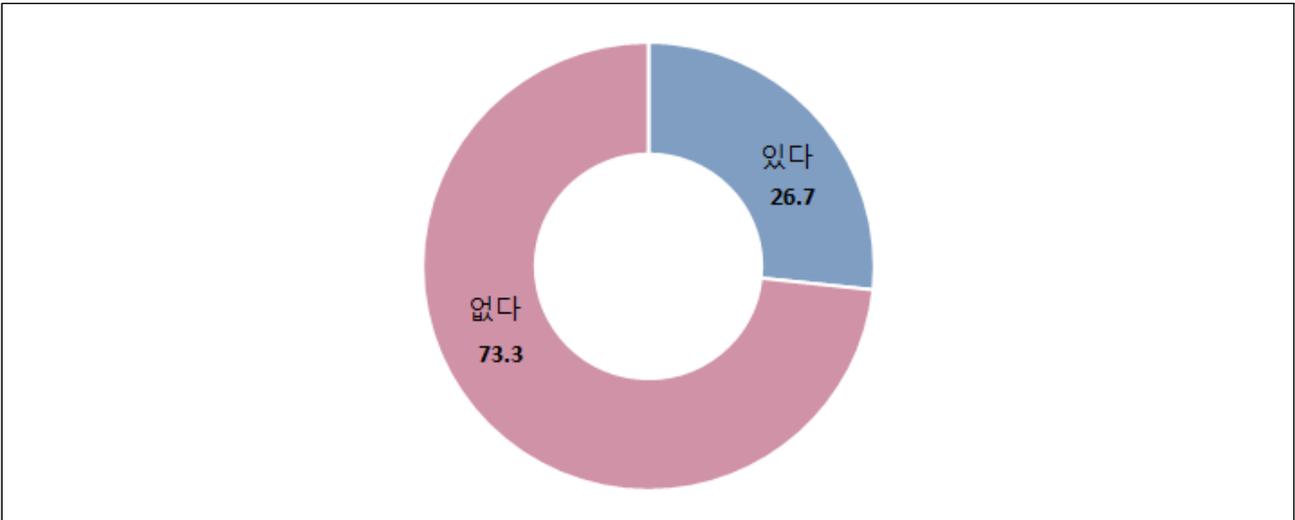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는 것을 권하신다	내 의견에 따르신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기타	계
전체	(500)	36.9	32.0	29.0	2.1	100.0
부모 종교	모두 개신교 (331)	44.0	28.8	25.6	1.5	100.0
	한분만 개신교 (107)	29.1	42.8	27.2	0.9	100.0
	모두 비개신교 (62)	12.4	30.2	50.1	7.3	100.0

코로나19 후 자녀의 교회출석에 대한 부모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는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는 것을 권하신다’고 응답한 경우가 36.9%로 가장 많았고, ‘내 의견을 따르신다’가 32%,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가 29%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부모의 종교에 따라 분명하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부모의 종교가 모두 개신교인 경우는 교회에 가는 것을 가장 많이 권하였고 (44%), 한 분만 개신교인 경우는 자녀의 의견을 따른 경향이 강했고(42.8%), 모두 비개신교인 경우는 교회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경향(50.1%)이 강하게 나타났다.

3.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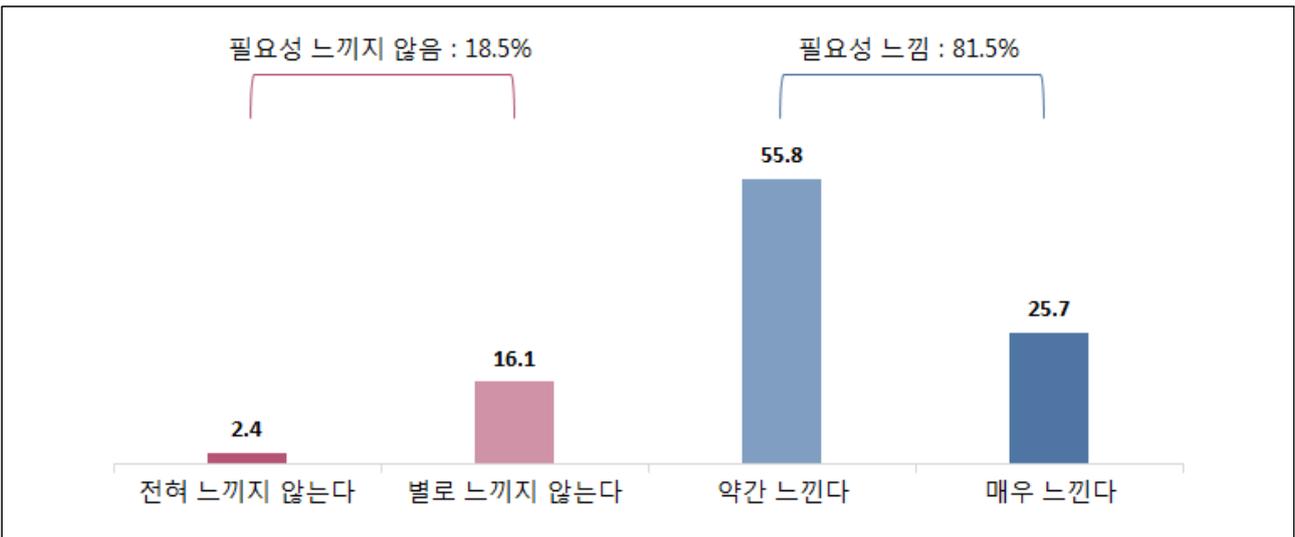
[그림22] 부모로서 자녀 신앙교육에 대해 훈련받은 경험

(Base=전체, N=1500, %)



[그림23] 자녀 신앙교육 방법 배울 필요성

(Base=전체, N=1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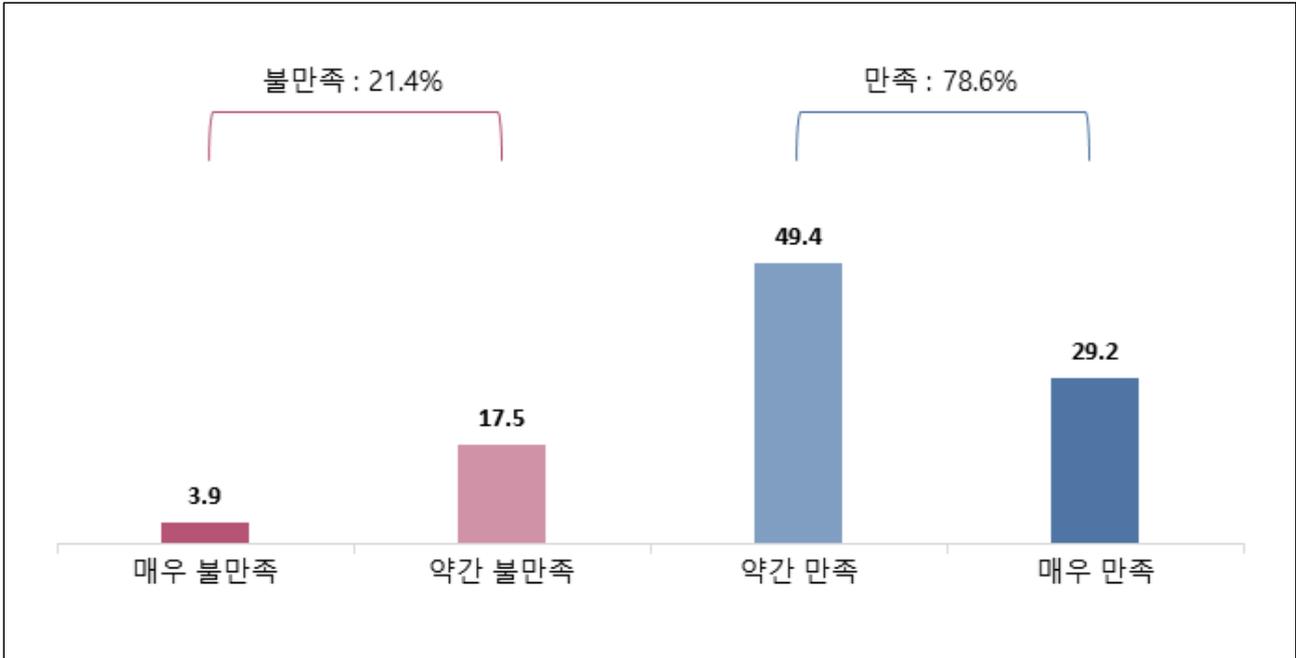
코로나19 상황이 교회교육의 심각한 위기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동안 악화되었던 가정의 신앙 교육적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금번 조사에서 청소년 신앙교육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점이 있다. 첫째, 크리스천 중고생의 대부분이 그 부모가 교회의 중직자이거나 믿음이 있는 가정에 속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신앙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그만큼 부모가 믿지 않는 가정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회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가 자녀 신앙교육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교회가 부모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점이다. ‘가정의 힘’ 통계 자료에 의하면 부모들이 자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7명 이상(73.3%)이 자녀 신앙교육에 대한 훈련 경험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시에 자녀 신앙교육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하는 비율이 81.5%로서 상당히 높은 편이다([그림23]참조). 이러한 필요를 교회가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코로나19가 자녀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가 종식되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워드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청소년 신앙교육에 대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교회학교 중심체제에서 가정 중심 체제 또는 교회-가정 연계체제로의 변화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II. 크리스천 중고생의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

1. 일상생활

[그림24] 삶의 만족도

(Base=전체, N=500, %)



[표13] 청소년의 성별 부모종교, 구원의 확신, 가구 경제수준에 따른 삶의 만족도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계	[불만족]	[만족]	
전체	(500)	3.9	17.5	49.4	29.2	100.0	21.4	78.6	
성별	남학생	(258)	5.5	9.6	50.2	34.6	100.0	15.2	84.8
	여학생	(242)	2.1	25.8	48.7	23.4	100.0	28.0	72.0
부모 종교	모두 개신교	(331)	4.2	12.6	50.4	32.9	100.0	16.8	83.2
	한분만 개신교	(107)	1.8	20.9	53.4	23.9	100.0	22.7	77.3
	모두 비개신교	(62)	5.8	37.9	37.6	18.7	100.0	43.7	56.3
구원의 확신	있음	(244)	3.3	12.3	47.4	37.0	100.0	15.6	84.4
	없음	(41)	8.8	34.4	47.3	9.5	100.0	43.2	56.8
	잘 모름	(215)	3.6	20.2	52.1	24.1	100.0	23.8	76.2
가구 경제 수준	상	(142)	3.0	7.6	40.4	49.1	100.0	10.6	89.4
	중	(235)	3.2	17.1	56.6	23.1	100.0	20.3	79.7
	하	(123)	6.3	29.7	46.2	17.9	100.0	36.0	64.0

크리스천 중고생은 어떤 일상생활을 보낼까? 먼저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현재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느냐의 질문에 29.2%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약간 만족한다는 응답이 49.4%로서 78.6%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비해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21.4%(매우 불만족 3.9%, 약간 불만족 17.5%)였다. 이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9년에 조사한 청소년 삶의 만족도가 70.2%인 것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이다. 즉, 크리스천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삶의 만족도는 다소 높다고 볼 수 있다.³⁾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성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84.8%)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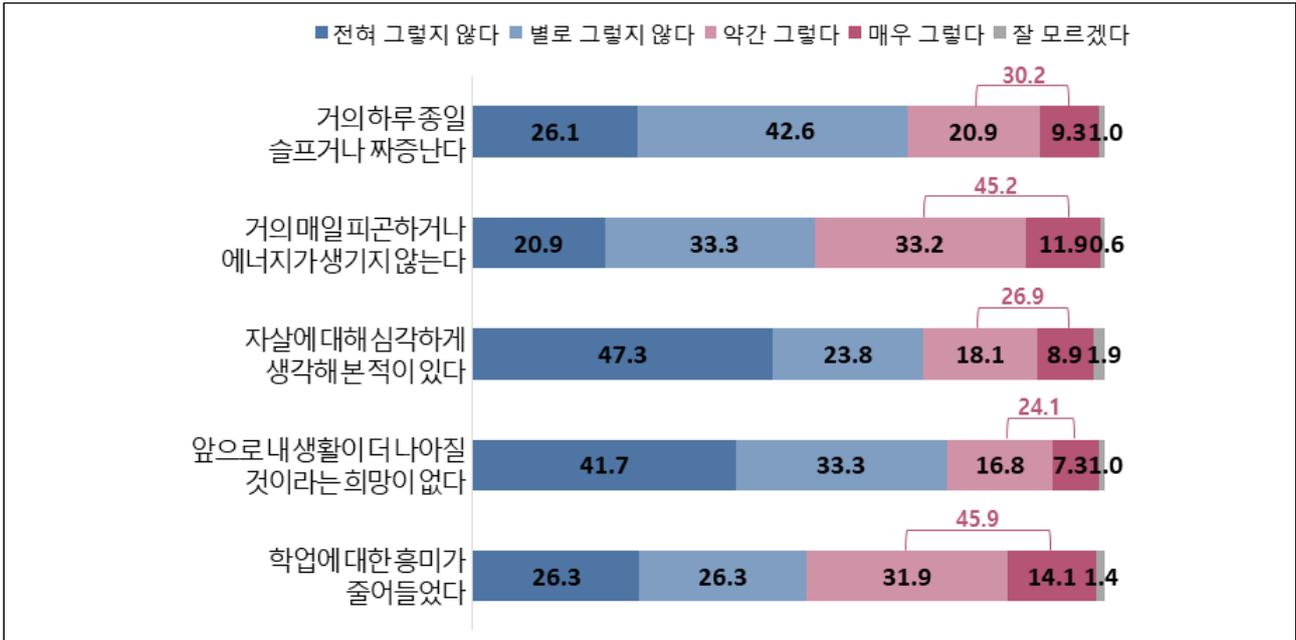
3) 오해섭 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V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91.

고, 여학생은 불만족(28.0%)이 남학생보다 높은 편이다. 부모 종교에 있어서 모두 개신교인 경우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83.2%) 모두 개신교인이 아닌 경우가 가장 낮았다(56.3%). 구원의 확신이 있는 청소년의 만족도(84.4%)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청소년의 만족도(56.8%)보다 큰 차이로 높았다. 가구경제수준을 상중하로 구분할 때 '상'인 경우가 89.4%로 가장 높게 나왔고,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만족도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이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와 가정이 아직도 여학생들에게 불편을 주는 무엇인가가 존재함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보다 여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이 요청된다. 부모가 믿음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더 삶의 만족도를 느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할 뿐 아니라 가정 복음화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특히 부모가 믿지 않는 가정의 청소년들을 위한 더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구원의 확신과 만족도가 정비례한다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현재의 삶 속에서도 행복감을 누리게 해줌을 보여준다. 경제 수준과의 만족도의 정비례적 관계는 청소년의 삶의 환경의 중요성을 보여주는데, 동시에 경제적으로 운택한 가정이 그렇지 못한 가정에 대한 책무성이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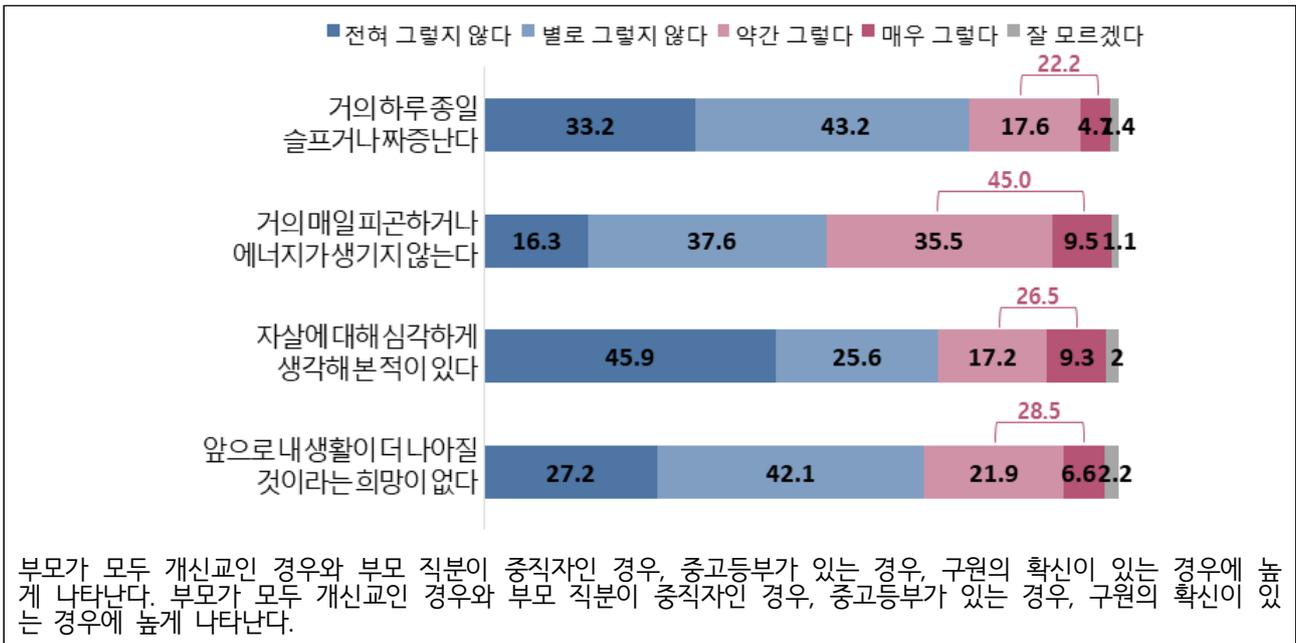
[그림25] 요즘 일상생활 평가

(Base=전체, N=500, %)



[그림26] 비교) 기독교 청년 조사* - 요즘 일상생활 평가

(Base=교회출석자, N=558, %)



부모가 모두 개신교인 경우와 부모 직분이 중직자인 경우, 중고등부가 있는 경우,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경우에 높게 나타난다. 부모가 모두 개신교인 경우와 부모 직분이 중직자인 경우, 중고등부가 있는 경우,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경우에 높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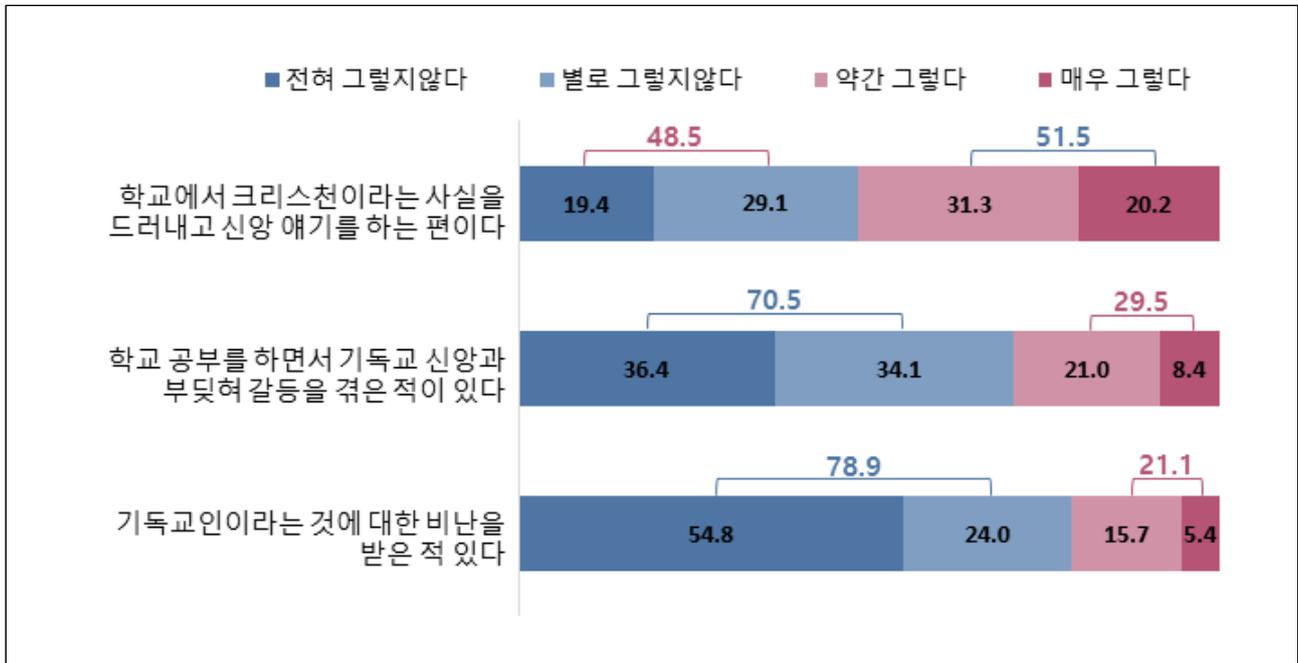
* 21세기교회연구소.한국교회탐구센터.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 청년의 사회 및 신앙의식에 대한 조사' 2021.1 (전국 만19~39세 개신교인 남녀, 7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0.12.30~2021.1.5)

크리스천 중고생들 스스로 일상생활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부정적으로 느끼는 비율이 큰 순서로 나열하면, '학업에 대한 흥미가 줄어들었다'가 45.9%로 가장 높았고,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가 45.2%, '거의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난다'가 30.2%,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이 있다'가 26.9%, 그리고 '앞으로 내 생활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다'가 24.1%로 나타났다. 모든 항목에 있어서 앞의 삶의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여학생이 부정적 인식이 더 강하였다. 기독교 청년의 이러한 결과를 2021년 연초에 실시한 기독교 청년 대상조사와 비교해보면 청소년의 슬픔/짜증감이 청년보다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 학교생활

[그림27] 학교에서의 신앙 관련 경험

(Base=전체, N=500, %)



[표14] 학교에서의 신앙 관련 경험

(Base=전체, N=500, %)

- 학교에서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신앙 얘기를 하는 편이다

구분	사레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500)	19.4	29.1	31.3	20.2	100.0	48.5	51.5	
학교구분	국공립	(288)	20.9	32.1	30.7	16.3	100.0	53.0	47.0
	사립	(121)	15.9	27.5	32.8	23.8	100.0	43.5	56.5
	대안학교	(51)	9.2	16.3	39.5	35.0	100.0	25.5	74.5
	기타	(39)	32.3	28.9	20.2	18.7	100.0	61.2	38.8
학교구분2	국공립	(288)	20.9	32.1	30.7	16.3	100.0	53.0	47.0
	기독교 사립/대안	(87)	6.2	21.5	39.9	32.4	100.0	27.7	72.3
	비기독교 사립/대안	(86)	21.8	26.9	29.5	21.7	100.0	48.7	51.3
	기타	(39)	32.3	28.9	20.2	18.7	100.0	61.2	38.8
부모 종교	모두 개신교	(331)	15.0	26.0	34.5	24.5	100.0	41.0	59.0
	한분만 개신교	(107)	25.3	38.7	25.6	10.4	100.0	64.0	36.0
	모두 비개신교	(62)	32.4	29.4	24.2	14.0	100.0	61.8	38.2
아버지 직분	중직자	(136)	12.8	27.2	30.6	29.4	100.0	40.0	60.0
	서리집사/직분없음	(179)	16.1	25.2	37.5	21.2	100.0	41.3	58.7
	가나안성도	(21)	19.4	28.6	35.0	17.0	100.0	48.0	52.0
	비기독교인	(164)	28.5	35.0	24.6	11.9	100.0	63.5	36.5
어머니 직분	중직자(사모 포함)	(123)	17.0	25.5	30.5	26.9	100.0	42.6	57.4
	서리집사/직분없음	(301)	17.3	30.4	32.8	19.5	100.0	47.7	52.3
	가나안성도	(10)	36.1	24.7	35.1	4.1	100.0	60.8	39.2
	비기독교인	(67)	30.6	30.5	25.4	13.5	100.0	61.1	38.9
중고등부 유무	있음	(431)	18.8	28.0	33.2	19.9	100.0	46.9	53.1
	없음	(69)	22.8	36.0	19.4	21.9	100.0	58.8	41.2
구원의 확신	있음	(244)	11.3	22.5	33.3	32.9	100.0	33.8	66.2
	없음	(41)	43.8	38.9	9.1	8.3	100.0	82.7	17.3
	잘 모름	(215)	24.0	34.8	33.2	8.0	100.0	58.7	41.3

[표15] 학교구분별 학교에서의 신앙 관련 경험

(Base=전체, N=500, %)

- 학교 공부를 하면서 기독교 신앙과 부딪혀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

구 분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않다	별로 그렇지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 체	(500)	36.4	34.1	21.0	8.4	100.0	70.5	29.5	
학교구분	국공립	(288)	37.0	35.4	20.5	7.2	100.0	72.4	27.6
	사립	(121)	35.3	34.3	22.8	7.6	100.0	69.6	30.4
	대안학교	(51)	31.5	18.9	28.3	21.3	100.0	50.4	49.6
	기타	(39)	42.4	43.8	10.4	3.4	100.0	86.2	13.8

[표16] 학교구분별 학교에서의 신앙 관련 경험

(Base=전체, N=500, %)

- 기독교인이라는 것에 대한 비난을 받은 적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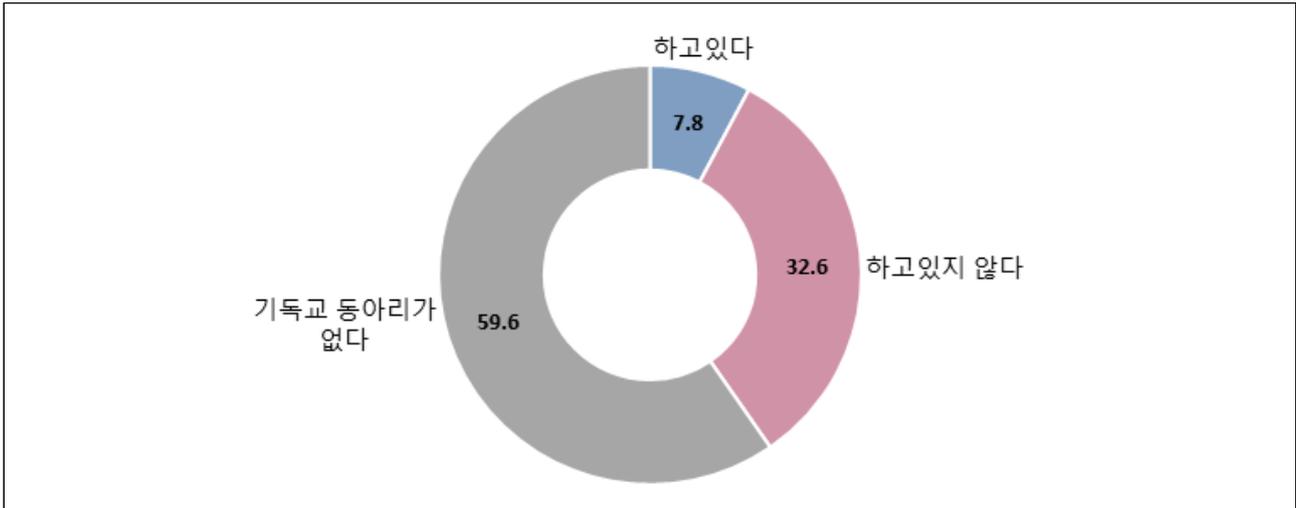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않다	별로 그렇지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 체	(500)	54.8	24.0	15.7	5.4	100.0	78.9	21.1	
학교구분	국공립	(288)	59.3	21.6	15.3	3.8	100.0	80.9	19.1
	사립	(121)	56.2	26.0	11.1	6.8	100.0	82.2	17.8
	대안학교	(51)	28.2	21.4	36.2	14.2	100.0	49.6	50.4
	기타	(39)	53.1	39.0	6.9	1.0	100.0	92.1	7.9

크리스천 중고생의 학교에서의 신앙관련 경험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질문하였는데, ‘학교에서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신앙 얘기를 하는 편이다’에 대해 51.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학교공부를 하면서 기독교 신앙과 부딪혀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에 대해서는 29.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기독교인이라는 것에 대한 비난을 받은 적 있다’에 대해서는 21.1%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크리스천 중고생 중 절반은 학교에서도 신앙 얘기를 거침없이 하는 편이고, 나머지 절반은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0명 중 3명 정도는 학교 공부를 하면서 신앙과의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고, 10명 중 2명 정도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그만큼 크리스천 중고생의 학교생활에서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기도 함을 이해하고 이들을 돕는 교회와 가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 공부에서 신앙과의 갈등을 겪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교역자, 교사, 부모의 노력을 통해 신앙과 학업이 분리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향후 학교문화가 더욱 불신앙과 반기독교적 정서가 팽배해지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청소년들이 분명한 신앙적 정체성을 지니고 극복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신앙 얘기를 하는 편이다’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안학교, 기독교 사립/대안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교 공부를 하면서 기독교 신앙과 부딪혀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와 ‘기독교인이라는 것에 대한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모두 대안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대안학교가 일반 학교보다 토론식 수업이나 학생 상호간의 대화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지며, 기독교 대안학교의 경우 보다 신앙교육 중심의 교육을 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학교에서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신앙 얘기를 하는 편이다’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부모가 모두 개신교인 경우와 부모 직분이 중직자인 경우, 중고등부가 있는 경우,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경우에 높게 나타난다. 이는 신앙이 강할수록 더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드러내고 이야기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그림28] 기독 동아리 활동 여부

(Base=전체, N=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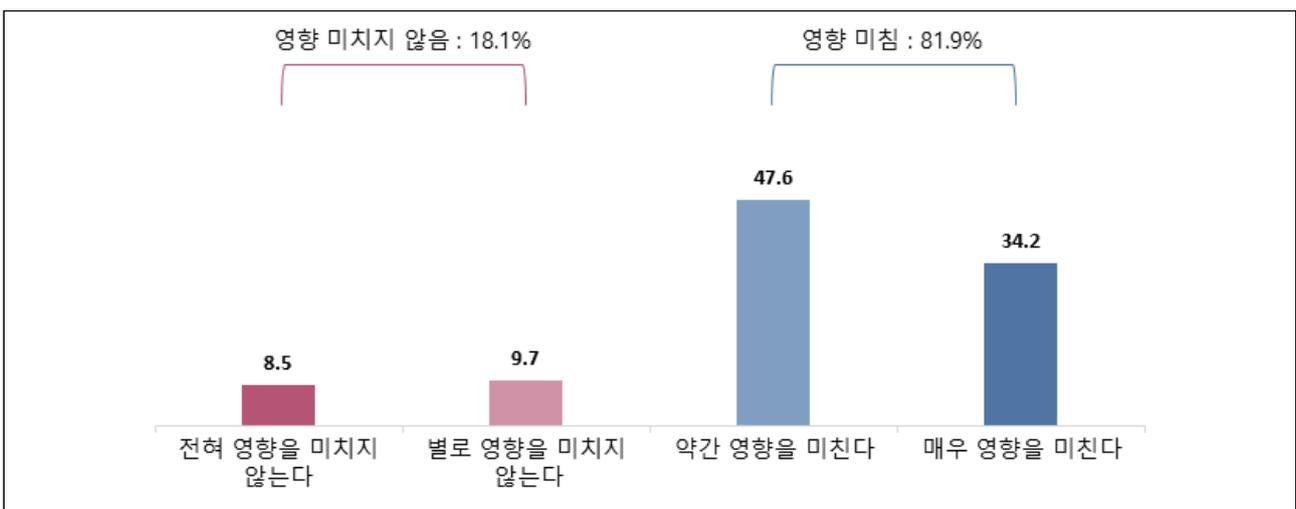
[표17] 학교구분별 기독 동아리 활동 여부

구 분	사례수 (명)	하고있다	하고있지 않다	기독교 동아리가 없다	계	
전 체	(500)	7.8	32.6	59.6	100.0	
학교구분2	국공립	(288)	5.2	28.5	66.2	100.0
	기독 사립/대안	(87)	17.9	57.9	24.3	100.0
	비기독 사립/대안	(86)	8.0	27.6	64.4	100.0
	기타	(39)	3.4	17.3	79.3	100.0

크리스천 중고생의 기독 동아리 활동 여부는 대부분이 기독교 동아리가 없다(59.6%)거나, 하고 있지 않다(32.6%)고 응답하였으며,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7.8%에 불과하였다. 특히, 국공립 학교와 비기독교 사립/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세 곳 중 두 곳에는 기독교 동아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29] 기독 동아리의 신앙 영향도

(Base=기독교 동아리 활동 함, N=39, %)



그런데 기독 동아리의 신앙 영향력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기독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대부분(81.95)은 기독 동아리가 신앙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는데, 매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34.2%나 되었다. 이는 기독교 동아리의 개설 및 활성화를 통해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 형성과 성장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논의

크리스천 중고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신앙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가정의 부모들이 어떤 신앙이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진다. 오늘날 삶에 지쳐있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이 주는 놀라운 변화가 있음을 확신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선교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가정의 영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모들을 건강한 크리스천 부모로 세움으로 자녀 신앙교육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자녀의 가장 큰 고민이 학업임을 인식하고, 학업에 있어서 기독교적 관점을 확립하도록 돕고, 입시 위주의 교육현실 속에서 확고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확립하는 교육을 실천하여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이 ‘학업에 대한 흥미가 줄어들었다’(45.9%)고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으며,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45.2%)고 느끼고 있는 등 심리적 불안과 위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상담의 노력도 요청된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학업이나 생활에 있어서 갈등을 겪는 중고생들이 많은데, 교회와 가정이 연계되는 것만이 아니라 학업도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일관성 있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에서 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기독교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교육하여 교과목과 입시, 진로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확립하고, 기독교 동아리 활성화를 비롯해 학교에서 신앙적인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위한 노력도 요청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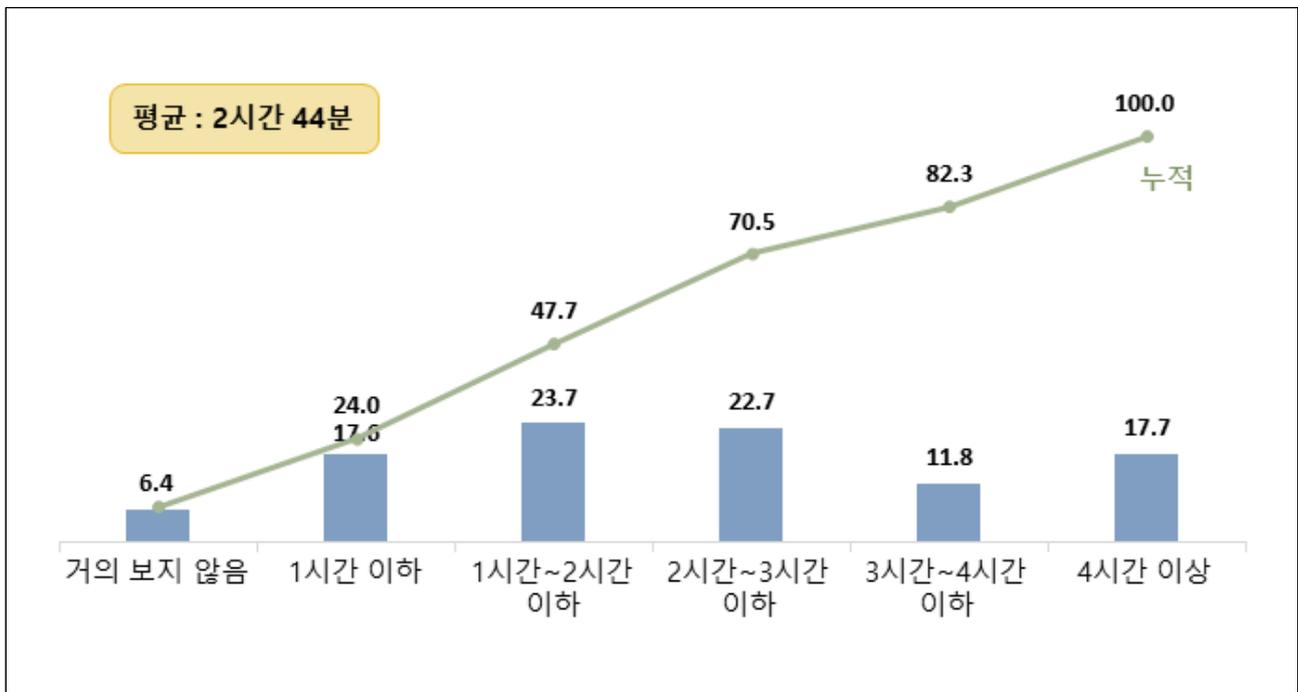
III. 크리스천 중고생의 유튜브 활용

크리스천 중고생의 유튜브 이용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그들을 위한 신앙교육의 패러다임과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특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학교수업과 교회 신앙교육에서 유튜브 활용이 확대되면서 코로나 이후의 신앙교육에 있어서도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매체의 활용이 확장될 것을 예견할 수 있다. 금번 조사의 앞부분에서는 교회학교의 예배나 공과공부에 있어서 유튜브 활용은 다루었지만 여기에서는 학생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유튜브 시청 시간 및 경험, 그리고 이러한 경향이 온라인 예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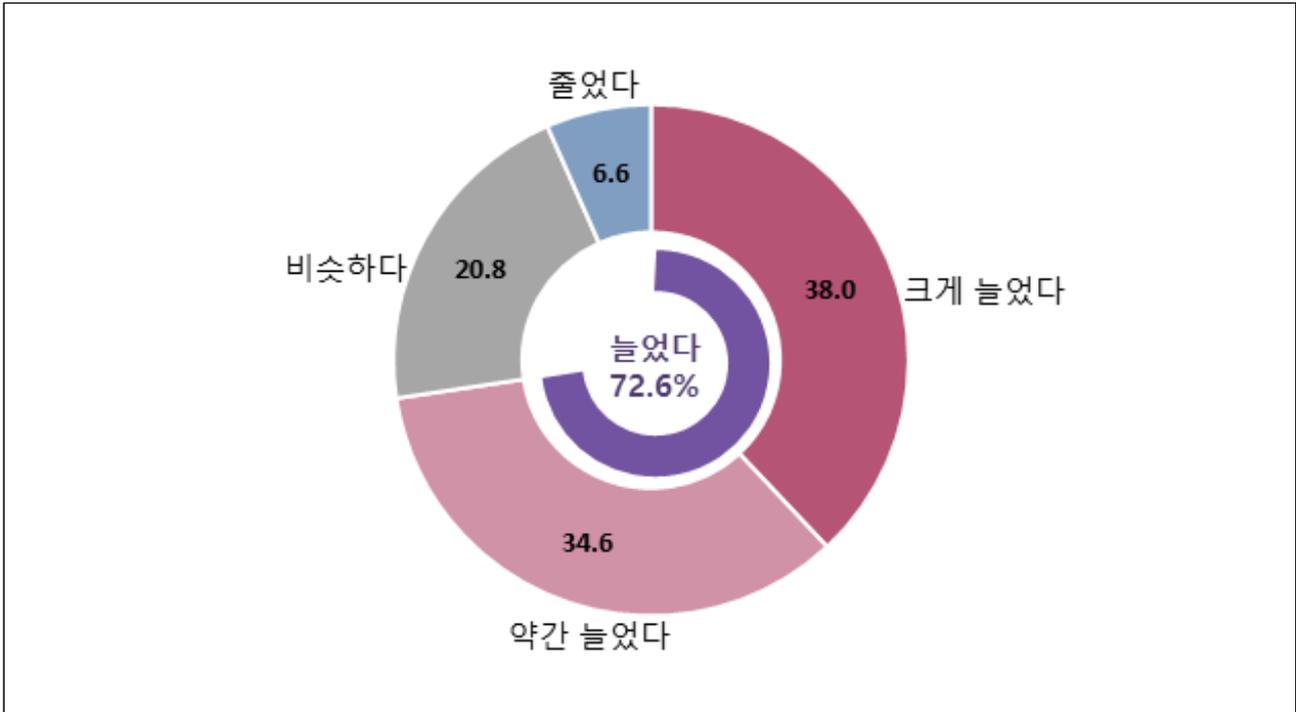
1. 유튜브 시청 시간

[그림30] 일일 유튜브 시청 시간

(Base=전체, N=500, %)



먼저 하루에 어느 정도 유튜브를 시청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크리스천 중고생의 평균 유튜브 시청 시간은 2시간 44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1시간-2시간 이하’ 시청이 23.7%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고, ‘2시간-3시간 이하’ 시청이 22.7% 순으로 나타나는 등 절반 정도가 1시간-3시간 정도 시청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18] 학교구분별 코로나19 이후 유튜브 시청 시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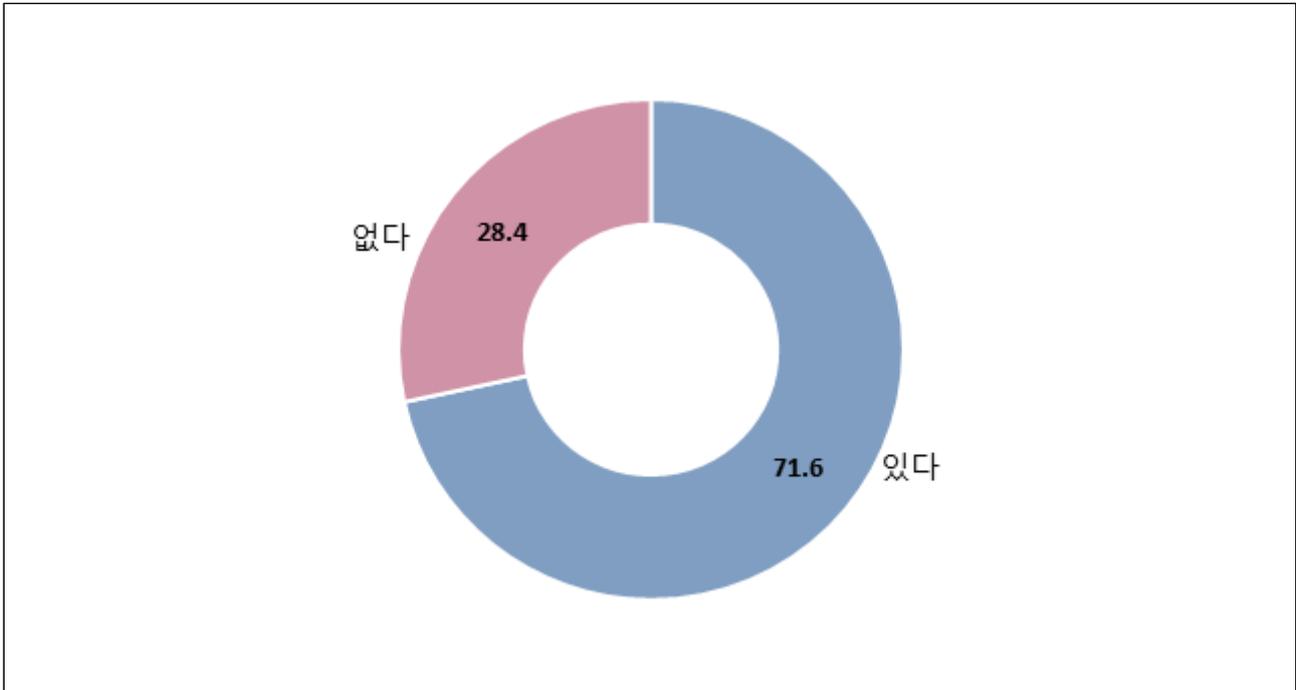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명)	크게 늘었다	약간 늘었다	비슷하다	오히려 줄었다	계	[늘었다]	[비슷하다]	[줄었다]	
전 체	(500)	38.0	34.6	20.8	6.6	100.0	72.6	20.8	6.6	
학교구분	국공립	(288)	44.2	32.2	17.3	6.3	100.0	76.4	17.3	6.3
	사립	(121)	32.1	41.0	21.9	5.0	100.0	73.1	21.9	5.0
	대안학교	(51)	22.3	33.8	35.6	8.3	100.0	56.1	35.6	8.3
	기타	(39)	31.4	33.9	23.3	11.5	100.0	65.3	23.3	11.5

코로나19 이후의 유튜브 시청 시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38%가 ‘크게 늘었다’고 응답하였고, 34.6%가 ‘약간 늘었다’고 응답하여 72.6%가 코로나19 이전보다 유튜브 시청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20.8%, ‘줄었다’는 응답은 6.6%에 불과하였다. 특히, 대안학교 학생들의 경우 다른 학생들보다 ‘늘었다’는 응답(56.1%)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대안학교는 평소 유튜브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은 편으로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2. 기독교 콘텐츠 시청 경험

[그림32] 유튜브 중 기독교 콘텐츠 시청 경험

(Base=전체, N=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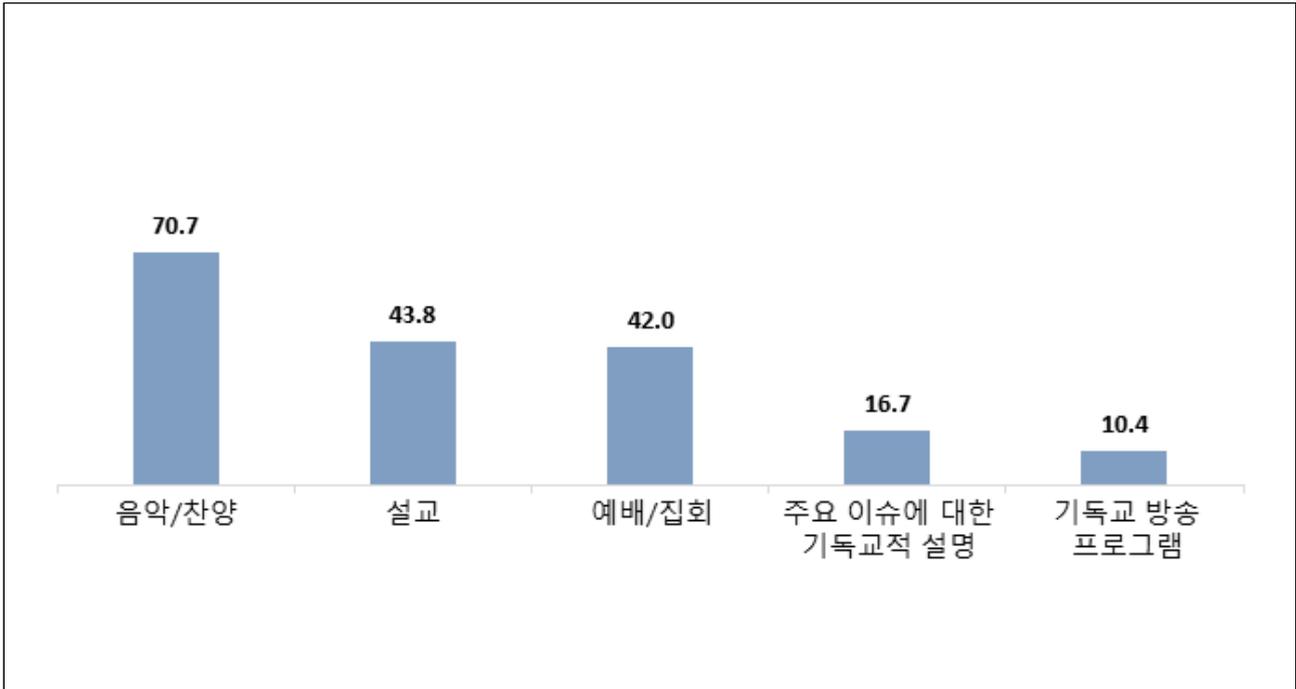
[표19] 유튜브 중 기독교 콘텐츠 시청 경험

구 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 체		(500)	71.6	28.4	100.0
성별	남학생	(258)	67.6	32.4	100.0
	여학생	(242)	75.9	24.1	100.0
부모 종교	모두 개신교	(331)	77.7	22.3	100.0
	한분만 개신교	(107)	66.3	33.7	100.0
	모두 비개신교	(62)	48.7	51.3	100.0
교회 규모	100명 미만	(155)	62.5	37.5	100.0
	100~499명	(170)	69.9	30.1	100.0
	500~999명	(100)	78.6	21.4	100.0
	1000명 이상	(76)	84.9	15.1	100.0
중고등부 유무	있음	(431)	73.3	26.7	100.0
	없음	(69)	61.5	38.5	100.0
중고등부 규모	10명 미만	(66)	58.1	41.9	100.0
	10~49명	(178)	76.2	23.8	100.0
	50~99명	(90)	72.8	27.2	100.0
	100명 이상	(96)	78.8	21.2	100.0

크리스천 중고생의 기독교 유튜브 콘텐츠 시청 경험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1.6%로서, '없다'고 응답한 비율 28.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서 유튜브를 통해 찬양, 설교, 예배 등 기독교 콘텐츠를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유튜브 시청 경험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중고등부가 있는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규모가 클수록, 부모 모두가 개신교인일수록 더 높게 나타났고, 중고등부 규모가 10명 이상인 곳이 10명 미만인 곳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33] 시청한 기독교 콘텐츠 종류

(Base=기독교 콘텐츠 본 경험 있음, N=358, %/중복)



[표20] 성별, 학교급별 시청한 기독교 콘텐츠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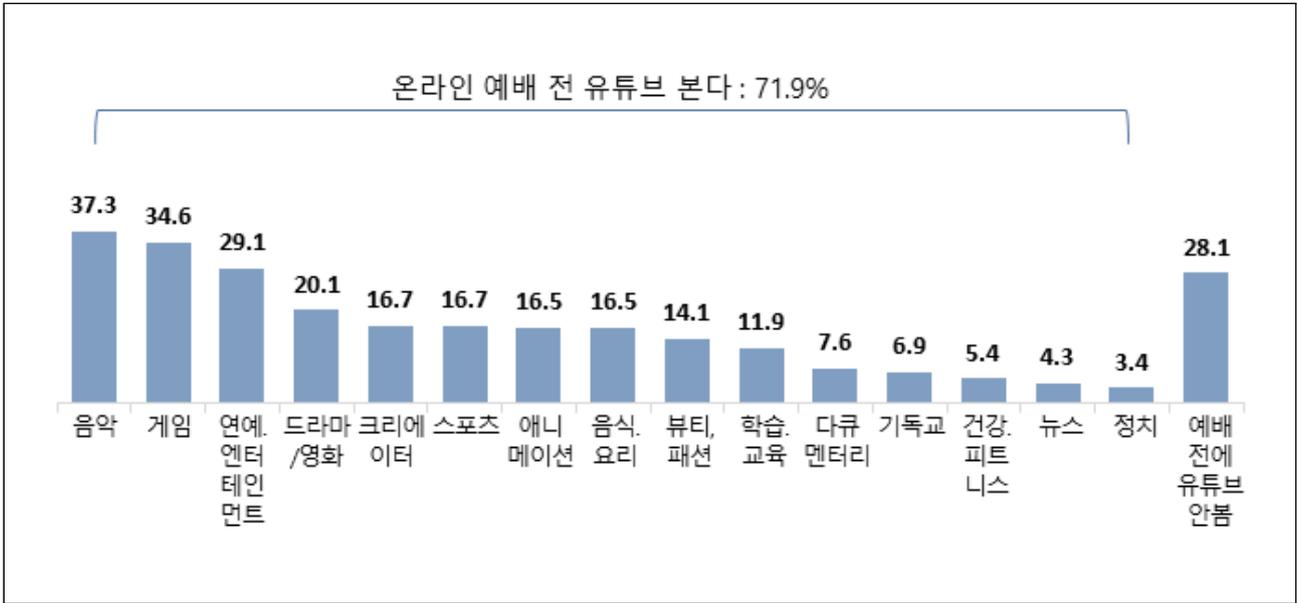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음악/찬양	설교	예배/집회	주요 이슈에 대한 기독교적 설명	기독교방송 프로그램	기타	
전체	(358)	70.7	43.8	42.0	16.7	10.4	0.7	
성별	남학생	(174)	69.0	41.5	39.3	21.4	8.2	0.5
	여학생	(184)	72.3	45.9	44.5	12.2	12.5	1.0
학교급	중학생	(180)	66.8	42.3	44.4	12.9	10.2	0.0
	고등학생	(179)	74.6	45.2	39.5	20.5	10.6	1.5

크리스천 중고생들이 시청한 기독교 유튜브 콘텐츠는 음악/찬양(70.7%), 설교(43.8%), 예배/집회(42.0%)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이슈에 대한 기독교적 설명은 16.7%,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은 10.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주요 이슈에 대한 기독교적 설명 관련 콘텐츠에 대한 시청율은 남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이나 음악, 그리고 예배, 설교 중심의 유튜브 시청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요 이슈에 대한 기독교적 인식을 높이는 분야의 시청이 낮은 것은 이 시대의 청소년들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를 현실로 받아들여 접근하되, 이를 보완하는 노력을 아울러 도모해야 하는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3. 주일 온라인 예배

[그림34] 주일 온라인예배 전 시청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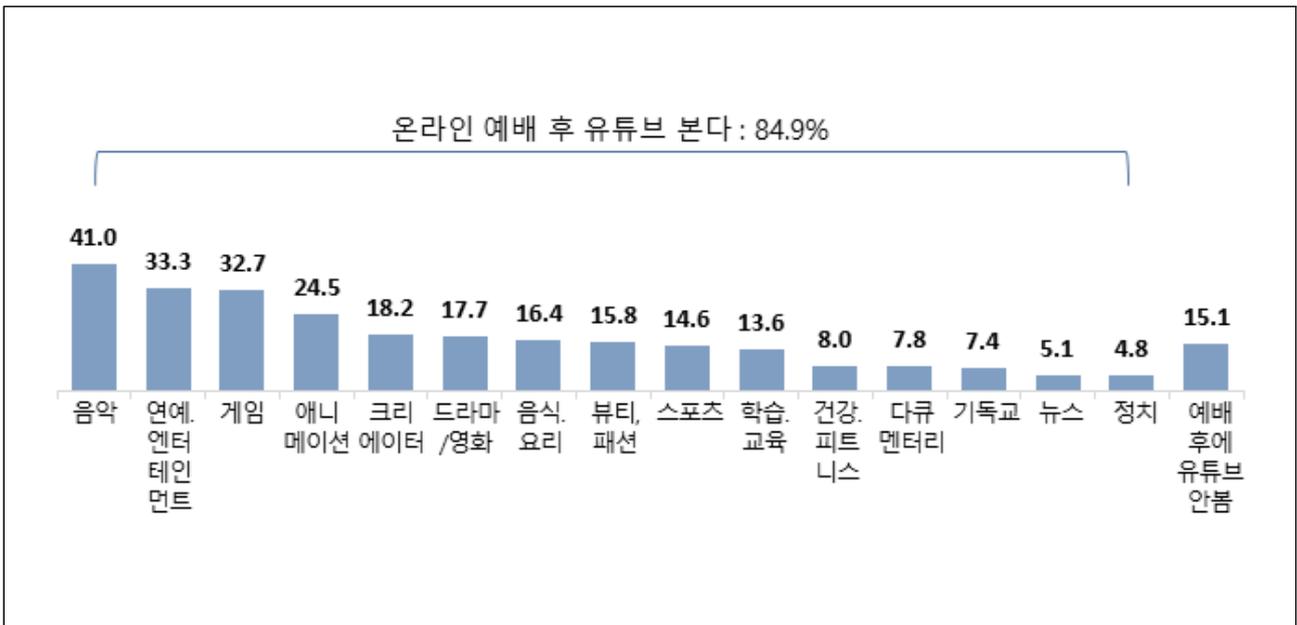
(Base=지난 주일예배 '온라인 예배' 드린 자, N=125, %/중복)



크리스천 중고생이 주일 온라인 예배를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드리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주일 온라인 예배를 전 후해서 어떤 콘텐츠를 시청하였는지를 파악하였는데, 우선 온라인 예배 전에 71.9%가 유튜브를 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콘텐츠의 종류로는 음악(37.3%), 게임(34.6%), 연예, 엔터테인먼트(29.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콘텐츠를 본 후 예배에 들어왔다는 비율은 6.9%에 불과하였다.

[그림35] 주일 온라인예배 후 시청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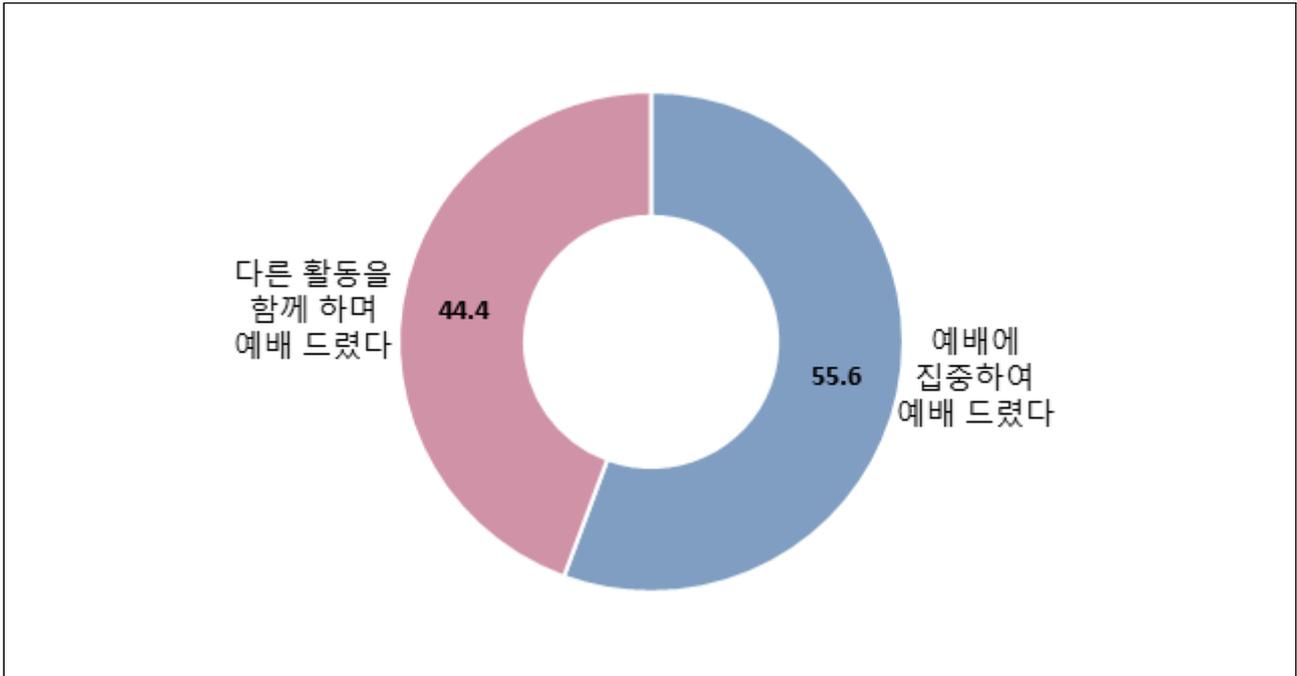
(Base=지난 주일예배 '온라인 예배' 드린 자, N=125, %/중복)



주일 온라인예배 후 유튜브를 시청하는 비율은 84.9%이었으며, 시청한 콘텐츠로는 음악 41.0%, 연예, 엔터테인먼트 33.3%, 게임 32.7%로서 예배 전 시청 콘텐츠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배 후 기독교 콘텐츠를 본 비율은 7.4%로서, 크리스천 중고생들이 온라인 예배 후에 기독교 콘텐츠를 시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일반적인 콘텐츠 시청으로 되돌아간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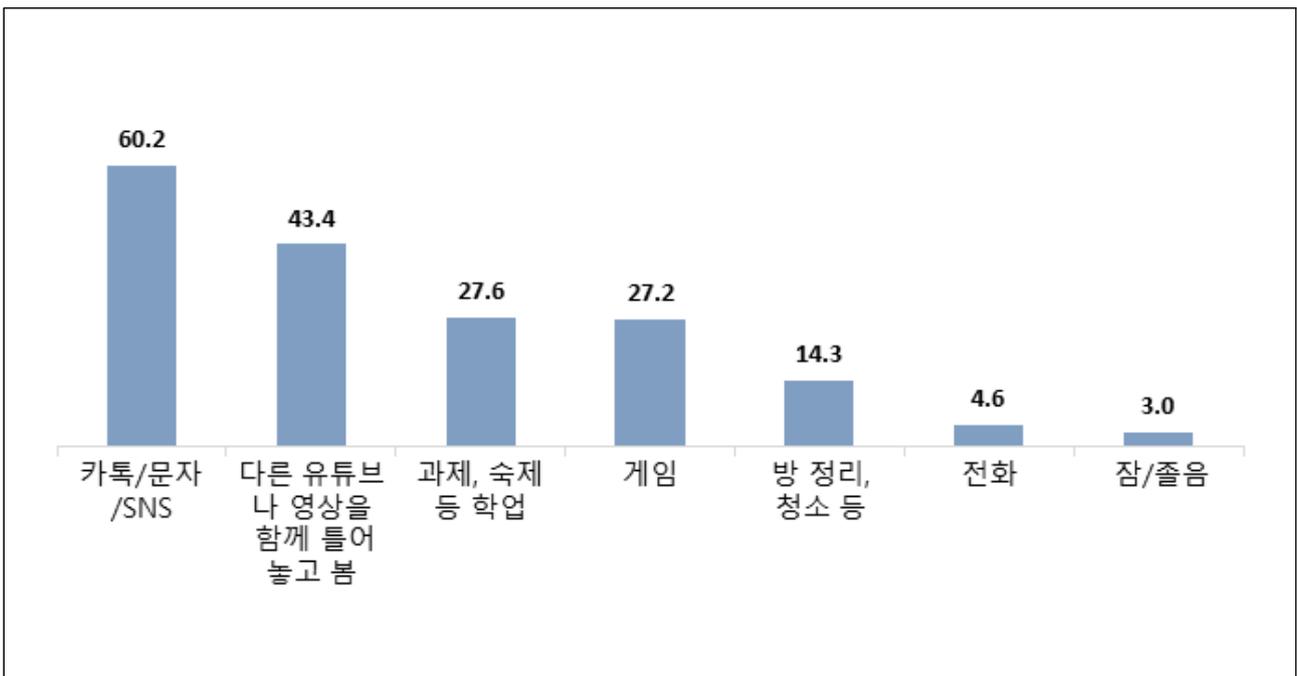
[그림36] 온라인예배 집중 정도

(Base=지난 주일예배 '온라인 예배' 드린 자, N=125, %)



[그림37] 온라인예배 드리면서 함께 한 일

(Base=다른 활동 함께하며 온라인 예배 드림, N=56, %/중복)



온라인 예배의 집중 정도는 55.6%가 '예배에 집중하여 드렸다'고 응답하였으며, 44.4%는 '다른 활동을 함께 하며 드렸다'고 응답하였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한 일은 '카톡/문자/SNS'가 60.2%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른 유튜브나 영상을 함께 틀어놓고 본다'고 응답한 경우가 43.4%, '과제, 숙제 등 학업'이 27.6%, 그리고 '게임'이 27.2%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온라인 예배에만 집중하기가 쉽지 않음을 드러내 보이는데, 보다 집중적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청된다.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시대의 청소년들은 다양한 매체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고, 그런 다중적 인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보다 역동적, 참여적으로 구성하는 시도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4. 논의

크리스천 중고생의 유튜브 하루 평균 시청 시간은 2시간 44분이라는 것은 그만큼 유튜브를 통한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얼마든지 청소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 신앙적 영향력도 끼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유튜브 시청 시간이 늘어났는데, 이는 단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만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도 그러한 변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유튜브를 통한 신앙교육의 가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유튜브 콘텐츠 중 기독교 콘텐츠 시청 경험이 71.6%라는 것은 유튜브를 통한 기독교적 교육이 가능함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특히 기독교 음악이나 찬양 등을 통한 접근이 요청됨을 보여주고 있다. 주일 온라인 예배는 대부분 유튜브로 드리집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 전의 유튜브 시청율이 71.9%, 그리고 예배 후의 시청율이 84.9%인데 기독교 콘텐츠가 아닌 내용들을 시청하는 것이어서 예배에 대한 집중도나 그 의미가 약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예배 전후에 흥미있으면서도 예배와 연결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교회와 교단, 기독교 언론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집중하기보다 다른 일을 함께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온라인 예배이면서도 오프라인 예배를 중계하는 듯한 느린 템포의 여백 많은 진행이 가져오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청소년들이 예배에 집중하는 것을 도우면서도 여백이 많아 산만해지지 않도록 예배를 입체화하는 노력, 예배 관련 활동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IV. 결론 및 제언

한국 크리스천 중고생들의 가정생활, 학교생활, 그리고 미디어 생활의 실태를 파악한 본 연구의 조사결과는 청소년 교회교육에 대한 많은 통찰을 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빠른 속도로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를 신앙교육의 좋은 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연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교회 청소년 대상 교회교육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정과의 연계 강화이다. 전통적으로 한국교회는 교회학교 중심 체제라고 볼 수 있다. 교회학교에 중등부, 고등부, 또는 청소년부서를 두고 교육담당 교역자와 교회학교 교사들이 중고생들을 가르치는 형태이다. 중고등부가 없는 소규모 교회라고 하더라도 교회가 중심에 되어 청소년들을 교육한다는 교회 중심 체제라는 점에서는 부서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금번 연구 조사가 보여주듯이 대부분의 크리스천 중고생들이 믿는 가정에 속해 있고, 그들의 부모가 신앙인이며, 부모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가정, 부모 중심의 신앙교육으로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이러한 가정과 부모의 영향이 강화되고 있기에 교회 중심의 신앙교육 패러다임에서 교회-가정 연계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맞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부모교육이 요청되며, 교구 편성 자체를 자녀 연령에 따른 부모발달단계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예배를 비롯한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개발, 보급하고 이를 교회가 지속적으로 격려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담임목사가 종래의 교회중심의 목회와 교육에서 가정 중심, 가정 친화적 목회와 교육으로 방향을 바꾸고, 다음세대 교육을 교육부서에만 맡기는 것을 넘어서서 전체 목회가 다음세대 지향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교회학교 무용론이나 폐지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유기적으로 교회학교와 가정, 교사와 부모가 연계하고 협력하는 구조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둘째, 청소년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그들의 학교생활에도 관심을 갖고, 교회와 가정의 연계만이 아니라 학교도 연계될 수 있는 접근이 요청된다. 빠른 속도로 학교가 비기독교 또는 반기독교적 환경이 되어가고 있는데, 학교에서 배우고 경험하는 것을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해석하고 비평함으로써 신앙과 학업을 연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청소년 신앙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교회는 청소년들이 기독교학교나 기독교대안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일반 학교에서 기독교적 정체성을 지키고 이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오히려 다른 학생들에게 기독교적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복돋아 주고 격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교과목에서 배우는 내용과 신앙과의 갈등에 대해서 기독교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신앙에 대한 의심이나 회의로 인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만이 아니라 부모를 대상으로 한 기독교세계관 교육도 필요하며, 중요 이슈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신앙적 의심이나 회의에 관해 대화하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교회가 지역사회 속의 학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지원을 하며, 특히 중고등학교 안에 기독교 동아리가 개설되고 활성화되어 학교에서도 신앙 활동과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학교 안에 있는 기독교사와 협력하고, 교회의 교역자나 교회학교 교사를 학원선교사로 학교에 파송하여 교회-학교 연계를 도모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여야 한다. 소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는 오늘의 청소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디지털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필요는 더욱 증대되었고 그 영향력이 확장되었는데, 청소년 신앙교육에서 이러한 소통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로 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시대,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시대로 인해 도래할 수밖에 없는 소통 및 교육 방식의 변화를 앞당겨 경험하고 있을 뿐이다. 코로나19 이후는 그 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뉴노멀(new normal)이 될 것이다. 소위 올라인(All-line), 하이플렉스(HyFlex)의 교육현장이 될 것이다. 이는 단지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소통 수단의 변화만이 아니라 인식하는 방식, 사고하는 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향후 청소년 교회교육은 이러한 시대 사조적이며 커뮤니케이션의 시대적 변화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이들에게 맞는 복음 소통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온라인 예배의 경우에도 단지 오프라인 예배를 그대로 송출하는 방

식이 아닌 온라인 소통의 예배를 새롭게 기획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예배 전후에는 예배와 관련된 기독교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것도 필요하며, 예배에 집중한다는 의미도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해서 가만히 앞만 보고 있는 것과는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한 번도 걸어가지 않았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모두가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기도 하다. 특히, 청소년 신앙교육에 있어서 전통적인 패러다임에서부터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 금번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 실태조사가 그러한 가능성을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방향을 깨닫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담임목사를 비롯한 교역자, 교회학교 교사, 부모, 그리고 청소년이 함께 마음을 모아 지혜를 구하면 코로나19 이후에는 청소년 사역이 더 풍성해지고 다음세대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되리라 소망한다.

청소년 목회현장 적용 및 제안

김지환 목사(안산제일교회·다음세대총괄)

I. 기독 청소년들을 위한 목회 방향성

[표1] 2021 학령인구(6-21세) 추이

(단위: 천명, %)

	총인구	학령인구 (6~21세)		초등학교 (6~11세)		중학교 (12~14세)		고등학교 (15~17세)		대학교 (18~21세)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1970	32,241	12,604	39.1	5,711	17.7	2,574	8.0	2,101	6.5	2,218	6.9
1980	38,124	14,401	37.8	5,499	14.4	2,599	6.8	2,671	7.0	3,632	9.5
1990	42,869	13,361	31.2	4,786	11.2	2,317	5.4	2,595	6.1	3,663	8.5
2000	47,008	11,383	24.2	4,073	8.7	1,869	4.0	2,166	4.6	3,275	7.0
2010	49,554	9,950	20.1	3,280	6.6	1,985	4.0	2,084	4.2	2,601	5.2
2020	51,781	7,821	15.1	2,717	5.2	1,358	2.6	1,382	2.7	2,364	4.6
2021	51,822	7,638	14.7	2,710	5.2	1,373	2.6	1,337	2.6	2,218	4.3
2030	51,927	6,076	11.7	1,797	3.5	1,143	2.2	1,321	2.5	1,815	3.5
2040	50,855	5,204	10.2	2,085	4.1	1,017	2.0	916	1.8	1,186	2.3
2050	47,745	5,073	10.6	1,733	3.6	941	2.0	1,002	2.1	1,396	2.9
2060	42,838	4,188	9.8	1,398	3.3	793	1.9	832	1.9	1,164	2.7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한국교회의 다음세대, 그 중에서도 청소년부는 늘 위기라고 말했었다. 이제 곧 다음세대가 정리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렸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에 다음세대와 관련된 모든 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통계청이 올해 5월에 발표한 2021 청소년 통계자료를 보면 청소년(중,고등학생)인구가 1980년 527만명대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올해엔 그 절반가량인 270만명까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한국교회 다음세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감소세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속화된다는데 있다. 지금 청소년이 30-40대가 되는 2050년 이후에는 160만명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총인구 구성의 10퍼센트도 못 미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 외에도 청소년부는 내부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감각에 둔해진 문화,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모습들, 서열화 및 학생들의 생활패턴을 고려치 않은 케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청소년부를 떠나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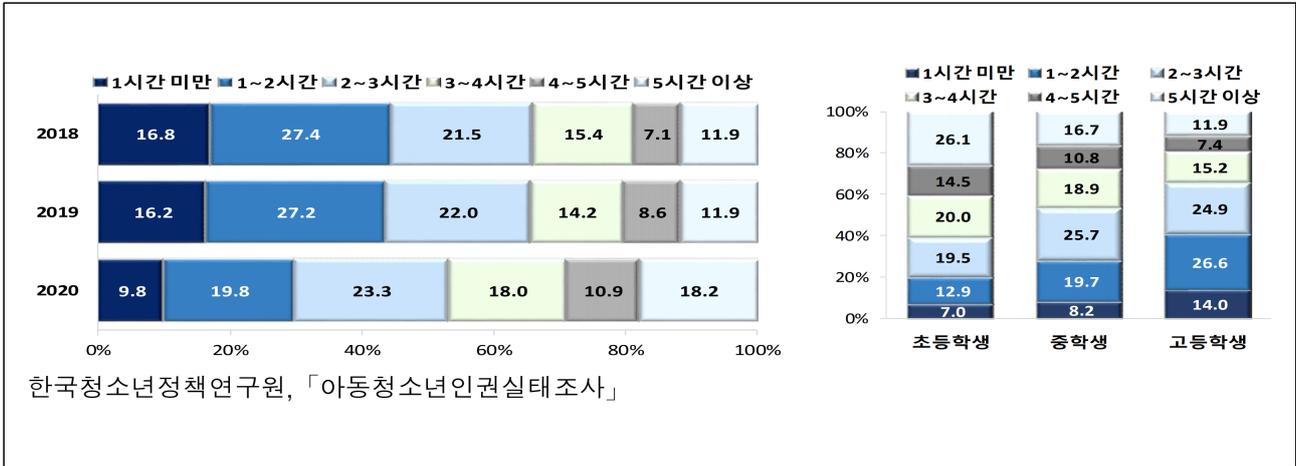
코로나 이전에는 현장출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어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현장과 온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지금에서는 더 이상 신앙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혹은 가정으로 넘어갔기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청소년부 목회를 부서사역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 학생 모두가 서로 함께 적극적 개입을 통해 교회와 청소년, 학부모를 하나의 신앙공동체로 결집시키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부 교회교육 지도자, 리더들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교육목회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이들의 신앙생활을 도울 것인지에 대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 이번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 리서치를 준비하게 되었다.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그 토대가 되는 청소년들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더 이상 청소년부가 청소년의 삶의 현장과 동떨어진 신앙이 아닌, 가정 및 공동체와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

II. 과연 코로나는 청소년 목회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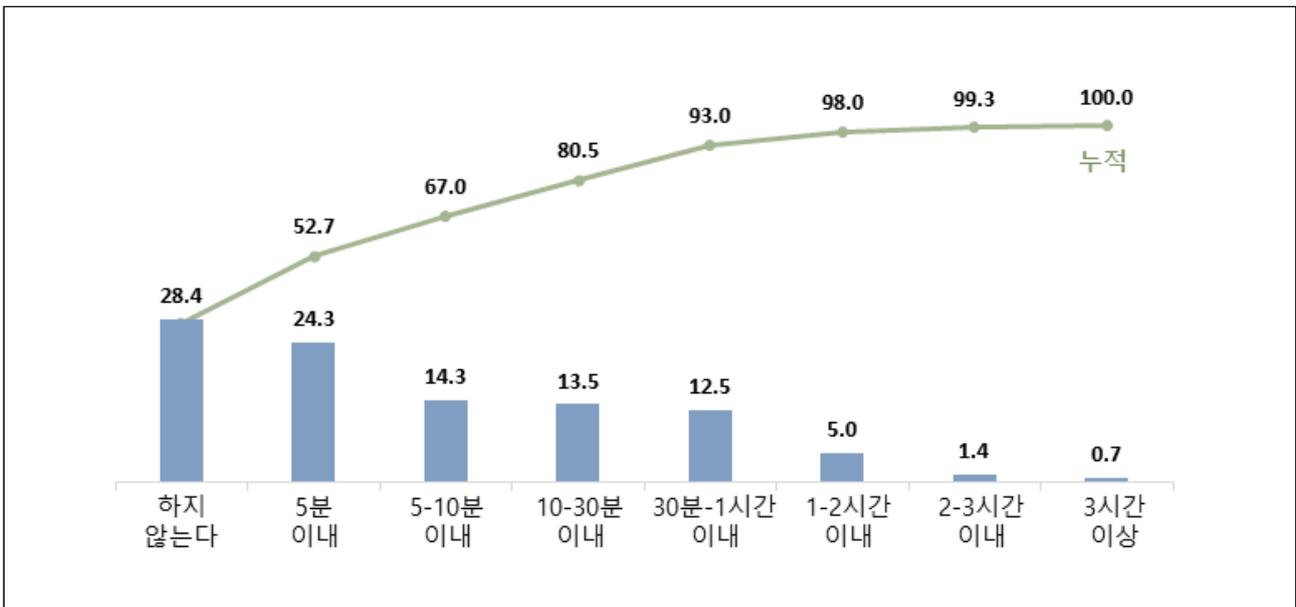
1. 청소년의 삶이 어떤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그림1] 2020년 학교급별 여가활동 시간조사표



[그림2] 하루 중 신앙생활 시간

(Base=전체, N=500, %)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에게 여유라는 것은 사치에 가까운 개념의 단어이다. 앞서 언급한 지난 5월에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중학생은 평일 여가시간을 2-3시간, 고등학생은 1-2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 2019년에 비해 늘어난 수치이다. 이번 크리스천 중고생 조사에서도 학생들은 평소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10분미만으로 한다는 경우가 67%로 나와 입시로 인해 바쁜 현실에 놓여있는 청소년의 신앙생활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을 그대로 두고만 볼 것인가? 늘 시간에 쫓기고,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개인시간을 통해 휴식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도와줄 수 있을까? 다음의 조사결과에 힌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3] 2021 청소년, 청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 '20년 10대 청소년은 인터넷을 일주일에 27.6시간 이용함
 - 10대 인터넷 이용 시간은 전년 대비 10.0시간 증가함
- '20년 20대는 인터넷을 일주일에 29.5시간 이용함
 - 20대 인터넷 이용 시간은 전년 대비 5.2시간 증가함

< 인터넷 주평균 이용시간¹⁾ >

(단위: 시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0대	14.4	14.5	15.4	16.9	17.8	17.6	27.6
20대	20.5	21.0	22.8	23.6	24.2	24.3	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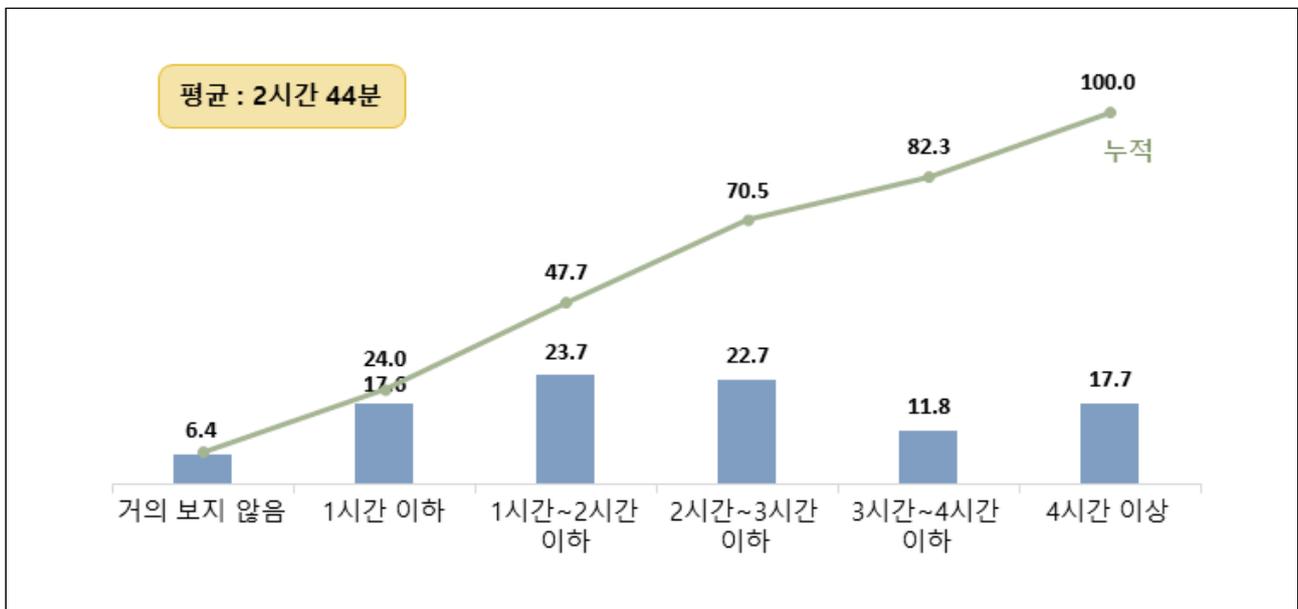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주: 1) 이동전화,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IPTV,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을 모두 포함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금 청소년들의 여가 시간을 채우고 있는 것은 온라인이다. 1주에 약 28시간을 인터넷 이용으로 보낸다는 것은 하루에 4시간을 온라인 이용에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먼저 살펴본 조사에서 하루에 1-2시간을 여가 시간으로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청소년들은 쉬고 있을 때나 아날 때나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온라인으로 쉬고 있다는 뜻이 된다.

[그림4] 일일 유튜브 시청 시간

(Base=전체, N=500, %)



이번 조사에서도 현재 청소년들의 하루 유튜브 시청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가 51퍼센트를 넘긴 것을 보면 청소년들 대부분이 온라인을 통해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정말 많은 시간을 온라인, 스마트폰에서 보낸다는 것인데, 바로 거기를 이들의 신앙성장의 필드로 삼고, 그곳의 언어와 문화를 통해 실생활과 밀접한 신앙의 접점을 찾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1-2시간이라면, 그 외의 온라인에 머무르고 있는 28시간을 타겟으로 하여 이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복음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70%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온라인 예배, 온라인 신앙교육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기억해본다면,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교육을 수립할 때 또 다른 기회가 열리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청소년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자주 이용한다는 명제를 넘어 신앙의 선택권이 부모나 교회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귀속될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끼는 청소년들의 자세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어느 누구에게나 강제 당하지 않고, 어느 시간이나, 어떤 곳에서도 신앙생활을 누리려 하는 것이 지금 청소년 세대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결정하게 되면 더욱 단단한 신앙의 기초를 만들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개신교인 학생들보다 비개신교인 학생들이 코로나 사태가 풀리게 되면 교회에 더 자주 가겠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본인의 의지에 따라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들이 신앙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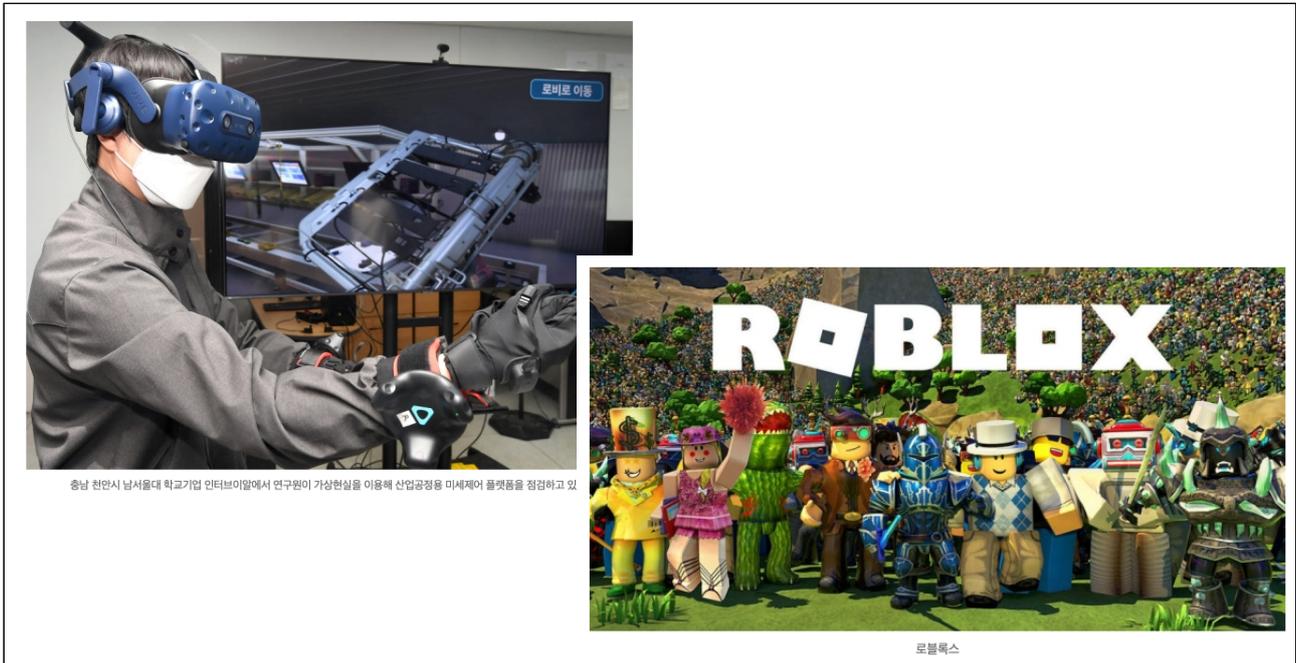
이러한 면들을 볼 때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본인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교회가 제공하고, 학업과 입시로 인해 여가 시간을 많이 누리는 일조차 힘든 청소년들의 현 상황을 이해하여 언젠가 그들이 접속하여 신앙의 고민, 은혜,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면 청소년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전통적 공간 개념을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시공간을 견지하며 이들의 삶 바로 가까이에서 이들의 신앙을 도와주는 형태의 다음세대 정책이 필요하다. 주일이라는 한정된 시간, 교회 부서실이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을 뛰어넘는 개념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곧 교회 혼자만이 아닌, 교회와 가정, 개인이 함께 하는 형태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뜻하는 바이기도 하다. 이렇게 될 때, 코로나 사태는 더 이상 청소년부의 위기가 아닌 기회로 넘어설 수 있게 될 것이다.

2. 세대를 이해하는 게 아닌, 인정하고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림5] 대한민국 희망프로젝트 메타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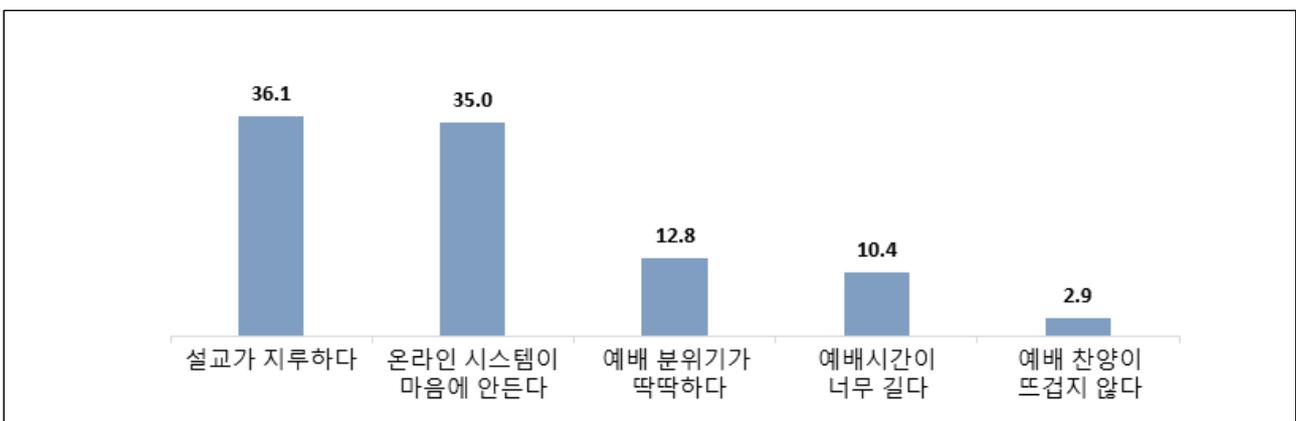
2021.6.13. 전자신문



최근 들어 기사나 티비를 통해 주변에서 MZ세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또한 메타버스나 로블록스, 가상공간에 대해 한 번쯤은 기사로라도 접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3D 디스플레이나 VR기기의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미 이를 활용한 여러 사업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다. 유튜브나 미디어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간접경험을 주제로 한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내가 해보지 못한 경험, 직업, 상황들을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서로 나누는 데 익숙해져 있는 것이다.

[그림6] 학생예배 불만족 이유

(Base=출석교회(현장/온라인) 학생 예배 참석자 중 불만족자, N=27, %)



지금 청소년들은 이러한 문화를 일상으로, 삶 그 자체로 여기며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교회에 오면 이러한 문화와 삶은 일시적으로 단절된다. 마치 우리가 드라마 응답하다 시리즈를 보며 아 그 때 그랬었지를 회상하는 것처럼, 이들은 현실판 응답하다 시리즈를 매 주일마다 교회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청소년들이 부서예배를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루하고, 온라인 내용이 부족하고, 딱딱하다고 한 것은 결국 본인들의 문화와 맞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청소년 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제스처나 노력들은 청소년 목회자나 교사, 리더에게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노력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이해하는 게 아닌 인정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 섬기는 모습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학생들에게 자신도 잘 모르는 게임을 이야기하며 어땠는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게임 안에 들어가 그 공간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모습이 필요하다. 온라인도 마찬가지이다. 유튜브 콘텐츠 몇 개 이야기하며 접점을 찾으려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학생들과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 보거나, 함께 시청하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갖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만일 온라인 기반의 예배를 만든다고 할 때, 단순히 예배를 중계하는 것에서 벗어나 반응형 콘텐츠처럼 설교를 미리 녹화해두고 학생들과 주일에 함께 보며 서로 함께 카톡이나 대화창을 통해 피드백을 나누는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절기 음식들을 현대화된 감각으로 재탄생시켜 함께 먹어보고 피드백을 나누는 콘텐츠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방주를 미니어처로 제작한다거나 물고기 153마리를 직접 잡고 그 무게나 모습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배나 신앙교육의 형태가 우리에게 매우 어색하지만, 청소년들 더 나아가 아동학생들은 너무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다. 그 삶의 모습이 주일에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자신들의 삶과의 접촉점을 교회에서도 찾을 수 있게 된다면 그 자체로 교회생활,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

결국 지금의 청소년들은 가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자신에게 보여주는 제스처에 매우 민감하기에 금방 알아차린다. 이들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이들에게 나아갈 때 비로소 마음을 열고 공동체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이 이들이 생각하는 공정, 신뢰의 영역이다.

예배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한다고 해서 예배 전에 휴대폰을 걸어 가거나 전원을 끄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휴대폰을 이용해서 예배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것이 청소년들이 느끼는 이해를 넘어선 인정의 제스처인 것이다. 휴대폰을 하지 않도록 강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 환경을 개선해준다거나, 아예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충전도 하면서 온라인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을 통해 교회가 가진 인정의 마인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교회가 정말 자신들의 문화를 이해해주고 있구나, 자신들의 삶을 진심을 담아 위로해주려 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고, 이는 결국 공동체의 신뢰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신뢰를 쌓아가며 신앙 안에서 복음적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수없이 다양한 좋은 열매들이 만들어 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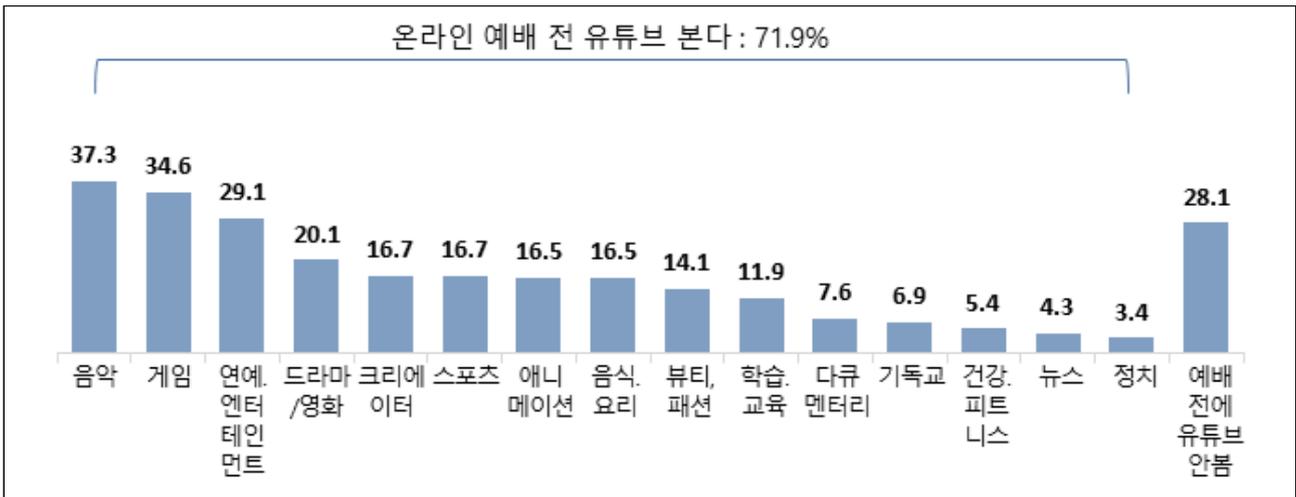
3. 예배파트: 레이턴시 없는 몰입감 넘치는 예배

레이턴시라는 개념은 청소년 부서를 담당하는 교역자, 교사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용어이다. 번역하자면 지연시간이라는 뜻인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딜레이와는 사용하는 환경이 약간 다르다. 일상보다는 온라인 게임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온라인 게임을 하는 청소년이라면 아주 친숙한 단어이다. 굳이 전문적인 설명이 아니더라도, 레이턴시가 좋지 않으면 온라인 게임 시 프레임 드랍 현상이 나타나고 이는 곧 게임플레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를 막기 위해 큰 돈을 들여서라도 성능 좋은 컴퓨터를 구입하거나 랜 환경이 좋은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게 된다. 이는 유튜브 시청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아 저화질로 영상이 뜨거나, 연결 중이라는 메시지가 뜨면 바로 다음 영상이나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 버린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문화가 아동학생 때부터 몸에 배어 있다. 학교, 학원, 온라인, 휴대폰, 노트북 등 이들이 사용하는 거의 모든 매체에 빠른 레이턴시가 요구되기에 이러한 속도에 청소년들은 익숙해져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예배는 너무나 긴 레이턴시를 갖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도 학생들은 온라인 예배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을 했는데, 이는 게임이나 온라인 콘텐츠로 생각해 본다면 정상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없는, 보고만 있어도 다른 플랫폼을 찾고 싶은 형태가 온라인 예배임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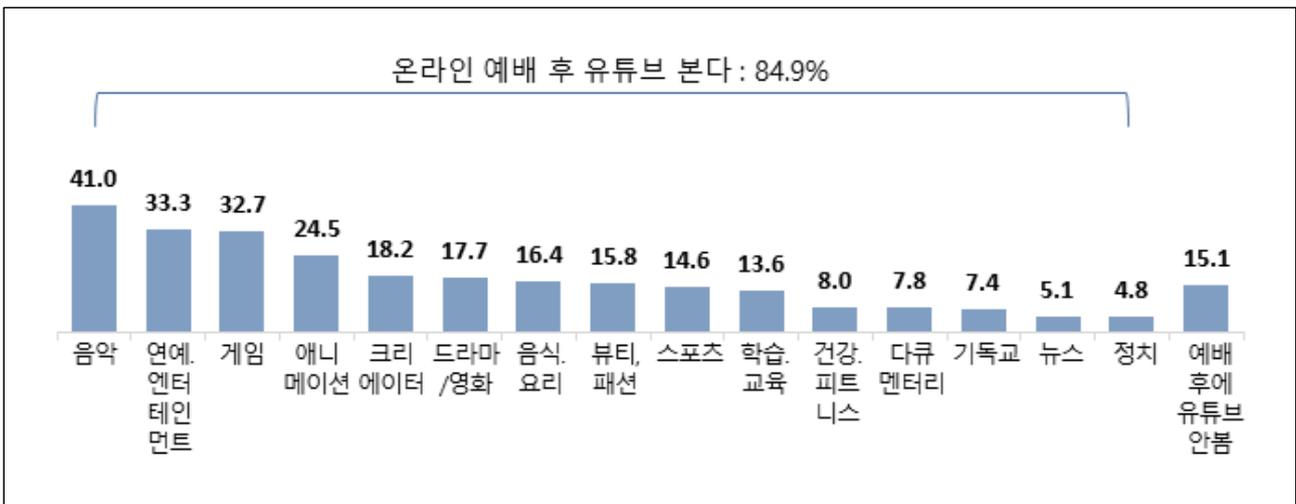
[그림7] 주일 온라인예배 전 시청 콘텐츠

(Base=지난 주일예배 '온라인 예배' 드린 자, N=125, %/중복)



[그림8] 주일 온라인예배 후 시청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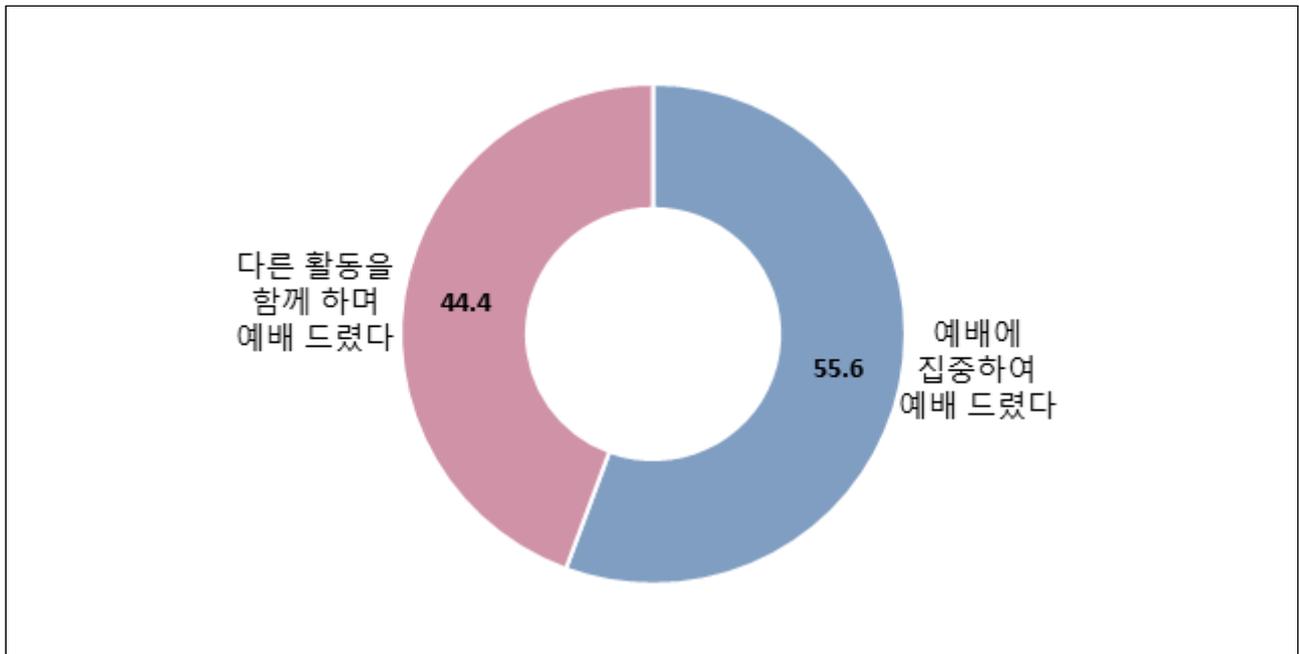
(Base=지난 주일예배 '온라인 예배' 드린 자, N=125, %/중복)



이번 조사를 보면 온라인 예배 앞뒤로 다른 콘텐츠들을 보고 들어온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음악과 게임이 70퍼센트를 넘는다. 음악과 게임 모두 5분 이내, 길어야 10분 정도의 영상이 주를 이루고 영상전개도 매우 빠르다. 이렇게 속도감 있는 영상을 보다가 온라인 예배에 들어왔는데 1시간 동안 앉아서 화면만 바라봐야 한다면 정말 신앙 깊은 학생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 예배에 온전히 집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렇기에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다른 활동을 한다는 응답률이 거의 절반에 이르는 44.4퍼센트를 나타냈다.

[그림] 온라인예배 집중 정도

(Base=지난 주일예배 '온라인 예배' 드린 자, N=12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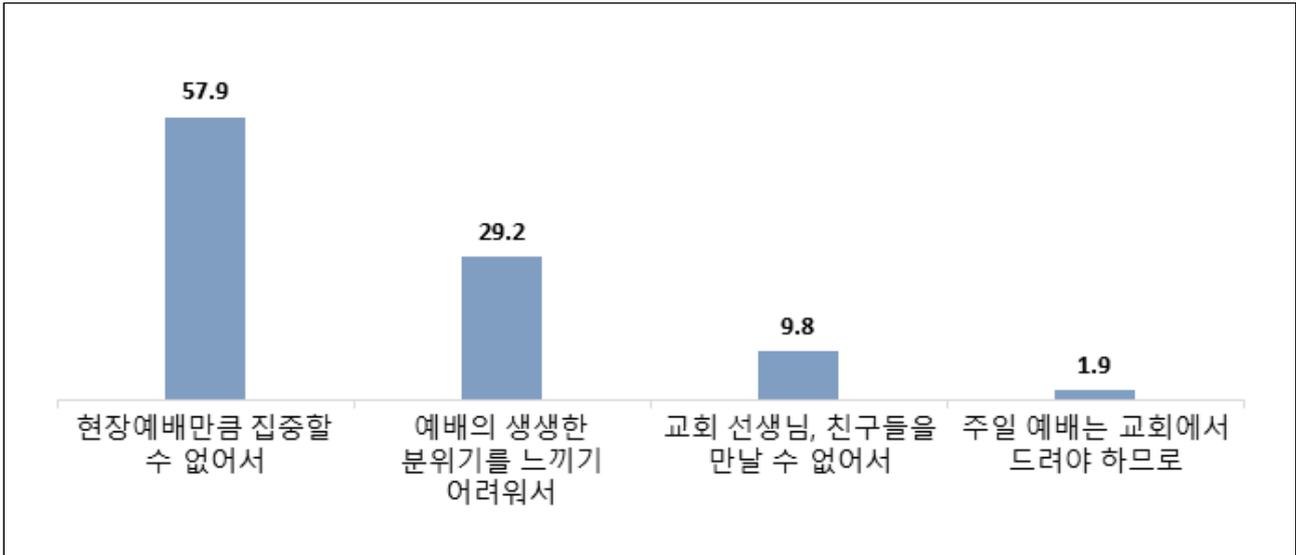
즉 예배를 드리면서 메신저도 하고, 책도 보고, 다른 콘텐츠를 보기도 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해본 사람이라면 이해하겠지만, 그룹채팅으로 친구들과 이야기하거나 SNS를 보게 되면 금방 거기에 빠지기 쉽다. 또한, 현재 청소년들은 1년 넘게 쯤이나 유튜브 라이브를 이용한 온라인 학습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매우 익숙하다.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학교수업을 하면서도 다른 일을 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거기에 예배 전후로 빠르고 감각적인 콘텐츠를 보고 있으니 더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안한다. 하나는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를 중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태생 자체를 온라인에 맞춘 진정한 의미의 온라인 예배를 기획해보는 것이다. 현장을 전달하는데 급급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 안에 상호교류적인 내용들을 포함하여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의지로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집중력 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예배형태를 만들어 보는 것이다.

재미있는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다른 활동을 하는 청소년을 본 적 있는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이 나오는 영상을 보면서 다른 영상을 보는 경우를 본 적 있는가? 아마 매우 드물 것이다. 오히려 너무 집중한 나머지 주변상황이 인식되지 않을 정도로 빠져 있는 모습을 자주 경험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자신이 거기에 하고자 하는 마음과 하는 동안 큰 즐거움을 누리고,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예 온라인을 통한 예배를 기획할 때에 그 예배에 청소년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매력 있는 예배를 준비해야 함과 동시에 이들이 예배 안에서 다윗과 같이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방법들을 배치해보면 어떨까? 예배 전후로 예배에 대해 환기하거나 정리, 나눔할 수 있는 반응형 콘텐츠를 배치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해외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는 영상기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청소년들이 비록 온라인이지만 즐겁게 예배에 참여하고 나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4) 삼하 6:14-15



둘째는 온라인 예배에 현장전달의 필요성을 대입한다면, 정말 생생하게 자신이 마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 같은 현장감을 전달해주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온라인 예배의 가장 아쉬운 점을 현장성에서 뽑은 것처럼 현장예배를 온라인으로 전달할 때 동선, 구성, 화면컷, 자막, 디자인, 음향, 음량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마치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매일 가상화면을 즐기고 VR의 이질감도 느끼지 않는 세대이다. 화면으로 만나는 세상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는 의미이다. 그렇기에 예배를 집례하는 목회자나 전달하는 교사, 스태프들 모두가 함께 모여 스크린을 통한 전달력을 높이는 방안들을 논의, 연구한다면 분명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원칙이 있다. 우리가 가진 환경에서 예배나 신앙교육 때에 복음적 차원의 내용 외에 학생들에게 1초, 아니 1분이라도 낭비되는 시간이 있는지, 그 레이턴시를 줄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모두가 이에 대한 공통된 목표의식을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목상과 같이 의도적으로 학생들에게 주는 시간이 아니라면 항상 모든 순서에, 심지어 기도, 설교에까지 이 레이턴시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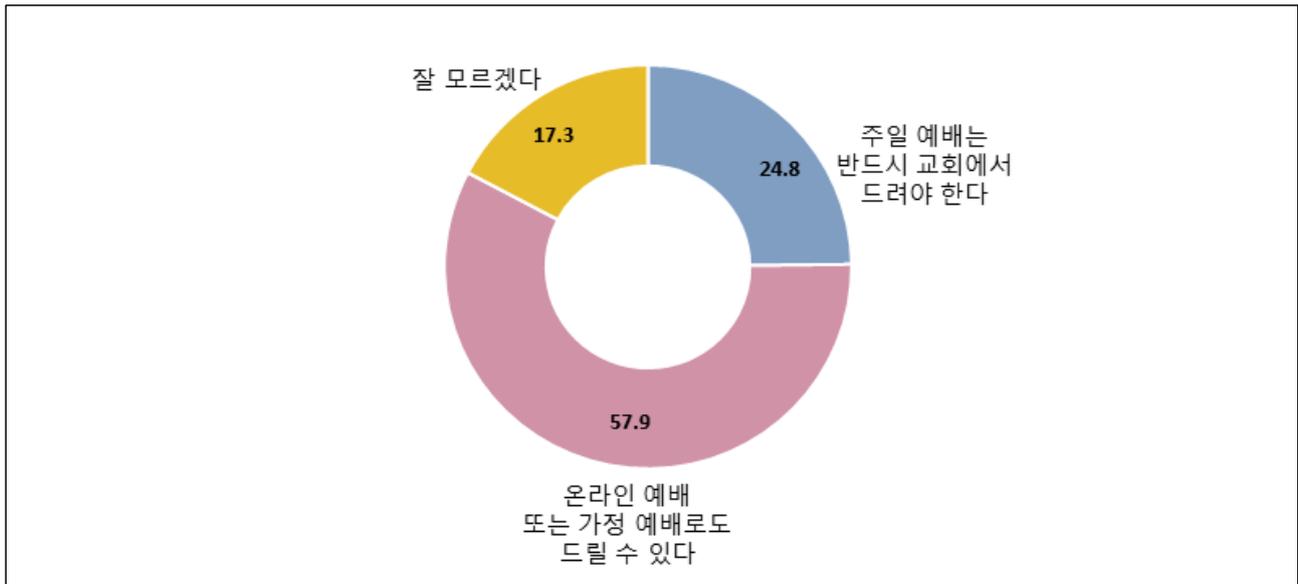
그래서 예배가 가진 복음적 선포, 구원확신의 모습 외에도 예배를 통한 기쁨,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경험을 교회가 마련해 주어야 한다. 더 이상 교회가 가진 수사학, 교육매체, 전달방법이 울드하거나 겉모습만 흉내 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충분히 문화적으로도 어필이 가능하고, 이들이 이 안에서 신앙의 즐거움과 더불어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가능해진다면, 더 이상 청소년들이 본인들의 예배가 지루하다고 느끼지 않고, 비기독교 청소년들에게도 자신 있게 본인이 속한 청소년부의 예배나 콘텐츠를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4. 목양파트: 메타버스로 만드는 3W부서

코로나 이후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 생활 가운데 자리를 잡으면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게 되었다. 내가 꼭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있지 않더라도 일과 학업,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른바 메타버스의 개념이다. 온라인에 접속된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있다면 이제 더 이상 공간이나 시간에 대한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다. 학교와 일터, 혹은 내가 속한 단체나 소속된 국가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신앙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이미 청소년부서는 이에 대한 시대적 요청을 거세게 받고 있는 형국이다.

[그림11] 주일성수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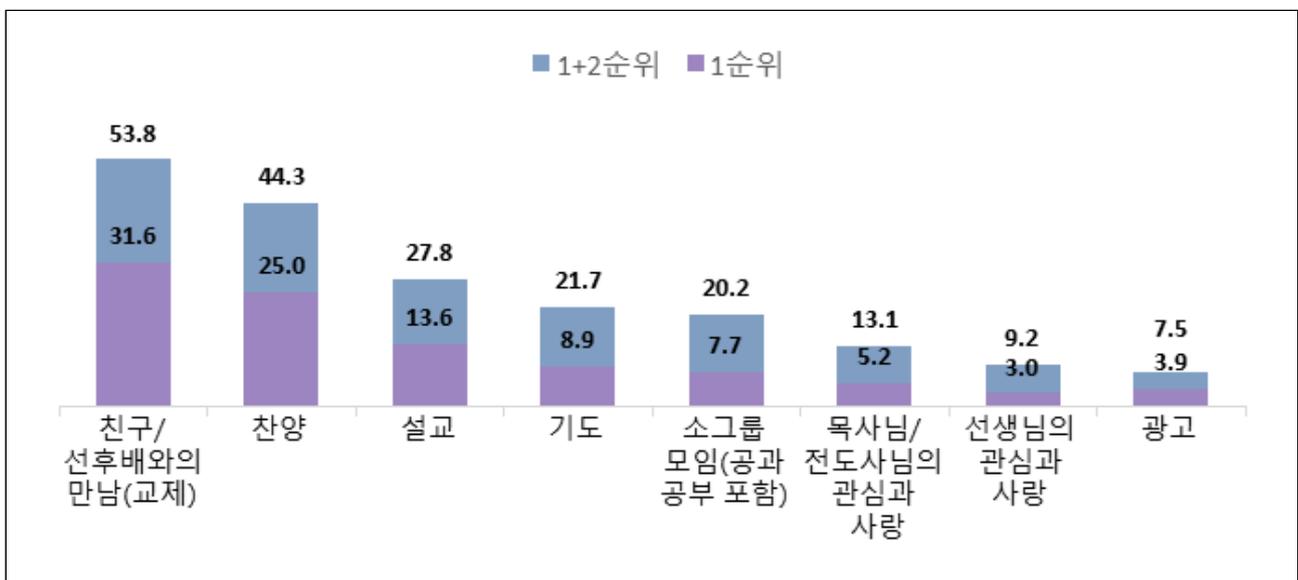
(Base=전체, N=500, %)



지금까지는 교회에 와야지만, 그 시간에 있어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교육과 돌봄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더 나아가 대상자의 범위도 넘어선 개념의 부서로 변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도 청소년들은 온라인을 통한 신앙생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의견을 내었다.

[그림12] 중고등부 예배 및 활동에 기대하는 것

(Base=현재 주로 학생 예배 드리는 자, N=3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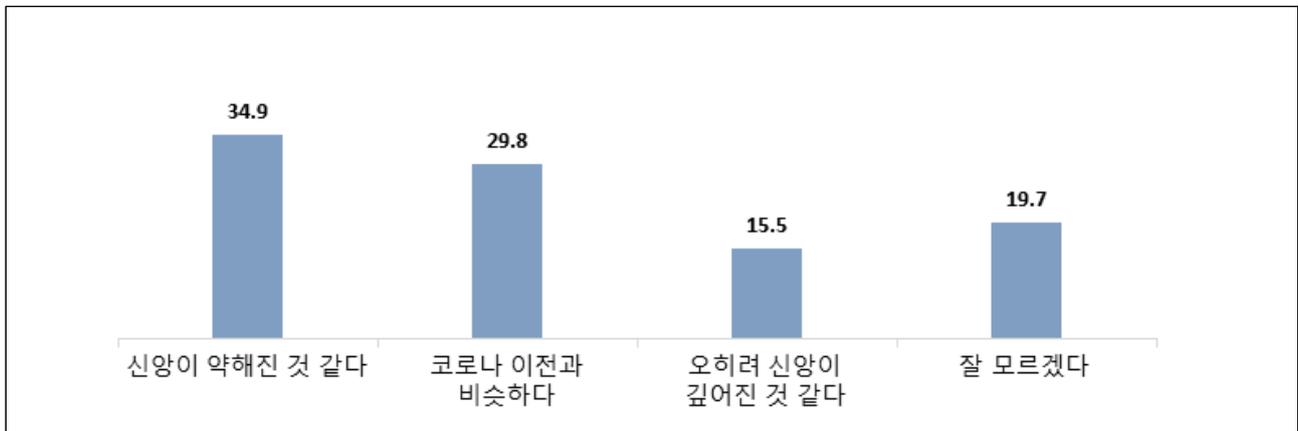


또한, 조사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은 부서활동을 중 서로와의 교제를 가장 크게 기대하는 바로 뽑았는데, 그렇다면 현장예배 및 활동을 통해 만나는 교제와 사역 외에도 이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청소년들이 어디에서 만나고 있는가, 어디를 그들의 미팅존으로 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서두에 이야기한 메타버스의 개념을 생각해봐야 한다. 3W, 즉 WHEN, WHERE, WHO를 모두 포함하는 새로운 방식을 가진 온라인 미팅존을 통해 서로의 교제를 더욱 풍성히 하는 방법이다.

청소년부 홈페이지나 SNS, 기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들 수도 있고, 특정한 게임 안에 부서만의 독자적인 가상현실세계를 구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본인의 신앙적 고민이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고, 이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을 목회자나 교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면 청소년들은 마음에 안정감과 신뢰감을 갖게 되고 이는 결국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나 가족에게 소개하는 관계 전도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림13] 코로나19 이후 신앙수준 변화

(Base=전체, N=500, %)



코로나를 겪으며 청소년들은 신앙의 위기의식을 갖고 생활하고 있음을 이번 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84.4퍼센트의 압도적인 비율로 청소년들은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1주일에 한 번, 그것도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한창 복음적 사고를 키우고 신앙의 습관을 훈련해야하는 청소년들에겐 매우 가혹한 신앙적 환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혼자 다니는 학생들, 가끔씩 나오는 학생들은 이러한 목양범위에서 더욱 벗어나 있다. 교회에 나와야지만, 그것도 성실히 다녀야지만 자신을 기억하고 케어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신앙이 깊던 깊지 않던, 자신의 가정과 학교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궁극증 및 위기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들을 잡아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목회자나 교사가 온라인과 미디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의 문화에 맞춘 복음의 메시지, 신앙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을 준비하여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분야를 목회자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안 그래도 교육 현장의 모든 일을 담당해야 하는 담당교역자의 상황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임에 분명하다. 이를 분담할 전문 인력을 교회에서 준비하여 교역자를 돕게 된다면, 분명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통적 개념의 반, 소그룹 개념에서 벗어나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그룹, 느슨한 연대, 국가를 초월한 다양한 그룹, 본인의 관심사로 연결된 그룹, 언제든지 탈퇴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그룹 등을 생각해 봐야 한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연대의 개념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소엔 느슨하게 연결된 것 같다가도 강하게 연결된 하나의 명제 아래 단합하는 모습들은 청소년부서의 반 개념을 어떻게 리폼드 해야 할 지 생각하게 만든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와야지만 만날 수 있는 그룹이 아니라 평소에도, 밤 늦은 시간에도, 어느 곳에서도 내 의견이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룹이라면 그 확장성은 무궁무진해질 수 있다.

5. 교육파트: 가족과 함께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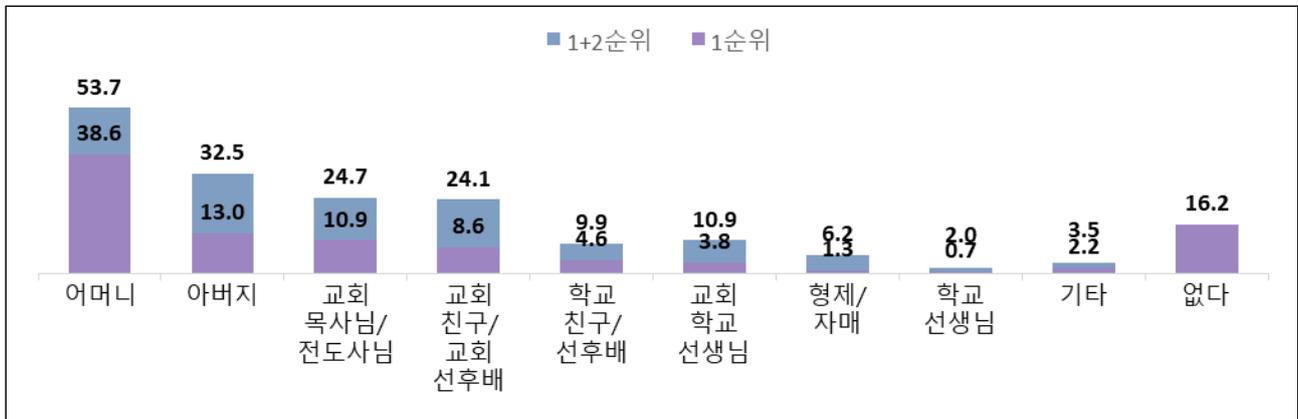
예전에 검색을 위해서 활용했던 것은 검색사이트였으나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 영상으로 검색하는 시대가 되었다. 내가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거의 모든 분야가 그곳에 친절하게 영상으로 올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청소년들은 학교 과제부터 시작하여 진학하고 싶은 학교, 공부 방법, 놀러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음식들, 경험해보고 싶은 것들, 연애상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을 유튜브를 통해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국가를 초월하여 자기가 알고 싶은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고 영상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기에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어떠한 정보가 진짜인지, 좋은 영향력을 가진 것인지, 복음적 내용을 담고 있는 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 청소년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다. 전에는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을 배우는 수준에 그쳤다면, 지금은 정보에 대한 파악뿐만 아니라 이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할 지에 대한 기준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일이 매우 중요해졌다. 성범죄, 폭력 등에 대한 범죄 분야에서만 기준과 제제가 있을 뿐, 지금 청소년들은 무분별한 온라인 미디어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를 통해 하나의 의식을 접한 청소년들은 그 자체가 자의식이 되어 자신의 이념 및 생각을 고정화 시키게 될 위험성을 갖고 있다. 또 온라인 알고리즘이 본인이 선택한 주제를 지속적으로 연결해주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종교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이단들이 만들어 내는 온라인 콘텐츠는 이러한 접점을 잘 이용하여 접근하고 있다. 성이나 이성교제에 대한 주제, 돈이나 직업에 대한 주제 등을 활용하여 접근하는데 이는 결국 신앙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흔들어서 삶의 기준을 복음이 아닌 이단의 논리에 부합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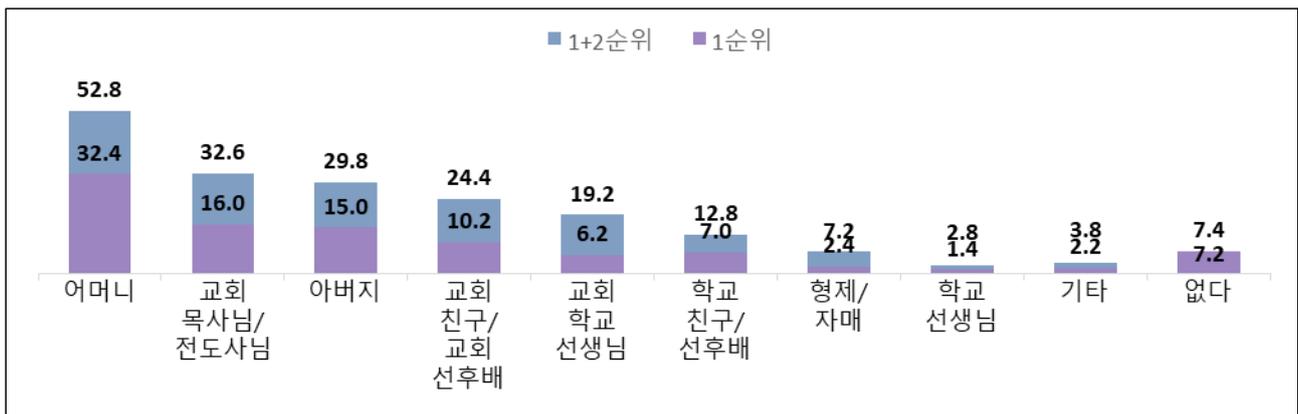
[그림14] 코로나19 기간 중 신앙생활 영향자

(Base=전체, N=500, %)



[그림15] 비교) 19년도 조사* - 신앙생활 영향자

(Base=전체, N=500, %)



이번 조사에서 코로나를 통해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답한 청소년이 많음을 보게 된다. 특히 아버지에 영향을 많이 받은 청소년이 많다고 답한 것이 눈길을 끈다. 이것은 청소년 신앙교육이 교회현장을 벗어나 가정과 연계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년도 조사를 보면, 어머니에 이어 두 번째로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는 분이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과 같은 목회자라고 답했었는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 자리가 아버지로 변한 것이다. 이는 격리 및 자택생활로 인해 부모와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영향력이 커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가정과 연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준비해야 한다. 부모와 함께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작된 복음의 진리나 교리,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신앙문제를 위한 자료들을 공유하며 복음적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교재나 콘텐츠가 총회나 검증받은 건전한 교회나 사역팀을 통해 배포되게끔 지원하여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와 나눌 수 있도록 브랜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기독교부모, 가정의 신앙교육을 교회현장과 연계하는 일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이 주일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예배에 대한 훈련이 어느 때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교회나 총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독교부모들을 훈련시켜 이러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여 가정의 자녀들을 무분별한 미디어 사용에서 벗어나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복음적 가치를 통해 온라인을 사용하도록 이끄는 모습이 필요하다.

다만, 16%로 큰 폭으로 높아진 신앙생활의 영향력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부모 외에 직접 이들을 교육하고 인도해줄 사역모델도 필요하다. 또래집단이나 학교 동아리 등을 활용하여 이들이 서로 온라인으로 모여 프로젝트를 이루고 결과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복음적 기준을 가진 온라인 신앙인으로 자라나도록 만드는 것이다. 안산제일교회에서는 별별 작은도서관이라는 지역도서관을 운영 중인데, 여기에 아는 형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선배인 시니어 학생들에게 학습 도움을 받으며 선순환을 이루게 되는데, 여기에 온라인 영화제작과 같은 활동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서로 함께 의견을 나누며 선한 기준을 가지고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발표하여 자신의 의식을 다듬어 나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교육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러한 실제적 적용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온라인 정보, 미디어 활용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분명 교회에도, 삶에도 긍정적 효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III. 결론 및 제언

청소년 시기는 문화나 미디어에 가장 민감한 시기이다. 미디어는 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소년들이 무엇에 열광하는지, 어떠한 기호로 움직이는지, 그 패턴은 무엇인지를 분석, 조사하는 일을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부의 현실을 보면, 이러한 모습보다는 언제 다시 교회로 모이게 할지, 언제 예전처럼 학생들을 케어 하게 될지 기다리고만 있는 경우가 많다. 단언하기 어렵지만, 청소년부 목회자, 교사라면 그러한 기대가 기대로만 그치게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인도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학생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온라인을 통한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같은 이들의 실제 삶의 패턴을 분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본 세미나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유튜브를 통해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접속자 수와 평균시청시간을 비교해 보면 매우 놀라게 될 것이다. 장년부와 비교하면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의 평균시청시간은 1시간 예배를 기준으로 불과 10분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예배를 하면서 다른 일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마저도 계속 있지도 않고 바로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청소년부 목회자라면 이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를 마련해야 한다.

안산제일교회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실험해보고 있다. 주일예배와 온라인예배의 분리부터 시작하여 온라인 공과를 통한 가정과의 연계,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획행사들, 줌이나 SNS를 통한 목회적 돌봄 등을 실시해보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최적의 신앙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담임목사와 당회원들, 교회 리더쉽에서도 청소년들의 온라인 활동을 돕기 위해 교회에 전용선 및 전용 와이파이 공간을 마련해주고, 게임기 설치 및 언제든지 상시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전문 스튜디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이 결국 청소년들을 복음의 자리로 이끌고, 구원의 확신을 경험시켜 주기 위한 진심을 담은 교회의 제스처이다. 여기에는 교회와 학생과의 신뢰회복을 이루고 가정과 교회, 학생을 하나로 잇는 브릿지 빌더로서의 교육철학이 담겨져 있다. 비록 교육현장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 없이 전쟁터와 같은 어려움의 연속이지만, 서로 함께 신앙의 주체자임을 인정하고, 이 세대에 맞는 감각으로 준비된 예배와 신앙모습으로 기독교문화를 넘어 세상문화를 선도하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

크리스천 중고생 조사

안녕하십니까?

조사 전문기관 지앤컴리서치에서는 청소년의 사회 문화 생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33조에 의해 보호되며, 통계적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문항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생각나는 대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지앤컴리서치
2021. 04.

< 응답자 선정 질문 >

S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나요? [단수]

- 1) 남자 2) 여자

SQ2.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나요?

만 -----세

SQ3.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단수]

- 1) 초등학생 조사 중단
2) 중학생
3) 고등학생
4) 대학생 조사 중단
5) 만 19세 이상 조사 중단

SQ4. 학생은 2021년 현재 몇 학년인가요? [단수]

- 1) 1학년 2) 2학년 3) 3학년

SQ5. 학생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단수]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세종)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SQ6. 학생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단수]

- 1) 기독교
2) 천주교 조사 중단
3) 불교 조사 중단
4) 그 외 종교 조사 중단
5) 종교 없음 조사 중단

SQ7. 학생은 현재 출석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단수]

- 1) 네 2) 아니오 조사 중단

Q. 부모님 종교

Q1. 학생의 부모님 종교는 어떻게 됩니까? [단수]

- 1) 두 분 다 기독교
- 2) 아버지만 기독교
- 3) 어머니만 기독교
- 3) 해당사항 없음

Q2. (Q1의 1,2번 응답) 학생 아버지의 교회 직분은 무엇입니까? [단수]

- 1) 목회자(목사, 강도사, 전도사)
- 2) 장로
- 3) 안수집사(남자권사)
- 4) 서리집사
- 5) 직분없는 성도
- 6) 기독교 신앙은 있지만 교회는 안나가신다

Q3. (Q1의 1,3 응답) 학생 어머니의 교회 직분은 무엇입니까? [단수]

- 1) 목회자(목사, 강도사, 전도사)
- 2) 사모
- 3) 장로
- 4) 여자권사
- 5) 서리집사
- 6) 직분없는 성도
- 7) 기독교 신앙은 있지만 교회는 안나가신다

A. 신앙 인식

A1. 학생은 현재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단수]

- 1) 매우 불만족 2) 약간 불만족 3) 약간 만족 4) 매우 만족

A2. 학생은 요즘 생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해당되는 사항에 솔직하게 체크해 주십시오. [단수]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약간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9) 잘 모르겠다

- 1. 거의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난다()
- 2.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
- 3.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 4. 앞으로 내 생활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다.....()
- 5. 학업에 대한 흥미가 줄어들었다()

A3. 학생은 코로나19 기간 중 자신의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을 순서대로 2명을 선택해 주세요 [2순위 필수] (R)

1순위 ----- 2순위-----

- 1) 아버지
- 2) 어머니
- 3) 형제/자매
- 4) 교회 친구/교회 선후배
- 5) 교회 목사님/전도사님
- 6) 교회학교 선생님
- 7) 학교 친구/선후배
- 8) 학교 선생님
- 9) 기타(적어주세요 : -----)
- 10) 없다

A4. 코로나19 발생 후 지난 1년간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 가장 크게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것을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2순위 필수]

1순위 ----- 2순위-----

- 1) 교회 예배/설교
- 2) 교회공과공부
- 3) 교회내 소그룹 활동 및 모임
- 4) 집회/수련회
- 5) 기독교매체(인터넷, TV, 라디오 등)/신앙서적
- 6) 가정 예배
- 7) 성경읽기/QT(큐티, 경건 시간)
- 8) 신앙 상담
- 9) 기타(적어주세요 : -----)
- 10) 없다

A5. 학생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단수]

- 1) 있다 2) 없다 3) 잘 모르겠다

A6. 다음 항목은 신앙의 단계를 나타내는 단계의 설명입니다. 학생 신앙의 단계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단수]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독교 입문층	그리스도 인지층	그리스도 친밀층	그리스도 중심층
내용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내 종교는 아직까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알기 위해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 분으로 충분하다.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B. 개인 경건 생활

B1. 학생은 요즘 하루에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기도, 성경/신앙서적 읽기, 종교 관련 온라인 콘텐츠 보기 등 신앙생활과 관련된 것 모두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단수]

- 1) 하지 않는다 2) 5분 이내 3) 5~10분 이내 4) 10~30분 이내
- 5) 30분~1시간 이내 6) 1~2시간 이내 7) 2~3시간 이내 8) 3시간 이상

B2. 학생은 지난 1주일간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QT)을 얼마나 자주 가지셨습니까?

1주일 동안 성경 묵상을 한 일수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하루도 하지 않았으면 0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단수]

주-----일

B3. (Q1의 1번 응답, 부모 모두 기독교) 학생 집에서는 평소 가정예배를 드리십니까? [단수]

- 1) 드린다 2) 드리지 않는다

B4. (B3의 1번) 학생 집에서는 가정예배를 얼마나 자주 드리십니까? 명절 혹은 추도 예배를 제외하고 응답해 주세요. (단수)

- 1) 거의 매일
- 2) 주 2-3회
- 3) 주 1회
- 4) 월 1-2회 정도
- 5) 2-4개월에 1회
- 6) 그 이하

B5. (B3의 1번) 가정예배를 드릴 때 학생은 참석하는 편입니까? 참석 못하는 편입니까? [단수]

- 1) 참석하는 편 2) 참석하지 않는 편

B6. (B5의 1번) 학생은 가정예배에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편입니까, 부모님의 요청에 의해 참석하는 편입니까? [단수]

- 1) 매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 2) 어느정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 3) 부모님의 어느정도 요청에 의해 참여하는 편이다
- 4) 부모님의 강한 요청에 의해 참여하는 편이다

B7. 다음 각각 항목별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학생의 신앙생활은 어땠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단수]

- 1. 코로나 이전보다 늘어났다 2. 코로나 이전보다 줄었다 3. 비슷하다 4. 하지 않는다

- 1) 기도하는 시간()
- 2)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는 시간()
- 3) 기독교 관련 온라인 콘텐츠 이용 시간..... ()
- 4) 가정예배 드리는 빈도(주일예배를 대신해서 드리는 예배는 제외함).....()
- 5) 전체적인 신앙생활 ()

B8.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학생의 신앙 수준의 변화가 있습니까? [단수]

- 1)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
- 2) 코로나 이전과 비슷하다
- 3) 오히려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
- 4) 잘 모르겠다

C. 교회에 대한 인식과 생활

C1. 학생이 처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은 언제입니까? [단수]

- 1) 태어날 때 부터
- 2) 초등학교 이전
- 3) 초등학교 시절
- 4) 중학교 시절
- 5) 고등학교 시절

C2. 학생이 출석하는 교회에는 학생예배(중고등부예배)가 따로 있습니까? [단수]

- 1) 있다
- 2) 없다

C3. 학생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주로 어느 예배를 드렸습니까? [단수]

- 1) 어른 예배를 주로 드렸다
- 2) 학생 예배를 주로 드렸다
- 3)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

C4. (C2의 1응답자만) 그럼, 현재는 주로 어느 예배를 드립니까? 온라인예배까지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단수]

- 1) 어른 예배를 주로 드린다
- 2) 학생 예배를 주로 드린다

C5.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학생은 주일예배를 얼마나 자주 드렸습니까? 현장예배, 온라인예배를 모두 포함해서 응답해 주세요. [단수]

- 1) 매주 드렸다
- 2) 한 달에 3번 정도 드렸다
- 3) 한 달에 2번 정도 드렸다
- 4) 한 달에 1번 정도 드렸다
- 5) 두세 달에 1번 정도 드렸다
- 6) 그 이하
- 7) 거의 드리지 못함

C6. 그럼,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학생은 주일예배를 얼마나 자주 드렸습니까? [단수]

- 1) 매주 드렸다
- 2) 한 달에 3번 정도 드렸다
- 3) 한 달에 2번 정도 드렸다
- 4) 한 달에 1번 정도 드렸다
- 5) 두세 달에 1번 정도 드렸다

- 6) 그 이하
- 7) 거의 드리지 못함
- 8)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

C7. 학생은 지난주 일요일에 주일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단수]

- 1) 출석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 2) 출석하는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 3) 다른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 4) 기독교 방송 예배를 드렸다
- 5) 가정 예배를 드렸다
- 6) 현장예배를 드리는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 7)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C8. (C7의 1, 2번 응답자, 출석교회 예배 드렸다면) 지난 주 주일에 어른예배를 드렸습니까? 학생예배를 드렸습니까? [단수]

- 1) 어른 예배
- 2) 학생 예배

C9. (C8의 1번 어른예배 드린 학생) 학생은 왜 학생 예배 대신에 어른 예배를 드리십니까?[단수] (R)

- 1) 중/고등학생 예배를 드리면 공과공부를 해야 해서
- 2) 중/고등학생 예배가 재미없어서/지루해서
- 3) 중/고등학생 지도 목사님/전도사님이 싫어서
- 4) 중/고등학생부서에 싫어하는 친구가 있어서
- 5) 어른 예배 분위기/설교가 더 좋아서
- 6) 부모님과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서
- 7) 중/고등학생 예배가 없어서
- 8) 기타 (적어주세요 : -----)

C10. (C7의 2, 3번 온라인 예배드린 학생) 학생은 교회에 가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단수] (R)

- 1) 부모님과 온라인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 2) 온라인 예배가 편해서
- 3) 교회 가는 시간을 놓쳐서 / 늦게 일어나서
- 4) 현장예배나 온라인예배나 예배 드리는 것은 비슷해서
- 5) 교회에서 현장예배를 운영하지 않고 온라인예배만 운영해서
- 6) 현장예배를 드리면 코로나 감염이 우려돼서
- 7) 기타 (적어주세요 : -----)

C11. (C7의 2,3번 응답자, 온라인 예배 드렸다면) 지난 주 주일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렸는데, 다음 중 어떤 매체/기기로 드리셨나요? [단수]

- 1) TV
- 2) PC(데스크탑/노트북)
- 3) 모바일 기기(핸드폰/아이패드/갤럭시탭 등)
- 4) 기타(-----)

C12. (C7의 2,3번 응답자, 온라인 예배 드렸다면) 온라인 예배는 누구 누구와 함께 드렸나요?

다음 중 해당되는 사람 모두 체크해 주세요 [중복]

- 1) 부모님
- 2) 형제, 자매
- 3) 혼자
- 4) 기타(_____)

C13. (C7의 2,3,4,5번 응답자, 온라인/방송/가정 예배 드렸다면) 지난 주일(일요일) 온라인예배 또는 방송예배를 드렸을 때, 교회에서의 현장예배와 비교해 어떠셨습니까? [단수]

- 1) 현장 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했다
- 2) 현장 예배보다 오히려 더 좋았다
- 3) 현장 예배와 비슷했다

C14. (C7의 1~6번 응답자) 지난 주 예배에 대해 전체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단수]

- 1) 매우 불만족
- 2) 약간 불만족
- 3) 약간 만족
- 4) 매우 만족

C15. (C7의 2,3번 이면서 C14의 4,5번) 온라인 예배에 만족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단수)

- 1) 어떤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 2)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 3) 교회에 오고 가는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아서
- 4) 예배에 대해 집중이 더 잘돼서
- 5) 기타(_____)

C16. (C7의 2,3번이면서 C14의 1,2번) 온라인 예배에 불만족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수]

- 1) 현장예배만큼 집중할 수 없어서
- 2) 예배의 생생한 분위기를 느끼기 어려워서
- 3) 교회 선생님, 친구들을 만날 수 없어서
- 4)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하므로
- 5) 기타(_____)

C17. 주일예배에 대한 다음 두 가지 의견 중 학생은 어느 쪽 의견에 조금이라도 더 가깝습니까? [단수]

- 1)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
- 2)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로도 드릴 수 있다
- 3) 잘 모르겠다

C18.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학생의 교회 출석이 어떨 것 같습니까? [단수]

- 1) 코로나19 이전과 교회에 비슷하게 갈 것 같다
- 2) 코로나19 이전보다 교회에 더 자주 갈 것 같다
- 3) 코로나19 이전보다는 교회에 덜 갈 것 같다
- 9) 잘 모르겠다

C19.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 학생은 주일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싶으십니까? [단수]

- 1) 예전과 동일하게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 드리겠다
- 2) 현장예배보다 온라인예배 중심으로 예배 드리겠다
- 3)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를 번갈아 가면서 예배 드리겠다
- 9) 잘 모르겠다

C20. (C7의 7번, 예배드리지 않았으면) 학생이 지난주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가지만 응답해 주세요 [2순위 필수] 1순위----- 2순위 -----

- 1) 공부/과외/학원 때문에
- 2) 늦잠을 자서
- 3) 믿음이 깊지 못해서
- 4) 교회에 가는 것보다 집에서 쉬는 게 좋아서
- 5) 부모님이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해서
- 6) 친구모임/스포츠/레저 활동 때문에
- 7) 코로나19로 학생예배를 운영하지 않아서
- 8) 기타(적어주세요 : -----)

D. 중고등부 생활

D1. (C8의 2번 이면서 C14의 1,2번) 앞에서 학생 예배에 불만족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R)

- 1) 예배 분위기가 딱딱하다
- 2) 예배 찬양이 뜨겁지 않다
- 3) 예배시간이 너무 길다
- 4) 설교가 지루하다
- 5) 온라인 시스템이 마음에 안든다
- 6) 기타(-----)

D2. (C4의 2번, 현재 학생예배 참석자) 학생은 현재 교회에서 공과 공부(교사와의 소그룹 모임 포함)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단수]

- 1) 오프라인으로 한다
- 2) 온라인으로 한다
- 3) 오프라인+온라인 병행한다
- 4) 하고 있지 않다

D3. (D2의 '2)온라인', '3)오프라인+온라인' 응답자) 현재 교회에서 공과 공부를 위해 어떠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다음 중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중복]

- 1) 집으로 공과 교재를 보내준다
- 2)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 공과에 대한 동영상을 제공해준다
- 3) 밴드나 SNS 등을 통해 과제를 내주고 확인한다
- 4) 줌이나 단체카톡방 등을 통해 공과 내용을 나눈다
- 5) 기타(-----)

D4. (D3의 1~4 응답자) 학생은 현재 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집으로 공과 교재 보내줌	(1)	(2)	(3)	(4)
2. 유튜브/SNS 등을 통해 공과 동영상 제공	(1)	(2)	(3)	(4)
3. 밴드/SNS 등을 통해 과제 주고 확인	(1)	(2)	(3)	(4)
4. 줌/단체카톡방 등으로 공과 내용 나눔	(1)	(2)	(3)	(4)

D5. (C3의 2번 & C4의 2번, 코로나 전후 모두 학생예배 참석자)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요즘 교회 선생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단수]

- 1) 나에게 대한 관심과 사랑이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
- 2) 나에게 대한 관심과 사랑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약간 커졌다
- 3) 나에게 대한 관심과 사랑이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하다
- 4) 나에게 대한 관심과 사랑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약간 줄어들었다
- 5) 나에게 대한 관심과 사랑이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D6. (C3의 2번 & C4의 2번, 코로나 전후 모두 학생예배 참석자) 그럼, 학생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요즘 교회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전도사님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단수]

- 1) 나에게 대한 관심과 사랑이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
- 2) 나에게 대한 관심과 사랑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약간 커졌다
- 3) 나에게 대한 관심과 사랑이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하다
- 4) 나에게 대한 관심과 사랑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약간 줄어들었다
- 5) 나에게 대한 관심과 사랑이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D7. (C4의 2번, 학생예배 참석자) 학생은 중/고등부의 전반적인 것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중/고등부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단수]

- 1) 매우 불만스럽다
- 2) 약간 불만스럽다
- 4) 약간 만족한다
- 5) 매우 만족한다

D8. (C4의 2번, 학생예배 참석자) 학생이 중고등부 예배 및 활동에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순위 필수] 1위 : _____ 2위 : _____

- 1) 찬양 2) 설교 3) 기도 4) 광고 5) 소그룹 모임(공과공부 포함)
- 6)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 7) 목사님/전도사님의 관심과 사랑
- 8) 친구/선후배와의 만남(교제) 9) 기타(_____)

D9. (C4의 2번, 학생예배 참석자) 학생은 코로나19 상황이 현재와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시, 올 여름 수련회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단수]

- 1) 숙박을 하지 않는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
- 2) 숙박 여부와 관계 없이 참여할 의향이 있다
- 3) 숙박 여부와 관계 없이 참여할 의향이 없다
- 4) 아직 잘 모르겠다

D10. (SQ1의 3번, 고등학생인 경우) 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교회 청년부에 올라가 활동할 생각이 있습니까? [단수]

- 1) 있다
- 2) 없다
- 3) 잘 모르겠다

D11. 학생은 어른이 된 후에도 교회에 계속 다닐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만 다닐 것 같습니까? [단수]

- 1) 계속 다닐 것 같다
- 2) 그만 다닐 것 같다
- 3) 잘 모르겠다

E. 부모님 인식

E1. 코로나19 발생 이후 학생이 교회에 주일 예배 드리러 가는 것에 대해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수]

- 1)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 2)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는 것을 권하신다
- 3) 내 의견에 따르신다
- 4) 기타(-----)

E2. (Q1의 1,2,3번 부모가 한 분 이상 기독교인) 평소 부모님께 신앙교육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단수]

- 1) 매우 자주 이야기하며, 받고 있다
- 2) 가끔 이야기하며, 받고 있다
- 3) 별로 받지 못하고 있다
- 4)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E3. (Q1의 1,2,3번 부모가 한 분 이상 기독교인) 부모님께 신앙교육을 받는 것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단수]

- 1)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늘었다
- 2)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하다
- 3)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줄었다

E4. (Q1의 1,2,3번 부모가 한 분 이상 기독교인) 학생은 코로나19 시대에 부모님께 신앙교육을 받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 2) 별로 필요하지 않다
- 3) 약간 필요하다
- 4) 매우 필요하다

E5. 학생의 부모님은 요즘 서로간 사이가 어떻습니까? [단수]

- 1) 사이가 매우 좋지 않다
- 2)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편
- 3) 사이가 어느정도 좋은 편
- 4) 사이가 매우 좋다

E6. 학생은 요즘 어머니와 사이가 어떻습니까? [단수]

- 1) 사이가 매우 좋지 않다
- 2)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편
- 3) 사이가 어느정도 좋은 편
- 4) 사이가 매우 좋다

E7. 학생은 요즘 아버지와 사이가 어떻습니까? [단수]

- 1) 사이가 매우 좋지 않다
- 2)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편
- 3) 사이가 어느정도 좋은 편
- 4) 사이가 매우 좋다

F. 학교 생활과 신앙

F1. 학생은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지난 1년 사이에 얼마나 했습니까? [단수]

- 4) 매우 그렇다 3) 약간 그렇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 1. 학교에서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신앙애기를 하는 편이다……()
 - 2. 학교 공부를 하면서 기독교 신앙과 부딪혀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 ……()
 - 3. 기독교인이라는 것에 대한 비난을 받은 적 있다 ……()

F2. 학생은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단수]

- 1) 하고있다 2) 하고있지 않다 3) 기독교 동아리가 없다

F3. (F2의 1번, 기독 동아리 활동자) 학생은 학교에서 하는 기독교 동아리 활동이 본인의 신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단수]

- 1)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3) 약간 영향을 미친다
- 4) 매우 영향을 미친다

G. 유튜브

- G1. 학생은 하루 평균 어느 정도 유튜브를 보시는 편입니까? 콘텐츠 종류와 상관 없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총 시청시간을 응답해 주세요. 거의 안보면 '0'으로 표시해 주십시오[단수]
----- 시간 -----분 (P: 0~ 20시간)
- G2. 학생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요즘 유튜브 보는 시간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단수]
1) 크게 늘었다 2) 약간 늘었다 3) 비슷하다 4) 오히려 줄었다
- G3. 학생은 올해 들어 유튜브에서 음악(찬양), 설교, 예배, 방송 등 기독교 콘텐츠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학생이 출석하는 교회의 콘텐츠까지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단수]
1) 있다 2) 없다
- G4. (G3의 1번 응답) 어떤 콘텐츠를 보셨습니까?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중복]
1) 음악/찬양
2) 설교
3) 주요 이슈에 대한 기독교적 설명
4) 예배/집회
5) 기독교방송 프로그램
6) 기타 (-----)
- G5. (C7의 2,3번, 온라인 예배자 응답) 지난 일요일 학생이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배 전에 어떤 콘텐츠를 본 후 예배에 들어왔습니까?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을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중복]
1) 음악
2) 연예.엔터테인먼트
3) 스포츠
4) 학습.교육
5) 음식.요리
6) 건강.피트니스
7) 드라마 / 영화
8) 뉴스
9) 다큐멘터리
10) 뷰티.패션
11) 게임
12) 애니메이션
13) 정치
14) 기독교
15) 크리에이터
16) 기타(-----)
17) 예배 전에 유튜브를 보지 않음

G6. (C7의 2,3번, 온라인 예배자 응답) 그럼 온라인 예배를 드린 후에는 어떤 콘텐츠를 이어서 보았습니까? 다음 중에서 해당되는 것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중복]

- 1) 음악
- 2) 연예.엔터테인먼트
- 3) 스포츠
- 4) 학습.교육
- 5) 음식.요리
- 6) 건강.피트니스
- 7) 드라마 / 영화
- 8) 뉴스
- 9) 다큐멘터리
- 10) 뷰티,패션
- 11) 게임
- 12) 애니메이션
- 13) 정치
- 14) 기독교
- 15) 크리에이터
- 16) 기타(_____)
- 17) 예배 후에 유튜브를 보지 않음

G7. (C7의 2,3번 온라인 예배자 응답) 학생은 지난주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어땠습니까? [단수]

- 1) 예배에 집중하여 예배 드렸다
- 2) 다른 활동을 함께 하며 예배 드렸다.(예:카톡, 게임, 청소 등등)

G8. (G7의 2번 응답) 예배 드리면서 어떤 어떤 활동을 함께 했습니까? 다음 중에서 해당되는 것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중복]

- 1) 카톡/문자/SNS
- 2) 전화
- 3) 게임
- 4) 다른 유튜브나 영상(영화,드라마 등)을 함께 틀어놓고 봄
- 5) 과제, 숙제 등 학업
- 6) 방 정리, 청소 등
- 7) 기타()

DQ. 자료분류용 질문

DQ1. 마지막으로 통계 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학생은 다음 중 어떤 종류의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단수]

- 1) 국공립 학교
- 2) 기독교 사립학교
- 3) 비기독교 사립학교
- 4) 기독교 대안학교
- 5) 비기독교 대안학교
- 6) 홈스쿨링
- 7) 기타()

DQ2. 학생이 출석하는 교회의 규모, 즉 어른 출석교인 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정확히 모르더라도 대략적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단수]

- 1) 100명 미만
- 2) 100~500명 미만
- 3) 500~1000명 미만
- 4) 1000명 이상

DQ3. (C2의 1) 응답자만)학생이 출석하는 교회의 중고등부 학생 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중등부와 고등부를 모두 합해서 응답해 주세요. [단수]

- 1) 9명 이하
- 2) 10~49명
- 3) 50~99명
- 4) 100~299명
- 5) 300~499명 이상
- 6) 500명 이상
- 7) 중고등부가 없다

DQ4. 마지막으로 통계 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학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단수]

- 1) 상
- 2) 중상
- 3) 중
- 4) 중하
- 5) 하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